

심 치 열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온달설화의 전승과 수용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최 지 선

# 온달설화의 전승과 수용

심 치 열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최 지 선

# 인 준 서

최지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은달선화의 전승과 수용

최지선

## 논문개요

본 논문은 <온달전>에 대한 기존 연구가 주로 설화적 시각에 한정되어 있거나 역사적 시각에 한정되어 온달설화의 총체적 내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화적인 관점과 역사적 관점을 아울러 <온달전> 서사의 총체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온달전>의 분석은 그것이 『삼국사기』 「열전」에 실렸다는 점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당시 고려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더불어 김부식의 유교적 충을 강조하는 문맥과 기존 설화와 기록의 영향을 받은 문맥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온달전>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설화적 문맥과 아울러 김부식의 저작 의도에 대한 세밀한 고려와 변별이 요구되어진다.

<온달전> 서사에 대한 연구에 이어 살펴본 것은 문헌과 구비설화에서의 온달설화의 전승양상이다. 구비설화는 <온달전>의 생성적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도구인 동시에 온달설화가 일반 서민층에서 전승되는 양상이 문헌설화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문헌자료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명심보감』을 대상으로 <온달전>이 후대의 문헌으로 전승될 때의 변화와 주제의식을 살피고 <온달전>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구비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온달 설화’와 ‘바보 온달형 설화’를 그 대상텍스트로 삼았다. 그 결과 문헌설화의 전승양상과 구비설화의 전승양상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헌설화는 지배층의 의식을 담아 교육적·교시적 주제의식을 함의하며 전승된다. 하지만 구비설화에서는 남녀간 결연담과 성공담에 집중하고 여성의 주체성이라는 주제의식을 담아 전승되는 형태를 보인다. 이것은 지배집단과 일반 서민층이 설화에

서 주목하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일반 백성들이 지닌 관심사는 <온달전>이 현대에 전승된 상황과 유사하다. 현대문학작품에서 <온달전>을 수용한 양상을 살펴보면 구비설화에서 주목하는 온달전의 주제의식이 더욱 전승력이 높아 후대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온달설화는 현대문학에서도 활발하게 재창작·변용되는 설화이다. 이것은 온달설화가 지닌 이야기로써의 전승력과 우리에게 인식되는 보편적 정서가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달설화의 현대 문학에서의 변용양상은 III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현대문학에서 온달설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져 변용 되었는지를 살펴 보는 작업은 온달설화가 고전문학으로 희석된 텍스트가 아니라 지금에도 살아남아 현대의 사고와 가치관을 반영하며 전승되는 힘을 지닌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해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현대문학은 문헌과 구비에서 전승되던 설화의 주제의식을 수용하면서도 작가 개인의 가치관과 결합·변형시키는 형태로 작품을 창작하였다. 작품 속의 인물은 고전 설화의 인물을 수용하지만 그 성격이나 관계에서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함의하는 주제의식 역시 고전의 주제의식을 담기도 하지만 아울러 현대의 여성문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일갈을 담은 형태로 창작되기도 했다. 고전을 재창작하는 방식에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현대작품들은 그것의 핵심 화소나 모티브를 수용하여 변용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열전, 역사적 사실, 설화적 문맥, 전승주체, 주제의식, 전승양상, 현대화 작업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	1
2. 연구사 .....	6
II. 문헌설화와 구비설화의 전승양상과 주제의식 .....	11
1.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온달전>의 특징과 그 의미 .....	11
1) 『삼국사기』 「열전」의 서술적 특징 .....	11
2) <온달전>의 서사단락 .....	15
3) 서사단락의 핵심요소와 의미 .....	20
2. 구비설화 전승양상의 특징과 그 의미 .....	44
1) ‘온달’ 이름으로 전승되는 설화 .....	45
2) ‘바보온달형’으로 전승되는 설화 .....	50
3) ‘내 복에 산다’의 하위유형에 속하는 설화 .....	54
3. 문헌과 구비물의 전승양상과 주제의식 .....	56
III. 온달설화의 현대문학적 변용양상의 다양성 .....	60
1. 여성 주체성에 대한 탐색 .....	62
1) 김지원의 <편강공주와 바보언달 이야기>와 <온달전>의 주제의식 비교 ..	62
2) 최은옥의 <평강의 푸른피리> .....	69
(1) 최은옥 작품과 <온달전>의 서사적 변이 .....	70

(2) <평양의 푸른피리>의 주제의식 .....	73
2. 세계와 자아의 갈등에서 빚어진 비극성 .....	82
1) 최인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82
(1) 최인훈 작품과 <온달전>의 서사적 변이 .....	84
(2)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의 주제의식 .....	89
3. 열전 <온달전>의 서사 확장 및 장편화 .....	94
1) 조령출의 <온달전> .....	94
(1) 조령출 작품과 <온달전>의 서사적 변이 .....	98
(2) 조령출 <온달전>의 주제의식 .....	100
 IV. 결론 .....	 106

## 참고문헌

## ABSTRACT

# 1. 서론

## 1.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삼국사기』 「열전」에 실려 전하는 온달설화는 그동안 설화 연구자는 물론 고소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줄곧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것은 온달설화와 동일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구비설화가 풍부하게 형성되어 현전할 뿐 아니라 고소설에서도 동일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화소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온달설화를 현전하는 동일 유형의 구비설화 혹은 고소설에서 발견되는 동일 유형 화소의 모태로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되기도 했다.<sup>1)</sup> 또한 온달설화를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그 기록에 감추어진 사실성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졌으며 온달설화 자체의 생성적 의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달설화가 받았던 관심만큼의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온달설화를 연구하는 관점은 크게 설화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으로 나뉜다. 설화적 관점은 온달설화를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의 한 유형으로 보고 서사구조와 중심 화소를 비교 연구한다. 기존의 설화적 연구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온달전>의 서사 구조와 화소를 중심으로 생성의미를 도출한 연구, 둘째 내복에 산다 형 설화와 <온달전>의 서사구조와 화소를 비교한 연구, 셋째 외국에 전하는 동일 유형 설화와의 비교를 통해 온달설화의 설화적 특징에 집중한 연구, 넷째 문헌과 구비를 두루 살펴 그 전승양상을 분석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

1) 임재해, <온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갈등>, 여성문제연구 제 11집, 효성여자대학교 부설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2.

김대숙, <온달전의 구비문학적 이해>,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1.

\_\_\_\_\_, <평강선화전승의 신화적 성격>, 평택대학교 논문집 8, 1996.

최운식, <온달설화의 전승양상>, 청람어문학 20, 1998. 등이 있다.

역사적 관점은 기존의 설화적 관점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이 관점은 온달설화가 당시 고구려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대한 우의라는 관점을 취한다. 그래서 온달설화와 사적 자료의 비교를 통해 설화가 내포한 역사적·사실적 내용분석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삼국사기』에 전하는 「온달」 및 문헌에 전승되는 온달 이야기와 바보 온달형 설화로 통칭되는 구비 설화들의 분석을 통해 전승 주체에 따른 온달 설화의 생성 의미의 규명에 첫째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온달 설화가 변용된 현대문학작품을 살펴 현대문학에서 드러나는 온달 설화 변용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기존의 온달 설화연구는 문헌과 구비 설화 중 어느 한 쪽만을 살펴면서 서사구조나 모티브의 분석에 치중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룬다. 그리고 문헌과 구비 양쪽을 다 살핀다 하더라도 문헌설화와 비교되는 구비설화로 ‘온달’이 거론된 설화만을 살피거나 ‘온달형 설화’<sup>2)</sup>만을 살펴 구비설화의 전승양상이 전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II장에서 문헌과 구비에 전승되는 온달설화를 두루 살펴 전승양상과 전승주체에 따라 주제와 서사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설화는 <온달전><sup>3)</sup>을 원 텍스트로 삼아 조선시대의 문헌기록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명심보감』에 기록된 온달설화와 함께 비교한다. 구비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온달’이름이 거론된 설화와 아울러 ‘바보 온달형 설화’로 분류되는 설화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문헌설화와 구비설화간 주제의 차이와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온달설화는 문헌설화와 구비설화가 달리 전승되는 양상을 보인다. 문헌설화는 한문이라는 표기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사대부층의 의식을 담아 전승되고 구비설화는 적층 문학으로 민중의 의식을 담아 전승된다. 이런 적층적 전승 때문에 <온달전>은 비슷한 서사유형을 가진 <내 복에 산다> 설화 혹은

---

2) 온달형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구분지은 명칭을 의미한다.

3) 삼국사기에 전하는 온달설화를 이후 통칭 <온달전>으로 부른다.

은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의 유형4)에 포함되어 연구되는 경향이 강했다. 또 구비설화에서도 충북 단양지역 일대에서는 온달설화의 부분적 화소만 포함된 채 지역설화, 사물설화 등으로 변형되기도 했다.

Ⅲ장에서는 온달설화가 고전으로만 머물지 않고 문학에서 현대사회를 반영하면서 변용된 작품을 살피는 장으로 마련한다. 대상 텍스트들은 온달설화가 직·간접적으로 수용된 작품 중 서사구조의 비교가 가능한 장르인 소설과 희곡으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작품의 분석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설화의 서사구조와 비교한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으로 설화의 내용들이 후대 문학에서 어떻게 상징적으로 활용되고 어떤 주제의식을 지니고 창작되었는지 파악한다. 그리고 온달설화를 수용한 현대작품만의 독창성에도 주목하여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작업은 기존에 온달설화 연구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은 작업으로써 의의를 지니며 온달설화의 이야기로서의 재미와 전승력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는 작업으로써 의미가 있다.

연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설화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열전 5」 <온달>5)을 기본텍스트로 『신증동국여지승람』 6)과 『명심보감』 7)을 함께 비교한다. 구비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온달’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등장하는 설화 4편, 최운식이 채록한 설화 2편을 1차 비교 설화로 삼는다. 그리고 2차적으로 <찾아온 아내 덕에 출세하기(바보온달형)> 설화로 분류되어 있는 20편중에서 온달설화와 유사한 서사단락을 가진 설화 2편을 선정하여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2

---

4)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와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는 대상작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설화를 설화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지칭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유형의 설화를 <내 복에 산다> 형 설화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5) 김부식 저, 이재호 역, 『삼국사기』, 서울 출판사, 2002.

6) 이행 외, 『신증 동국여지승람 6』, 민족문화추진회 편, 서울 출판사, 1996.

7) 이기석 역, 『명심보감』, 흥신문화사, 1997.

편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온달설화는 715-2 <찾아온 아내 덕에 출세하기(바보 온달형)>로 총 20편이 분류되어있다. 각 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715-2 < 찾아온 아내 덕에 출세하기 (바보 온달형) >**

번호	권	호	쪽	제목	지역
1	1	3	201	술장수 효자이야기	경기
2	1	7	314	바보 온달	경기
3	2	2	458	윤동아 출세 이야기	강원
4	3	1	322	어진 아내	충북
5	4	6	666	술 장수의 행운	충남
6	5	1	513	복많은 며느리	전북
7	6	3	541	명필 김생의 십년 공부	전남
8	6	4	23	부인 복으로 출세한 사람	전남
9	6	8	492	내 짝은 내가 찾을라요	전남
10	6	10	519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전남
11	6	11	151	이도령과 낭자(2/2)	전남
12	6	12	598	술굽는 총각의 행운	전남
13	7	1	578	송장군 이야기	경북
14	7	5	46	시집 부자 만든 새댁	경북
15	7	5	509	복 실고 간 당세기	경북
16	7	10	389	마누라 덕에 좌수 벼슬	경북
17	7	14	486	이름 덕에 대감된 거지	경북
18	8	5	282	적선하여 잘 산 이야기	경남
19	8	5	861	홍정승 딸과 고돌	경남
20	8	6	46	하늘에서 출타고 내려온 처녀	경남

본고는 온달설화의 핵심화소로 1.부친과 신랑감을 두고 갈등하기(부친과의 갈등)<sup>8)</sup> 2.여주인공의 집나오기(여성의 축출) 3.여성의 내조(후원) 4.남성의 출세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기준은 『삼국사기』 <온달전>의 서사단락을 바탕으로 온달설화의 핵심화소를 정한 것이다. 위 20편에 네 가지 핵심화소를 대입하여 그 출입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핵심화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부친과의 갈등	○	○	×	×	×	×	×	×	○	○	×	×	○	×	×	×	×	×	×	×
여성의 축출	○	○	×	×	×	○	×	×	×	○	○	×	○	×	×	×	○	×	×	×
여성의 내조	○	○	○	○	○	○	△	○	○	○	○	○	○	○	○	○	○	○	○	○
남성의 출세	○	○	○	○	×	×	○	○	○	○	○	○	○	×	×	○	×	○	○	×

위 핵심화소의 출입양상을 살펴보면 온달 이름으로 전승되는 구비물인 2번과 10번을 제외하고 네 가지 핵심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는 1번과 13번의 <숫장수 효자 이야기> 와 <송장군 이야기>뿐임을 알 수 있다. 두 이야기는 비록 온달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온달전>의 핵심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온달전>의 서사단락과 비교하는 구비설화의 한 각편으로 논의를 진행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온달전>과 온달 이름으로 전승되는 구비설화와 함께 이 두 편의 구비설화를 함께 논의에 포함시킨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전하는 <바보온달형> 설화가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와 구별되는 점은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의 핵심화소인 아버지와 딸 사이의 복에 관한 문답이 없고 대신 남성의 출세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sup>9)</sup>

본 논문에서는 <온달전>,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명심보감』에 기록된 온달설화, 구비설화 7편<sup>10)</sup>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온달설화와 비교 분석될 현대문학 작품은 총 4편으로 최인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sup>11)</sup>, 최은옥의 <평강의 푸른 피리><sup>12)</sup>, 조령출의 <온달전><sup>13)</sup>, 김지원의 <편강 공주와 바보 언달 이야기><sup>14)</sup>를 대상으로 삼는다.

현대작품의 연구는 서사구조를 <온달전>과 비교하여 그 같고 다름을 살펴보고 그 다름을 통해 작가가 의도한 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내용적으로

8) 여기서의 갈등은 서사 문맥상 표면적으로 남편감의 문제가 갈등의 축을 이룬다.

9) <내 복에 산다> 형설화의 핵심화소 중 하나는 부친과 막내딸의 복문답에 있다. 복문답은 ‘누구덕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질문과 ‘자기 복에 산다’는 딸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딸의 대답에 분노한 아버지가 딸의 내쫓는 것이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의 유형이다. 온달 설화에서는 이런 복에 관한 문답이 없다.

10) 위에서 언급한 것은 총 8편이지만 최은식 조사 설화 1편과 구비설화 1편이 동일유형으로 따로 항을 마련할 필요가 없기에 7편이 된다. 왜냐하면 최은식 조사 설화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11)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최인훈 전집 10권 「옛날 옛적에 휘어어 휘어어」, 문학과 지성사, 1979. p.p.7-75.

12) 최은옥, <평강의 푸른 피리>, 「옥랑회곡상 수상작품집 제 3회, 4회」, 옥랑문화재단, 2002. p.p.134-201.

13) 조령출, <온달전>, 문예출판사:평양, 1984.

14) 김지원. <편강 공주와 바보 언달 이야기>, 「정통한국문학대계」 60권, 1985.

<온달전>을 전승한 부분과 새롭게 창작된 부분을 구별하여 살펴 이를 통해 나타난 시대의식을 추출한다.

온달설화의 현대적 재구성에 대한 탐색은 현대작품 속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어온 온달이야기 역시 현대적 설화의 한 유형일 수 있다는 것. 어떤 이야기의 변용과 전승은 현대의 문학가의 탁월한 문학적 자질에 의해 더 훌륭하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 이야기가 지닌 문학적 힘이 그 이야기를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로써 받아들이고 창작하고자하는 의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러한 작업을 통해 발견되어지기를 바란다.

## 2. 연구사

온달설화의 연구관점은 설화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으로 나뉜다.

설화적 관점의 연구는 문헌설화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 구비설화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 문헌과 구비를 함께 연구하는 방법으로 세분할 수 있다. 구비설화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은 주로 온달설화를 구전되는 내복에 산다 설화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다.

김대숙은 구전설화인 쫓겨난 여인 발복 설화와 서동설화, 온달설화를 같은 유형의 설화로 분석한다. 그는 온달설화가 아버지에게 쫓겨난 여인이 새로 인연을 맺게 된 상대방 남자에게 복을 가져다준다는 뜻으로서의 여인 발복의 이야기 구조 안에 있는 <숫구이총각의 생금장>, <내 복에 산다> 및 <삼국유사>소재의 백제 무왕 설화, 삼공본풀이 등과 동일 유형구조 안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역사적 해석을 수용하여 온달 기록이 기존에 전해오던 설화의 착실한 유형적 전례 안에 있는 설화인 동시에 역사적 우의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온달이 그 당시 통혼권 안에 있는 중앙귀족에는 끼이지 못하는 토착 집단 출신으로 외적과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워 부상한 인물로써 이 설화가 토착세력과의 연계를 필요로 하던 당시 고구려의 국가 체제 위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세력 집단을 대표하는 남

녀가 결합하는 역사적 사실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본다.<sup>15)</sup>

최운식은 쫓겨난 여인 발복 설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sup>16)</sup> 그는 온달설화를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 유형에 <무왕설화> · <감은장아기>와 함께 포함시켜 연구한다. 그리고 그는 문헌설화와 구비설화로 전하는 온달설화의 서사구조 연구를 통하여 문헌과 구비설화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고 있다.

임재해는 <온달전>이 갈등 구조상 세 딸을 둔 아버지와 자기 복에 먹고 산다고 대답하여 쫓겨나는 셋째 딸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숲구이 총각을 만나 자기 복으로 부를 쌓는 민담의 부녀 갈등 구조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온달형 설화와 무왕형 설화의 비교분석으로 통해 두 설화가 화소적인 동질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두 설화 사이에 존재하는 자아와 세계의 대립관계,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발견되는 주제의식의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sup>17)</sup>

그러나 위와 같이 <온달전>을 쫓겨난 여인 발복유형의 틀에 포함시켜 연구하는 것은 서사의 주제의식을 제외시키고 단지 서사전개와 모티브에만 국한된 연구라 할 수 있다.

성기열은 구전설화 ‘숲구이 총각과 생금장’과 문헌설화의 온달설화, 무왕설화 등의 자료를 같은 계열의 이야기로 파악하고 한국의 온달, 무왕계 설화와 일본의 설화의 비교를 통해 둘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sup>18)</sup>

김연숙은 평강과 도미처, 설씨녀를 열녀로 본다. 그는 각 인물을 통해 열사상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전승되었는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둔다.<sup>19)</sup>

---

15) 김대숙, <온달전의 구비문학적 이해>,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p.p.141-161  
\_\_\_\_\_, <평강·선화 전승의 신화적 성격>, 평택대학교 논문집 8, 1996.

16) 최운식,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고>, 한국민속학 6권, 1973.01.

17) 임재해, <온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갈등>, 여성문제 연구 제11 집, 1982.

18) 성기열, <한·일 설화 비교연구의 일례>, 한국구비전승의 연구, 일조각, 1981.

19) 김연숙, <삼국사기 소재설화 연구: 온달, 도미처, 설씨녀 설화에 나타난 열 사상>, 서강어문 10, 서강

민궁기는 온달설화를 전기 시대에 생성된 본격적 전기로 본다. 전기 문학은 신화가 형성시킨 장르적 관습을 변이 수용한 장르로써 이는 후대의 고소설로 변이·전승되었다. 그는 <온달전>에 수용된 신화의 장르적 관습의 변이와 전승형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설화의 생성적 의미를 규명하려 한다. 온달설화에서 수렵담은 신화 주인공의 입사식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입사식을 기점으로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 기점을 중심으로 앞부분은 신화에서 주인공이 천지창조를 되풀이하여 세계의 질서를 인식하는 부분에 해당된다. 그는 <온달전>의 뒷부분은 신화에서 주인공이 인식한 세계의 질서를 지니고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았다.<sup>20)</sup>

온달설화가 지역전설로 정착되어 온달문화축제 등으로 발전되는 충북지역에서의 온달설화를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창식은 온달이라는 인물형이 충청도 단양지역에서 전승되는 양상과 범위를 논하고 있다. 현대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온달지역 문화축제등을 통해 온달설화로 전하는 구비자료와 기록 자료에서 서로 다르게 전승되는 온달과 평강의 모습을 통해 구비물과 기록물의 차이를 논하였다.<sup>21)</sup>

임동철<sup>22)</sup>은 충북 북부지역에 전승되는 온달설화를 분석하였다. 그는 역사적 산물로써 설화를 보는 입장에 속한다. 그의 논문은 충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전설화되어 전승되는 온달설화를 제시하여 분석한다.

김현길<sup>23)</sup>은 온달산성의 위치를 충북 단양의 영춘지역으로 단정한다. 그리고 이런 단정의 근거로 그 지역에 전승되는 온달설화와 역사·지리적 사료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

어문학회, 1994.

20) 민궁기, <온달설화의 생성적 의미에 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6. 1993.

21) 이창식, <온달전승의 구비성과 기록성>, 고전문학연구 14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_\_\_\_\_, <온달축제에 대하여>, 아시아지역의 축제, 국제 아시아 민속학회, 1997.

22) 임동철, <충북 북부지역의 설화고 I>, 충북대논문집 제27집, 1984.  
 \_\_\_\_\_, <온달전설의 분포와 전승>,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p.p.57-75

23) 김현길, <온달-아단성과 아차성에 관한 연구>,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p.p.31-53

역사적 관점은 온달설화를 역사 사료로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 온달설화가 傳양식으로 서술되었기에 역사와 설화의 양면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연구가 전개된다.

이기백의 온달설화 연구는 온달설화를 전후반으로 나누어 설화와 사실로 구분지어 온달설화를 연구하였다. 그는 고구려의 귀족사회를 규제하고 있던 계층질서가 통혼권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온달설화라고 해석하였다. 그는 온달이 바보로 표현된 것은 그가 고구려 귀족사회의 통혼권 밖에 있는 존재여서 주변 귀족들의 시기심에 따른 신분적인 문제가 인격적인 문제로 변화되어 전해진 것으로 이해하였다.<sup>24)</sup> 그 뒤에 이은 역사적 시각으로 온달을 이해하려는 연구자들의 시각은 이기백의 논지에서 별반 벗어나지 않았다.

김창룡<sup>25)</sup>은 온달설화가 비록 발복설화유형의 틀 안에 존재하더라도 온달이 엄연히 정사의 기록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가공의 인물로 보는 시각은 잘못이라고 본다. 즉, 온달이라는 실존 인물의 행적을 바탕으로 설화적 형상화의 가미가 이루어진 이야기로 온달설화를 파악해야 하며 설화로 형성되기 이전의 사실적 언어의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진재교<sup>26)</sup>는 온달설화를 파악할 때 설화나 역사 어느 한쪽으로의 편중은 올바른 접근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온달설화가 사기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사적 자료에 입각해 입전되었을 것이며 설화적 요소는 편찬자가 참조한 원자료의 영향관계에 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온달설화의 문학사적인 위상을 전기적인 색채가 강한 전(傳)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존의 연구에서 설화적 관점은 <온달전>을 단순히 내 복에 산다 유형의 설화 내에서 모티프나 상징성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연구방법의 결함은 부분적 화소나 서사단락에의 집중이 <온달전>의

---

24) 이기백, <온달전의 검토>, 백산학보 3집, 백산학회, 1967.

25) 김창룡, <고구려문학 2-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26) 진재교, <삼국사기 열전 분석의 한 시각>, 한국한문학연구 특집호, 한국한문학회, 1996.

전체적 서사에 대한 주목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연구의 대부분이 공주와 온달의 결연과정까지인 전반부에 치중되었다. 역사적 관점은 <온달전>을 정치적·사회적인 체제 내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6세기 고구려의 정치현실에 대한 구체성의 미비로 그 생성적 의미를 제대로 밝힐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화적 관점에서 <온달전>의 전체적 서사단락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아울러 <온달전>이 그 근간이 민간에 전승되던 설화에 있음을 주목하였다. 그래서 <온달전> 외에도 문헌과 구비로 전승되는 온달 설화를 함께 비교·연구함으로써 문헌과 구비설화가 그 서사와 주제의식이 서로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설화의 전승력이라는 측면에서 현대문학 작품에서 변용되어 재창작되고 있는 온달설화의 현재의 모습을 살피고자 한다.

## II. 문헌설화와 구비설화의 전승양상과 주제의식

### 1.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온달전>의 특징과 그 의미

#### 1) 『삼국사기』 「열전」의 서술적 특징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23년(1145)에 왕명으로 김부식 등이 편찬한 책으로 이보다 앞서 고려 초에 편찬되었던 『구삼국사』<sup>27)</sup> 등의 사료와 중국 측 사서 등을 참조하여 유교적 가치관의 보급이라는 효용론적 문학관에 의해 집필된 正史이다. 『삼국사기』의 편찬 의도는 안으로는 사회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과 밖으로는 투철한 국가의식을 강조함으로써 후세에 권계를 주고자 한 것이다.

『삼국사기』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뉜다. 신채호를 위시한 삼국사기부정론자들의 견해는 『삼국사기』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로 점철된 작품이며 신라에 대해서만 편파적인 입장을 취한 기록이라도 주장한다. 그러나 삼국사기가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의 형식을 빌려오되 삼국을 중국에 비견하는 독립된 국가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사대적이라는 평가는 부적절하다. 또 신라시대에 대한 기록이 많은 이유는 통일국가를 수립한 것이 신라이기에 관련 기록이 가장 풍부히 남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대적 시대상황이나 당시의 유교적 가치관의 획일적인 의식 속에서도 삼국의 발견에 대한 노력은 역사기록 뿐 아니라 언어, 풍속, 전통 등의 기록과 보전에 한 역할을 했다는 긍정성을 지닌다. 『삼국사기』에서 문학적 텍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사기의 열전에 실린 인물들의 전기에 해당된다. 열전은 실제로 활동했던 인물들의 전기이며 이것은 사마천의 『사

---

27) 『구삼국사』는 현재 전하지 않고, 문헌상에서만 언급되는 문헌이며, 『삼국사기』 집필 이전에는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의 열전형태를 그대로 잇는 방식이다. 열전은 기전체의 말미를 장식하는 개인전기이다. 따라서 저자의 주관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아울러 나타난다.

사마천의 『사기』의 열전의 방대한 양에 비해 『삼국사기』 열전에 소개된 인물은 50명 정도로 군왕을 제외한 역사적 인물들에 관련한 이야기이다. 등장하는 인물은 서민에서부터 충신, 학자, 예술가들로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기전체의 사서에서 열전은 그 다루는 비중이 60% 정도로 매우 높아 기전체의 핵심을 이룬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중국측 사서들과는 전혀 다르게 열전의 비중이 20% 정도로 그리 높지 않다. 게다가 일정한 배열원칙이나 기준도 막연하다. 즉 당서(唐書)를 모방하면서도 그 체제는 전혀 그 양상을 달리한다.

	사서	총권 수	전의 수	비중(%)
한국	삼국사기	50	10	20
	고려사	139	59	35.9
	<b>평균</b>			<b>27.9</b>
중국	사기	130	100	76.9
	한서	120	79	65.8
	후한서	130	88	67.7
	송서	100	60	60
	남제서	59	40	67.8
	위서	130	96	73.8
	진서	94	64	68.1
	수서	85	50	58.8
	구당서	204	150	73.5
	신당서	236	150	63.6
	송사	496	255	51.4
	요사	116	45	38.8
	금사	135	73	54.1
	원사	210	97	46.2
		<b>평균</b>		

번호	입전자	권수
1	김유신	권 41
2	을지문덕	권 44
3	거칠부	
4	거도	
5	이사부	
6	김인문	
7	흑치상지	권 45
8	장보고	
9	사다함	
10	밀우	
11	명림답부	권 47
12	귀산	
13	온달	
14	혜론	
15	소나	
16	취도	
17	눌최	
18	실계두	
19	김영윤	
20	관창	
21	김흠운	
22	열기	
23	비녕자	
24	죽죽	
25	필부	
26	계백	

열전은 총 10권으로 중국과 달리 왕후, 종실, 공주 등의 열전은 두지 않고 있다. 열전 10권에서도 김유신에게 3권을 할애하고 나머지 7권에 49명의 개인전을 나누어 실고 있다.<sup>29)</sup> 김유신을 크게 부각시킨 형태는 김부식이 김유신을 이상적 인물상으로 내세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편찬에서 김부식이 의도한 것은 국가를 위한 충의의 강조이다. 이는 열전 입전 49명 중 26명을 무인으로 구성했다<sup>30)</sup>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열전은 구석구석에서 강렬한 국가 의식과 유교 도덕의 준수를 제창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불인자(不仁者)나 학민자(虐民者)의 필연적 멸망을 지적하였음은 특기할 일이다. 이는 49명 중 21명이 멸사봉공(滅私奉公)이나 위국충절(爲國忠節)을 위해 열국한 사람의 전기라는 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삼국사기』 열전은 주로 위국충절 중심으로 한 인물을 크게 앞세워 난세를 극복하려는 정신적 교훈을 강조하고 있다. 삼국사기 열전에 실린 고구려의 인물은 총 8명이다.<sup>31)</sup> 이 중 창조리와 연개소문은 반신으로 소개되고 나머지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친 신하에 대한 기록이다. 나라에 충성된 신하들에 의해 구해지는 고구려와 충성된 신하가 죽어간 고구려 그리고 결국 반신의 득세로 멸망하게 된 고구려의 모습을 통해 충성된 신하를 잃음이 곧 국가의 패망으로 치닫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김부식은 충성된 신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주인공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비극적 서술이다. 입전된 인물 중 행복한 삶을 영위한 인물들도 있지만 개인적 자질에도 불구하고 운명적 비극을 감수하고 최후를 맞이하거나 시대적 환경에 의해 좌절하고 소외되는 인간상들이 열전에는 더욱 많이 등장하고 있다.<sup>32)</sup> 이런 구성은 열전이

28) 이정진, <삼국사기 열전의 구성과 서술적 특질>, 한국언어문학 제 30호, 1992.1. p.213.

29) 동시입전자들까지 포함하면 59명이 되지만 삼국사기 열전의 목록상으로는 49명이므로 49명의 개인전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30) 위의 논문, p.p. 215-218 참조.

31) 을지문덕, 을파소, 밀우와 유우, 명림답부, 온달, 창조리, 연개소문이 해당 인물이다.

32) 앞의 책, p.222.

비록 충효라는 윤리적 가치의 양양이라는 뚜렷한 찬술의도를 지니고 있음에도 그 미적 범주에서 비극적 숭고미를 바탕으로 함을 의미한다. 이런 비극적 서사는 「열전」의 이야기들이 문학적으로 변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문학이 희극에서보다 패배와 고통을 감내하고 좌절하는 비극적 서사를 통해 더 큰 카타르시스를 제공해왔다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문학의 기능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런 점에서 『삼국사기』 「열전」의 문학성은 논의의 가치를 지닌다.

<온달전><sup>33)</sup>은 「열전」에 입전된 기록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꼽혀왔다. <온달전>은 설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두 남녀간의 결연담이 현실적인 면에서 벗어난 허구성을 보인다. 그리고 공주와의 결합 이후 일정한 통과의례를 거쳐 입신양명하는 전체적 과정은 고진감래와 착한 일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당대인의 세계관이 나타나 있다. 또한 동시에 피지배계층의 신분상승에 대한 염원이 신데렐라적 모티프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온달의 비극적이고 장렬한 전사와 판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기이한 행적은 민간전승의 설화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전승의 설화적 요소의 삽입은 김부식의 엄격한 유교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무속적 세계관과 비극적 숭고미를 전달하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설화 속 온달의 신분 상승과정은 당시 고구려 신분제도의 엄격함과 그 신분의 엄격함 가운데에서도 낮은 신분이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를 보여준다. 김부식은 <온달전>을 통해 고구려의 대외적 상황, 쇠퇴를 시작한 고구려의 모습 그리고 충신 온달의 행동을 통해 충성된 신하를 잃은 고구려의 멸망을 역사적 우의로 풀어내고 있다.

이처럼 <온달전>은 역사적 기록이라는 특성과 민간에서 전승되던 민담의 수용이라는 측면을 수용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 측면 때문에 <온달전> 연구는 김부식의 입전의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그리고 더불어 <온달전>이 본래 민간에 전승되던 실제 인물인 온달에 관련된 이야기와

33) 여기서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온달설화를 <온달전>으로 칭한다. (김부식 저, 이재호 역, 삼국사기 3, 서울 출판사, 2002. p.p. 383-387)

<내 복에 산다> 형 설화를 수용하여 첨삭·편집하여 창작된 전(傳)이므로 그 설화적 특성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온달설화의 서사단락을 살피고 구비 기록물에서 전해지는 온달 설화와의 비교를 통해 전승양상과 주제의식을 살펴본다.

## 2) <온달전>의 서사단락

<온달전>은 『삼국사기』 제 45권 「열전」 제 5 온달 조에 수록되어있는 이야기이다. <온달전>에서의 온달은 나라에 충성하는 충신의 모습이 부각되어 기록되었다. 이는 『삼국사기』에서 온달조가 실린 열전 5에 실린 인물이 을파소, 김우직, 박제상 등 모두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온달전>의 기록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고구려의 장수 온달이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에서 왕의 사위로 인정받고 권세를 얻는 행복한 결말로 끝내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 부분에서 끝냄으로써 그 비극적 삶을 통해 충성심과 상무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기록이다. 당시 고려는 묘청의 난과 이자겸의 난 등 큰 반란이 진압되고 문벌귀족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 전범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가치를 다지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요구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온달전>은 국민의 일치단결과 신하들의 충절을 고취하기 위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였을 것이다.<sup>34)</sup>

<온달전>은 한낱 평민인 온달이 부마에 올라 무장으로 이름을 떨쳤고 그 과정에서 평강공주의 활약상이 나타나는 전기계 설화<sup>35)</sup>로 평가된다. 김부식은 당시 전승되오던 온달설화를 채록, 수집하여 나름의 서술의도에 맞게 이야기를 인위적으로 배열시켜 기록하였다. 김부식이 <온달전>을 입전한 의도

34) 윤경수, <‘온달전’의 현대성 의미분석과 후세문학에의 수용양상>, 외대논총 제 12집, 1994, p.249.

35) 진재교, <삼국사기 열전 분석의 한 시각>, 한국한문학회연구 특집호, 한국한문학회, 1996, p.331

는 분명하다. 온달과 같은 충성된 신하의 죽음과 고구려의 멸망을 연결시켜 국가에 대한 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온달전>의 내용을 서사단락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 사람이다
2. 온달은 얼굴이 멍청하게 생겨서 남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나 속마음만은 순박하였다.
3. 온달은 집이 몹시 가난하여, 남루한 차림으로 왕래하며 밥을 빌어 어머니를 봉양했다.
4.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니 왕이 희롱하여 말하기를 온달에게 시집보내다 하였다.
5. 딸이 열여섯 살이 되어 상부 고씨에게 시집보내려 하자 공주가 왕의 희언을 비난하니 왕이 노하여 공주를 내보냈다.
6. 공주는 귀한 금가락지 수십 개를 팔꿈치에 매달고 궁궐에서 홀로 나오다.
7. 공주가 온달 집을 찾아가 온달 모자를 설득하여 함께 살게 되다.
8. 공주는 금가락지를 팔아 소용되는 것들을 모두 갖추다.
9. 공주가 온달에게 국마로써 병들어 내버린 것을 사오도록 시켜 온달이 그렇게 하다.
10. 공주가 말을 정성껏 기르니 날고 살찌고 건장했다.
11. 봄 3월 3일 항상 있는 낙랑 언덕의 사냥에 온달이 나아가니 그의 뛰어남에 왕이 온달을 불러 성명을 묻다.
12. 후주의 무제가 쳐들어와 왕이 배산에서 이를 맞아 싸울 때 온달이 크게 활약하여 전쟁을 이기다.
13. 왕이 온달을 사위로 인정하여 예로 맞아 대형(大兄)의 벼슬을 삼고 총애하니 온달의 위세와 권력이 날로 성해지다.
14. 양강왕이 왕위에 오르다.
15. 온달이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북쪽 땅을 되찾는 출정을 청하니, 왕이 허락하다.
16. 아단성에서 신라군과 싸우다 화살에 맞아 중로에서 죽다.
17. 장사를 지내려하니 영구가 움직이지 않아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달래

니 관이 움직여 장사지내다.

18.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다.<sup>36)</sup>

위의 이야기에서 온달은 평강왕 때 사람으로 기록되었는데 평강왕은 고구려 제 25대 평원왕의 다른 호칭이니 평강왕은 평원왕과 같은 인물로 볼 수 있다. 이야기에서 평강왕 이후에 즉위하는 것으로 거론된 양강왕은 24대 양원왕의 다른 이름인데 양원왕은 평강왕의 부왕이므로 열전의 기록은 26대 영양왕의 오기로 추측된다.<sup>37)</sup> 실제로 26대 영양왕의 사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재위기간 중 신라와 산성을 두고 치러진 싸움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sup>38)</sup> 이야기의 서사단락은 각 단락의 주동인물을 중심으로 6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다.

36) 앞의 책, 『삼국사기』 「온달」의 원문을 정리한 것이다.

溫達 高句麗平岡王時人也. 容貌龍鐘可笑 中心則曉然 家甚貧 常乞食以養母. 破衫弊履 往來於市井間 時人目之爲愚溫達 平岡王少女兒好啼 王戲曰 汝常啼聒我耳 長必不得爲士大夫妻 當歸之愚溫達 王每言之及女年二八 欲下嫁於上部高氏 公主對曰 大王常語 汝必爲溫達之婦 今何故改前言乎 匹夫猶不欲食言 況至尊乎 故曰 王者無戲言 今大王之命謬矣 妾不敢祇承 王怒曰 汝不從我教 則固不得爲吾女也 安用同居? 宜從汝所適矣 於是 公主以寶釧數十枚繫肘後 出宮獨行 路遇一人 問溫達之家 乃行至其家 見盲老母 近前拜 問其子所在 老母對曰 吾子貧且陋 非貴人之所可近 今聞子之臭 芬馥異常 接子之手 柔滑如綿 必天下之貴人也 因誰之俯 以至於此乎 惟我息 不忍饑 取榆皮於山林 久而未還 公主出行 至山下 見溫達負榆皮而來 公主與之言懷 溫達悖然曰 此非幼女子所宜行 必非人也 狐鬼也 勿迫我也 遂行不顧 公主獨歸 宿柴門下 明朝更入 與母子備言之 溫達依違未決 其母曰 吾息至陋 不足爲貴人匹 吾家至窶 固不宜貴人居 公主對曰 古人言 一斗粟猶可春 一尺布猶可縫 則苟爲同心 何必富貴然後 可共乎 乃賣金釧 買得田宅 奴婢牛馬 器物 資用完具 初買馬 公主語溫達曰 慎勿買市人馬 須擇國馬 病瘦而見放者 而後換之 溫達如其言 公主養飼甚勤 馬日肥且壯 高句麗常以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以所獲猪鹿 祭天及山川神 至其日 王出獵 群臣及五部兵士皆從 於是 溫達以所養之馬隨行 其馳騁常在前 所獲亦多 他無若者 王召來 問姓名 驚且異之 時 後周武帝出師伐遼東 王領軍逆戰於隄山之野 溫達爲先鋒 疾鬪斬數十餘級 諸軍乘勝奮擊大克 及論功 無不以溫達爲第一 王嘉歎之曰 是吾女婿也 備禮迎之 賜爵爲大兄 由此寵榮尤渥 威權日盛 及嬰陽王卽位 溫達奏曰 惟新羅 割我漢北 割我漢北之地 爲郡縣 百姓痛恨 未嘗忘父母之國 願大王不以 愚不肖授之以兵 一往必還吾地 王許焉 臨行誓曰 鷄立峴 竹嶺已西 不歸於我 則不返也 遂行與羅軍戰於阿旦城之下 爲流矢所中 踣而死 欲葬 柩不肯動 公主來撫棺曰 死生決矣 於乎歸矣 遂舉而窆 大王聞之悲慟

37) 최운식, <「온달설화」의 전승양상>, 청람어문학 20, 1998.1, p.61.

38) 위의 책, 삼국사기 2. 삼국사기 제 20권 고구려본기 제 8 영양왕조, p. 187. (14년(603)에 왕은 장군 고승을 보내어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하게 했는데, 신라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한수를 건너왔고 성안에서는 북을 치며 함성을 질러 서로 응했다. 고승은 신라는 군사가 많고 우리는 군사가 적으므로 두려워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

- ① 온달 소개(1~3)
- ② 부왕과 공주의 갈등과 공주의 출궁(4~6)
- ③ 공주와 온달의 결연 (7)
- ④ 공주의 능력과 내조(8~10)
- ⑤ 온달의 성공(11~13)
- ⑥ 온달의 전사(14~18)

<온달전>은 이야기 전개상 두 축을 보여주는데 전반부는 온달과 평강공주의 결연담으로 후반부는 온달과 공주의 결연 이후 온달이 영웅이 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sup>39)</sup> 단락에서 보면 ①-③을 전반부로 ④-⑥을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이야기는 각각 민담의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의 반영과 온달이 명장이 되는 과정을 통한 애국심과 여성의 절조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온달전>의 두 가지 속성인 민중적 성격과 유교적 가치관의 내포를 보여준다. 그리고 온달의 전사(戰死)라는 비극적 결말은 민중적 영웅의 면모를 지닌 온달의 죽음을 통해 전설적 죽음을 완성한다.

이러한 <온달전>의 서사구조의 특성 때문에 일부의 설화연구자들은 온달 설화를 전·후반으로 나누어 앞을 설화적 이야기로 뒤의 이야기를 역사적 기록으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관점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텍스트연구에 있어 일관적 입장을 견지하는데 모순을 빚게 한다. 하나의 이야기가 전·후반이 전혀 다른 성격의 기록으로 양분된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려운 일이다. 후반의 기록이 역사적이라는 주장에 있어 ‘움직이지 않는 관’의 이야기는 미해결의 요소이다. 이러한 모티프는 민간에 전승되어오던 이야기에서도 그 소재를 찾을 수 있기에 후반부 역시 설화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서사구조를 전·후반으로 나누어 바라보는 것은 필연적으로 <온달전>을 연구함에 있어서 전·후반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연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전반부

39) 이창식, <온달전승의 구비성과 기록성>, 고전문학연구 14, 한국고전문학회, 1998.

는 설화적 관점에서 후반부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는 논리적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 이런 관점은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내 복에 산다’ 형 혹은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 형의 존재에 <온달전>을 편입시켜 전반부의 이야기에만 집중 포커스를 맞추고 후반부를 문학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물론 역사적 관점에서는 후반부 내용에 대해 김부식의 충성심의 고양 혹은 강조라는 맥락으로 이해하거나 역사적으로 당시 6세기 고구려의 대외적 전쟁과 다툼의 상황의 반영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이해한다.

두 관점은 각각 타당성 있는 논지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온달전>의 서사적 총체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게 된다. 오히려 각각의 관점에 근거한 연구는 <온달전> 자체의 서사적 총체성에 대한 적극적 탐색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본 논문은 일정한 관점에 치우쳐 <온달전>의 부분만을 강조하는 연구를 탈피하여 그 전체 구성과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것은 분명 부정확하고 미약한 고구려의 시대상이나 문학사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벽찬 일이 분명하다. 게다가 실제 역사적 인물의 기록이라는 <온달전>의 전체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달전>을 설화로 본다면 그 이야기 자체의 주제의식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본 논문은 <온달전>을 설화적 입장에서 연구하되 그 연구를 작은 화소나 모티브에 대한 연구 혹은 설화 유형의 한 갈래로 귀속시키는 연구가 아니라 그것을 창작한 작가의 의도가 담긴 함께 기록된 다른 열전기록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그 전체적 주제의식을 포착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을 둔다.

<온달전>의 서사체계는 크게 골격을 이루는 전체적 구조와 더불어 작은 화소 하나 하나가 전체 이야기와 분리되어 민담으로 전승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온달전><sup>40)</sup>의 서사를 지닌 것과 부분의 확대로 이어지는 민담의 이야기를 모두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온달전>의 전체 서사구조를

---

40) 삼국사기에 기록된 작품으로, 구비물의 유동성과 적층성에서 벗어났기에 고정적이라고 하였다.

살핀 후 다음 장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온달전>은 주동 인물을 온달로 보면 전형적인 영웅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군이나 주몽과 같은 건국신화의 영웅이야기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비범한 출생, 비범한 능력, 고난, 고난 극복, 성공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온달의 경우 미천한 출생과 비극적 결말이라는 차이를 지닌다. 이러한 건국신화의 주인공과의 차이점은 온달을 신화적 영웅이 아닌 역사적 영웅이며 전설적 영웅으로 규정시키는 원인이 된다.<sup>41)</sup> 그러나 <온달전>은 단순히 온달 1인의 전기로만 보기에 다소 무리한 감이 존재한다. 이는 이야기 자체의 동력이 ‘온달’이라는 인물에게보다는 평강공주에게 치우쳐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강공주와 비교했을 때 온달은 주동 인물의 자리에 위치시키기에 오히려 역부족한 기분마저 느끼게 한다. 이러한 이유는 <온달전>이 온달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그 이야기가 <내 복에 산다> 형 설화를 수용하여 각색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적 행동’이라는 화소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온달전>의 서사전개를 앞서 제시한 6개의 단락별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3) 서사단락의 핵심요소와 의미

#### ① 온달의 소개

<온달전>은 ‘온달의 소개’를 이야기의 시작으로 잡고 있다. 이 단락은 온달이라는 인물의 성격과 그 생활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으로 일반적 傳의 서사전략에 따른 전개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傳에서는 입전된 인물의 품성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전개시킨다. 개연성 있는 사건이나 일화가 함께 기록되기에 인물의 소개는 이야기가 포함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규정성이 강하게 내포되어있다. 이러한 점은 傳이 흔히 품성을 제시한 후 바로 다음에 삽화를 서술함으로써 제시된 품성을 삽화를 통해 확인

41) 아기장수 전설에 등장하는 아기장수와 같은 전설적 영웅은 대부분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온달은 전설적 영웅의 유형에 속한다 할 수 있다.

한다는 점에서 입증될 수 있다.<sup>42)</sup>

<온달전> 역시 서두에 온달의 인물됨과 생활상을 서술하고 있다. 서두에서 온달이라는 인물이 가난하고 구걸을 통해 생활하며 ‘겉모습이 멍청하여 웃음을 사지만 속마음만은 순박하였다’<sup>43)</sup> 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저자는 이를 통하여 그 인물의 진면과 그것을 감추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순박한 속마음’은 온달의 잠재된 능력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삶이 ‘남루한 차림’과 ‘구걸을 통한 어머니 봉양’<sup>44)</sup> 뿐 아니라 나무 껍질을 벗겨<sup>45)</sup> 먹어야 할 정도로 극빈했다는 사실과 결부되어 인물이 지닌 가능성과 그것을 발휘시키지 못할 정도로 인물을 억압하고 있는 가난을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온달의 가난은 일차적으로 온달을 억압하는 현실적 장애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온달이라는 인물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다. 『삼국사기』려 본기 평원왕조를 살펴보면 평원왕 때는 흉년과 재해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었음을 알 수 있다.<sup>46)</sup> 거듭된 흉년과 재해는 백성들의 삶을 빈궁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빈궁함이 너무나 커 왕조차 반찬거리를 줄임으로써 백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굶주림과 가난에 고통 받는 백성의 현실은 온달이라는 인물의 삶에 투영되어 민중적 영웅으로써의 온달의 성격을 형성시킨다. 이것이 ‘가난’이 <온달전>에서 지니는 두 번째 기능이다. 그리고 이러한 온달의 ‘가난과 빈곤함’으로 점철된 삶은 이후의 공주가 온달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내용과 연결되어 극적 카타르시스를 극대화시킨다.

42)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p.168~169.

43) 濶達 高句麗平岡王時人也. 容貌龍鐘可笑 中心則曉然 (『삼국사기』 권 제 45 열전 제5 온달)

44) 家甚貧 常乞食以養母 破衫弊履 往來於市井間, (삼국사기 권 제 45 열전 제 5 온달)

45) 惟我息 不忍饑, 取榆皮於山林 久而未還 (삼국사기 권 제 45 열전 제 5 온달)

46) 평강왕 3년(561) 6월에 큰 물이 졌다. 5년 여름에 크게 가물므로 왕은 평상시의 반찬 수를 감하고 산천에 기도하였다. 13년 8월에 궁전을 수리하다가 누리의 재해와 가뭄 피해가 있으므로 역사를 그만 두었다. 23년 가을 7월에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이 죽었다. 겨울 10월에 백성들이 굶주리므로 왕은 순행하여 이를 위무했다. (『삼국사기』 권 제 19 고구려본기 제 7 평원왕조)

평강공주의 금가락지는 단순한 금이 아니다. 그것은 온달을 억압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제거하는 수단이며 평강공주의 신화적 능력의 원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의 ③ 공주와 온달의 결연 단락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다. 온달의 소개 단락은 불과 몇 줄로 추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단락은 후반부의 온달의 능력 발휘와 연결되어 ‘마음만은’ 현실과 달랐다는 부분을 상기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 첫 번째 서사단락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서사단락은 <온달전>의 설화적 이야기 구조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온달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 서두에 이어 온달과 연결되는 인물인 평강에 대한 소개가 삽화처럼 연결되어 있다. 작품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이 두 번째 단락은 또 다른 주요인물에 대한 소개담이 동시에 서사전체의 동기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단락이다.

## ② 공주와 부왕의 갈등과 공주의 출궁

이 단락은 많은 설화 연구자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단락이다.<sup>47)</sup> 부왕이 어린 딸이 잘 울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희언을 하였던 일화는 성장한 공주의 반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온달’로 지칭되는 인물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이 인물은 앞서 소개된 1단락과 연계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멍청한 외모에 남루한 옷차림이지만 마음만은 순박한’ 효자 온달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온달전>의 서사의 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찬자의 의도를 꿰뚫고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과연 왕이 지칭한 온달이 앞서 소개된 그 온달인가.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온달이라는 인물을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

47) 김대숙, <온달전의 구비문학적 이해>,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1.

———, <평강선화전승의 신화적 성격>, 평택대학교 논문집 8, 1996.

김영만,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의 여성상징 연구>, 국어국문학 20,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임제해, <온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갈등>, 여성문제연구 제 11집, 효성여자대학교 부설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2.

진은진, 여성탐색담의 서사적 전통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02. 등이 그것이다.

다.

공주에 대한 왕의 희언은 어린 시절 우리 부모가 자녀 특히 여자아이에게 하는 ‘그렇게 하면 거지에게 시집보내겠다’ 라는 농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힐 수 있다. ‘온달’은 미천한 계급, 혹은 한 사회 내에서 터부시되는 계급에 속하는 인물이며 이것으로 ‘울기 잘하는’ 딸의 울음을 막았다는 것은 민담에서 울기 잘하는 아이를 ‘호랑이가 잡아 먹는다’라는 협박으로 막았다는 맥락과 함께 엮힌다.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는 ‘호랑이가 잡아 먹는다’라는 것과 동향을 이루는 관습적 대사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상층 계급의 여자아이에게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남성에게로의 시집은 어린 마음을 규제할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는 계급에 대한 인식이 철저한 사회였다. 평강공주와 부왕의 일화는 계급사회라는 사회체제에 대한 간접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왕의 말 ‘네가 늘 울기만 하여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크더라도 반드시 사대부의 아내는 될 수 없으므로 꼭 바보 온달에게로 시집을 보내야겠다.’를 통해 보더라도 그 희언에 담긴 협박의 근간이 신분이 낮은 계급으로의 보냄을 빌미로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온달’은 어떤 존재인가. 일단 왕의 대사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사대부’라는 계급은 지극히 유교적 지배개념에서 등장한 용어이다. 고구려 시대로 소급해본다면 왕이 말하는 사대부는 당시 고구려의 귀족 계급을 지칭한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왕의 대사에서 귀족 계급의 반대항에 존재하는 온달이라는 존재는 귀족계급 밖의 인물로 규정할 수 있다. 지배 계층도 아니요 귀족 계급에도 속하지 못한 온달은 아마도 당시 저자거리에서조차도 그 멍청한 외모와 남루한 옷차림과 더불어 구걸로 어머니를 모시는 행실로 유명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야 왕의 입에까지 오르내릴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달전>을 역사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온달을 한 인물의 고유명사인 성명(姓名)이 아니라 지배계급에 속하지 못한 제 3의 귀족 세력 혹은 계급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본다.<sup>48)</sup>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또

다른 입장은 당시 고구려에 속하지 못한 변방의 외부 세력 혹은 미천한 계급층으로 보기도 한다.<sup>49)</sup> 온달이라는 이름이 왕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들어 온달을 제 3의 신흥귀족세력으로 본다는 것은 비약적인 관점으로 여겨진다. 서사적 맥락 안에서만 따져본다면 온달의 이름이 궁에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은 ‘서동 설화’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서동이 시장 저자거리의 아이들을 회유해 선화공주를 모함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여 이것이 널리 불려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에서 미루어보듯이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어지던 ‘온달’의 이름이 왕의 귀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온달에게 시집가야 한다는 왕의 희언을 들으며 자라난 공주는 어느새 시집 갈 나이가 되었다. 왕은 자신의 공주를 당시의 주요 귀족계급이었던 상부(上部) 고씨에게 시집보내고자 하였다. 고려 태조왕권의 경우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왕들에게 있어 혼인정책은 왕권을 공고히 하는데 주요한 수단 중 하나였다. 더군다나 평강왕의 경우 재위기간 내내 왕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신진세력을 주요한 자기의 권력층으로 키워나가며 고구려의 구세력들과 힘겨루기를 했던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두루 살펴 백성이 흉년으로 고통스러워하면 함께 음식을 줄이고 재해가 닥칠 때는 국가의 부역을 중단하기도 하는 등의 행동으로 백성들로부터 신망과 애정을 얻고자 한 왕이다.<sup>50)</sup> 이렇듯 평강왕은 민심의 획득과 더불어 신흥귀족계급과의 친밀한 관계로 구 귀족계급과의 사이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고씨라는 고구려 귀족계급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지닌 집안과의 혼인을 추구했다는 설화의 이야기는 평강왕 대의 정치적 구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

48) 김대숙, <온달전의 구비문학적 이해>,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김창룡, <고구려 문학 -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49) 진재교, <온달전 분석의 한 시각>,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안은영, 온달전의 서사전략과 전승양상연구, 동아대학교 석사, 2001.

50) 김용만, 『인물로 보는 고구려사』, 창해, 2001. p.p.255-267 참조.

<온달전>의 부왕과의 갈등은 구 귀족세력과의 결합을 도모하던 부왕과 이를 거부하고 새로운 세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공주 사이의 정치적 반목을 그린 정치적 우의로 평가될 수 있다.<sup>51)</sup> 또한 상부 고씨와의 혼인이 깨지고도 왕이 직접 수렴대회를 열고 전쟁에 군대를 이끌고 참석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평강왕이 깨진 혼약의 영향을 극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왕권을 공고히 수립했음을 의미한다.

설화에서 상부 고씨와의 혼사에 대해 공주는 부왕의 과거의 말을 거론하며 왕의 희언에 대해 간언한다. 공주가 말하는 ‘임금은 회롱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추측컨대 실제로 전승되어오던 온달 설화에서 나왔다고 보는 김부식 개인의 관념을 작품에 포함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유학에서의 희언에 대한 교훈담을 비추어볼 때 말에 대한 엄격함을 강조한 예화라 하겠다.<sup>52)</sup> 공주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왕은 노하여 공주와 ‘같이 살수 없다’고 말한다. <온달전>의 기록에서는 특별히 왕이 노하여 공주를 내쫓았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주의 출궁은 왕이 자신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자 스스로의 결단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온달 설화와 그 서사 전개가 비교되는 <서동 설화>와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서동 설화>에서 선화 공주는 모친이 싸준 보물을 안고 궁에서 축출된다. 평강 공주 역시 왕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궁에서 나가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공주의 출궁은 일방적인 내쫓김이 아니라 공주의 주체적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한 출궁이다. 공주의 의지는 스스로 금가락지 수 십 개를 몸에 지니고 출궁을 감행하는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부모와의 대립에서 타협되지 못한 상

51) 김창룡, <고구려 문학 -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52) 이러한 희언에 대한 예화는 논어에도 등장한다. 논어 권17 양화(陽貨)  
 子之武城하사 聞弦歌之聲하시다 夫子莞爾而笑曰 割雞에 焉用牛刀리오 子游對曰 昔者에 偃也聞諸(저) 夫子하니 曰君子學道則愛人이요 小人學道則易使也라호이다 子曰 二三子아 偃之言이 是也니 前言안 戲之耳니라  
 (공자께서 무성에 가시어 현악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으셨다. 부자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닭은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 자유가 대답하였다.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듣자오니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가 쉽다.’ 하셨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얘들아, 자유의 말이 옳다. 방금 내가 한 말은 농담이니라.”)

황에서의 자기의 주장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한 공주의 모습은 바리데기나 구전설화의 쫓겨난 여인들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주변의 강압이나 축출에 의해 쫓겨난 형태나 선화 공주의 형태와 차이가 난다.

공주의 출궁 대목을 두고 많은 설화 연구자들은 ‘내 복에 산다 설화’의 한 유형 혹은 원형으로써 온달설화의 평강공주의 출궁을 언급한다.<sup>53)</sup> ‘내 복 유형의 설화’나 ‘쫓겨난 여인 발복 설화’의 유형이 지닌 기본 서사단락 ① 부친(혹은 남편)과 딸(천한 신분의 여성)의 대립과 여인의 내쫓김 ② 여인의 남자 선택(술구이 총각이 대다수의 신분으로 등장) ③ 여인에 의한 부의 축적 ④ 행복한 결말 / 몰락한 여자 집안의 구제의 틀<sup>54)</sup>은 분명 평강공주의 행위와 연결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온달전>에서 평강의 ‘金’이나 평강공주가 온달의 집에 와서 추구했던 부분은 온달家の 부를 축적하는데 있지 않다. <온달전>은 오히려 온달의 유교적 입신양명과 혼인에 대한 부왕의 인정이라는 부분에 주제가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내 복에 산다> 형 설화가 여인의 주체성 강조라는 주제의식을 지닌 것과 전혀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제의식에서 <온달전>과 <내 복에 산다> 형 설화가 다른 이유는 김부식이 <온달전>을 통해 온달의 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저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달전>역시 여성이 지닌 능력이 드러난다. 부왕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달과의 혼인을 고집하는 평강의 지감력(知鑑力)이 그것이다. 이 부분을 시작으로 <온달전>는 민간전승설화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주체의식을 지닌 자주적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평강공주와 부왕의 대결은 아버지와 딸의 대립과 갈등구조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런 논의에서는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여성의 모습이라는 단순한 형태로 평강의 행위를 규정한다.<sup>55)</sup> ‘여성의 주체적 삶의 가능성의 제시’라는 측면은 분명 공감 가는 부분

53) 김대숙, <온달전의 구비문학적 이해>,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김영만,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의 여성상징 연구>, 국어국문학 20, 부산대학교, 1983.

54) 최운식, <온달설화의 전승양상>, 청람어문학 20, 1998.

55) 임재혜, <온달형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갈등>, 여성문제연구, 1982.

이다. 그러나 지나친 부녀갈등에의 천착은 정작 이 서사의 주인공으로 제시되고 있는 ‘온달’의 입지를 좁히게 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달의 잠재적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의 사회적 위치만 보고 놀리는 순간에 평강만이 이를 알아보고 주변의 반대와 본인이 지닌 사회적 위치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평강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구실을 한다. 그리고 ‘부왕의 강력한 반대’라는 요소는 그 지감력과 선택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치가 된다.

평강왕은 공주의 선택과 행동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인물인 동시에 공주의 능력을 강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로써 작용한다. 그는 공주를 울보에서 남들과 다른 시선을 사람을 알아보고 이를 계발시켜줄 수 있는 인물이며 동시에 온달을 가난하고 ‘바보’라고 불리는 인물에서 장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사건의 도화선이 되는 인물인 것이다.

### ③ 공주와 온달의 결연 : ‘남편감 탐색담’으로써 기능하는 온달집 탐색의 과정

평강공주의 출궁과 온달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온달과의 결연은 비록 서사상에서 그 전개가 짧게 언급되어있지만 설화적 모티브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단락이다. 그 모티브들은 여인의 남편감 탐색과 金 화소이다. 금은

④ 단락에서 본격적인 기능을 발휘하므로 여기에서는 남편감 탐색에 관한 부분만을 살핀다.

평소에 자신의 걸음으로 먼 거리를 거동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 분명한 공주가 궁에서 나와 험난한 길에 들어선다. 온달은 그 먹고사는 것이 궁핍하니 변화한 거리나 시내에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의 거주지는 아마도 산 근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공주가 온달의 집을 찾아가 온달의 행적을 물었을 때 온달모의 답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온달모의 말에 의하면 온달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여 산으로 나무껍질을 벗기러 갔다고 하였다. 나무의 껍질을 벗기러 갔다는 것에서 공주가 온달을 찾아 온 시

점은 계절적으로 겨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주의 긴 여행은 더욱 고되었을 것이 당연하다.

온달의 주거지가 산이라는 점은 공간적으로 중요한 상징을 가진다. 그것은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의 솥구이 총각의 주거지가 산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유형의 설화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솥구이 총각’과 온달을 동일 유형의 인물로 봤을 때,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에서 금과 솥의 결합이 금의 재련 혹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장장이·샤먼의 기능을 떠올리게 하며 온달을 대장장이 혹은 샤먼의 기능 혹은 그에 비견할 만한 잠재력을 지닌 인물로 추정하게 한다.<sup>56)</sup>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의 여성들이 만나는 남성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외진 곳을 주거지로 삼고 있다
2. 솥구이 총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산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3. 남성의 외모가 출중하거나 체격이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솥구이는 신화적으로 고대에 있어 대장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대장장은 과거에 금속을 다룰 줄 아는 정복자이고 지배자이며 동시에 샤먼으로써의 권능을 지닌 존재이다. 우리 설화 속에서 가장 유명한 대장장은 신라의 ‘석탈해’이다.<sup>57)</sup> 솥을 굽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하다. 나무를 얻기 가장 쉬운 장소는 산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나무를 베기 전에는 반드시 산치성<sup>58)</sup>을 드렸다. 그러한 이유로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에서의 ‘솥구이 총각’은 신화적 속성을 이어받은 인물로 간주되기도 한다.<sup>59)</sup> 그러나 <온달

---

56) 김대숙, <평강·선화 전승의 신화적 성격>, 평택대학교 논문집 8, 1996. 참조

5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982, p.p.77-78. ‘탈해신화는… 자기 집안이 대대로 대장장이였다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장장은 원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금속을 다룰 줄 알아야만 정복자가 될 수 있었으므로 대장장이야말로 무당으로서의 권위까지 지닌 지배자였다.’

58) 인제군 솥둔골에서 벌어지는 ‘솥굽기놀이’에서는 입산-솥가마 만들기-가마치성-불지르기-노래와 춤의 순서로 놀이가 진행되며, 가마치성의 부분에서 천신과 산신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제 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기록/1987.9.29-30/ 안양시 공설운동장)

전>과 같은 문헌설화에서 남성은 숲과 관련이 없다. 이것은 <내 복에 산다> 형에 비해 온달이라는 남자 주인공의 능력이나 기능이 현실적으로 변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온달설화는 그 영웅적 이야기 구조에도 불구하고 신화가 아닌 역사적 전설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주인공 역시 생금이 아닌 폐물을 지니고 나온다는 점에서 그 신화성은 소거되고 역사적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도구의 변천과정에 비추어보더라도 <내 복에 산다> 형 설화들이 온달설화에 비해 오래전에 형성되어 전승 되어오던 이야기로 보인다.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의 여인이 숲구이 총각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온달전>에서 평강공주 역시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의 여인처럼 온달은 만남으로써 자신의 지혜라는 능력의 요소를 제대로 발휘하게 된다. 공주가 발휘하는 능력은 금으로 대변되는 재물적 능력도 있지만 <온달전>에서 보다 중요시되는 것은 공주가 지닌 지혜라는 능력이다. 이것은 <온달전>의 목적이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와 같은 치부가 아니라 왕으로부터의 인정과 유교적 입신양명에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즉 <온달전>에서 치부는 하나의 수단이고 통과 과정에 불과하다.

<온달전>의 결연과정<sup>60)</sup>이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와 다른 점은 또 있다.

59) 김대숙, 앞의 논문 참조.

60) 路遇一人 問溫達之家 乃行至其家 見盲老母 近前拜 問其子所在 老母對曰 吾子貧且陋 非貴人之所可近 今聞子之臭 芬馥異常 接子之手 柔滑如綿 必天下之貴人也 因誰之 以至於此乎 惟我息 不忍饑 取榆皮於山林 久而未還 公主出行 至山下 見溫達負榆皮而來 公主與之言懷 溫達悖然曰 此非幼女子所宜行 必非人也 狐鬼也 勿迫我也 遂行不顧 公主獨歸 宿柴門下 明朝更入 與母子備言之 溫達依違未決 其母曰 吾息至陋 不足爲貴人匹 吾家至 固不宜貴人居 公主對曰 古人言 一斗粟猶可 一尺布猶可縫 則苟爲同心 何必富貴然後 可共乎 (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 온달의 집을 물어, 그 집에 이르렀다. 눈 먼 늙은 어머니가 있기에, 앞으로 가까이 가서 절하고 그 아들이 있는 곳을 물었다. 늙은 어미가 대답하기를, 우리 아들은 가난하고 누추하니, 귀인이 가까이할 사람이 못됩니다. 지금 당신의 냄새를 맡으니 향기가 이상하고, 손을 만지니 부드러기가 마치 솜과 같습니다. 반드시 천하의 귀인일텐데, 누구에게 속아 이곳에 왔습니까? 내 아들은 주립을 참지 못하여 산 속으로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간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시다. 공주가 찾아나가 걸어서 산 밑에 이르러,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끓여지고 오는 것을 보았다. 공주가 그에게 마음 속에 품은 바를 말하니, 온달이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이곳은 어린 여자가 다닐 곳이 아니다. 틀림없이 사람이 아니라 둔갑한 여우나 귀신이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하며 마침내 돌아보지도 않고 갔다. 공주는 혼자 돌아와 싸리문 밑에서 잤다. 이튿날 아침 다시

<내 복에 산다> 형은 여인이 남성을 택함에 있어 별다른 장애나 남성으로부터의 거부가 드러나는 경우가 없다. 이 설화의 남성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남성이다. 그러나 <온달전>에서는 온달의 거부와 잠재적 능력이 표현된다.

<온달전>에서 온달모자는 신분상의 차이와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염려하여 공주의 청혼을 거부한다. 온달의 경우에는 청혼을 거부할 뿐 아니라 공주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곳은 어린 여자가 다닐 곳이 아니니 필시 여우나 귀신이 둔갑한 것이다’라는 온달의 말을 통해 평강공주의 등장이 온달에게 준 충격과 갈등의 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이 느낄 수 있다.

온달이 평강공주를 거부하고 화를 내는 부분은 ‘온달’이 보통의 평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하며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놀림 받는 것처럼 ‘바보’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가 ‘바보’로 불리게 된 원인이 그의 외적 행색 때문인 것으로 기술되어있는 삼국사기의 내용은 외형만 보고 온달의 내면과 자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노모에 이어 온달에게까지 거부당한 공주는 결국 힘겨운 여정을 거쳐 당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룻밤을 싸리문 밖에서 지내게 된다. 이 결연에 이르기까지의 평강공주의 고생담은 바리데기나 고전소설인 <숙향전><사씨남정기>등에서의 여자주인공의 고생담과 층위나 질량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여성의 주체적 탐색과 적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맥상통 한다. 공주의 고생담은 이 둘의 결합이 당시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결합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장치로서의 구실을 한다. 부왕의 반대와 출궁이라는 이중고를 거쳐 온 공주는 어찌면 그래도 자신은 공주의 신분이고 상대는 현재 시중에서 ‘바보’로 불리는 미천한 신분이니 당연히 받

---

들어가서 모자에게 자세히 사정을 말했으나, 온달은 우물쭈물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 어머니가 말했다. "내 자식은 지극히 누추하여 귀인의 배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은 지극히 가난하니, 진실로 귀인의 거처할 곳이 못됩니다." 공주가 대답하였다. "옛 사람의 말에 '한 말 곡식도 짊어 양식이 될 수 있고, 한 자 베도 오히려 꿰매어 옷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마음만 같다면, 어찌 반드시 부귀한 후에야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아들여 줄 거라고 여기고 왔을 것이고 그런 공주에게 있어 뜻하지 않은 온달모자로부터의 거부는 큰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만도 한 상황에서 공주는 포기하지 않고 난생 처음 밤이슬을 맞으며 남의 집 문밖에서 쪼그리고 밤을 샌다. 공주의 신분에서 거리의 부랑자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이러한 과정은 영웅서사에서의 주인공의 통과제의를 떠올리게 한다. 전혀 다른 공간과 가치관의 세계에서 이동해 온 공주는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겨운 난관을 거쳐야만 했다. 그래서 <온달전>은 온달이라는 인물의 영웅설화인 동시에 평강이라는 여인의 여성영웅서사로서의 면모도 보이고 있으며 평강이라는 인물이 지닌 신화성 또한 계속적으로 펼쳐 보여주고 있다. 통과제의를 일반 사람이 무당이나 샤먼으로 거듭날 때 거쳐야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평강에게 있어 이 모자의 거부는 평강이 진정으로 ‘공주’의 신분을 버리고 온달모자와 같은 신분으로 내려오기 위한 통과과정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난 평강은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된다.

평강의 능력은 공주의 내조 부분에서의 말 고르기담<sup>61)</sup>에서 드러나며 ‘온달의 죽음’ 단락에서 움직이지 않는 관을 달래는 부분에서 극대화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달의 죽음 단락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 ④ 공주의 능력과 내조 - 신화적 상징성의 내포

평강공주의 능력과 내조가 드러나는 단락은 공주가 지닌 신화적 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고구려 문화의 전통성을 포함한다. ‘금’과 ‘말’은 신화적 속성을 지닌 동시에 고구려사회의 역사·사회적 변화와 문화를 내포하고 있는 화소이다. 각각의 의미와 기능을 살핀다.

---

61)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비루먹은 국마를 사오게 시키는 부분을 임의적으로 ‘말고르기 담’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 ㄱ. <온달전>에서의 ‘金’: 설화적 상징성과 고구려 경제체제 변화의 우의적 표현.

출궁 시 평강공주는 ‘수십 개의 가락지’를 몸에 지니고 나온다. ‘금’은 이 이야기의 한 요소로써 주목된다.

첫째, 금은 그 불변성 때문에 오랫동안 재화적 가치를 지녀온 금속이다. 대부분의 설화에서 부자가 되는 인물은 금을 발견하거나 얻게 되어 부를 일군다. 설화에서 유독 금 발견 혹은 복을 받는 행위에 재물을 얻게 되는 화소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행복한 삶의 요소 중 부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행복한 삶이란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한편 금(쇠)은 인류가 가장 먼저 발견해서 사용한 금속이기 때문에 철기시대라는 문화사의 한 시대를 여는 중요한 물질이기도 하다. ‘금’이 중요한 이야기의 화소로 등장하는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의 경우 金은 ‘생금’ 혹은 ‘금돌’로 표현된다. 숲가마의 이맛돌이 금인데 여인이 이를 발견하고 남편을 시켜 숲가마의 이맛돌을 뽑게 하는 과정으로 이야기는 전개된다. 설화 속에서 ‘금’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많지만 대부분 금돼지, 금척, 금독, 금덩이, 금거북 등 여러 가지로 불린다. 그러나 ‘생금장’으로 불리는 것은 숲구이총각이 등장하는 <내 복에 산다> 형 설화가 유일하다.<sup>62)</sup>

‘金’은 구전설화상에서 富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과거에는 색에도 계급마다 쓸 수 있는 색깔이 달리 나누어져 있었는데, ‘금색’은 왕이나 지배계급들에게만 허용되는 색이었다. ‘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의 상징인 동시에 권력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하다. 실제로 당시의 고구려에서 황금 제품을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은 극히 한정되어 최고 신분층의 상징이자 권위와 위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온달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황금을 공주가 가지고 나와 평민의 계급으로 강등된 상황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황금이 더 이상 특정한 신분층의 향유

62) 김대숙, <평강·선화전승의 신화적 성격>, 평택대학교 논문집, 1996.

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고구려 사회의 변화된 경제 체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공주가 가지고 온 금가락지는 이제 신분의 표현이라는 수단보다는 교환가치로서의 중요도를 드러낸다.<sup>63)</sup> 이야기상에서 공주가 그 팔찌를 팔아 전답과 노비, 소, 말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황금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폭 넓어졌음을 의미하며 황금을 소유하게 된 ‘집권층이 아닌 새로운 무리들’이 경제적인 부의 축적 이후에 필연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한 욕구 즉, 사회적 신분의 격상 혹은 정치적 진출로의 모색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화소가 된다. 요컨대 온달과 평강의 결연과정에서의 ‘금’은 온달이라는 지배권력 밖의 인물에게 사회적·정치적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門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것이 ‘금’의 두 번째 상징이다.

<온달전>에서 온달을 평가절하 시키는 것은 ‘가난’이다. 그의 가난은 그의 능력을 억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의 사회적 위치를 미천하게 만드는 데 가장 큰 기능을 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런 처지는 공주와의 결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온달전>에서 가장 큰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신분의 차이가 큰 혼인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 차이는 물질적으로 따지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공주와 가장 가난한 온달의 결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난’은 <온달전>에서도 인물과 인물 간 갈등을 유발하는 큰 요소가 된다. 즉 ‘가난’은 주인공 온달과 사회간의 갈등의 중요 원인인 동시에 인물과 인물의 결합에서도 갈등의 주요원인이 된다. 또한 온달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내적 갈등에 해당되는 요소이다. 그렇기에 공주가 지니고 온 ‘금’은 온달을 억압하는 가장 큰 장애와 갈등의 요소를 단번에 제거하는 동시에 온달의 성공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로써 ‘금’은 다음 서사전개의 가장 큰 동력을 지닌 요소가 되는 것이다.

셋째, 이런 ‘금’을 지니고 온 공주는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에서 ‘복진며느리, 제 복으로 먹고 사는 딸, 대복’등으로 지칭되는 여성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단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에 등장하는 ‘금’이 ‘생금’이라면 평

63) 임기환, <온달·서동 설화와 6세기 사회>, <<역사비행>>22, 1993. 참조.

강공주에서는 그 금이 ‘말씨’로 변모했다는 점에서 <운달전>이 좀 더 후기의 역사시대를 반영하여 금의 재련 혹은 단련이라는 과정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64)</sup> 이는 이 결연담이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의 남편탐색담과 비교될 수 있는 대목이다.

#### 나. ‘말 고르기담’의 전통성과 상징성 - 평강공주의 능력 및 내조의 의미

공주의 내조 부분은 사기 기록상으로는 ‘말 고르기담’이 전부이다. 아마도 추상적으로 신기한 능력을 언급함으로써 공주의 능력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말을 공주가 잘 먹이고 돌봐 살찌우게 했다는 것에서 공주의 능력과 내조 혹은 운달을 훈련시킨 부분을 모두 드러내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말’은 신화적으로 ‘신성한 동물’로 취급된다. ‘말’은 신화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동물인 동시에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동물 중 가장 빠른 동물이다. 특히 ‘말’은 고구려 신화에서 건국 신화의 주인공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동물인 동시에 왕의 병든 말을 주인공 남성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공통된 화소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서 평강은 고구려 건국시조의 어머니이며 강의 신 하백의 딸인 유화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여인이 된다.<sup>65)</sup>

須必憑驂駟(수필빙록이)	반드시 준마가 있어야 한다며
相將往馬閑(상장왕마한)	아들을 데리고 마구간에 가서
卽以長鞭捶(즉이장편추)	곧 긴 채찍으로 말을 때리니
群馬皆突走(군마개돌주)	여러 말은 모두 달아나는데
一馬幸色斐(일마성색비)	붉은 빛이 얼룩진 한 말이 있어
跳過二丈欄(도과이장란)	두 길 되는 난간을 뛰어 넘으니

64) 김대숙, 앞의 논문, p.69.

65) 공주의 ‘말고르기담’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 묘사되는 유화가 금와왕의 말에 바늘을 꽂아 비쩍 마르게 하도록 주몽에게 충고하여 주몽이 이를 그래도 실행해 결국 그 말을 왕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야기와 유사하다.

始覺是駿驥(시각시준기)  
 潛以針刺舌(잠이침자설)  
 酸痛不受飼(산통불수사)  
 不日形甚癯(불일형심구)  
 却與駑駘似(각여노태사)  
 爾後王巡觀(이후왕순관)  
 予馬此卽是(여마차즉시)  
 得之始抽針(득지시추침)  
 日夜屢加餵(일야루가위)

이것이 준마인 줄 비로소 깨달았다  
 남 모르게 바늘을 혀에 꽂으니  
 시고 아파 먹지 못하네  
 며칠 못 되어 형상이 심히 야위어  
 나쁜 말과 다름없었다.  
 그 뒤에 왕이 돌아보고  
 바로 이 말을 주었다.  
 얻고 나서 비로소 바늘을 뽑고  
 밤낮으로 도로 먹였다<sup>66)</sup>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부인은 마굿간에 가서 가장 좋은 명마를 골라 그 헛바닥에 바늘을 꽂아 그 말을 여위게 하고 그 여윈 말을 주몽의 몫이 되게 만들었다.

<온달전>에서 평강은 온달에게 말을 사오되 반드시 병든 국마를 사들이라고 한다. 평강공주가 경황이 없는 출궁 시에도 금가락지 수십 개를 챙겨올 정도로 용의주도하고 면밀한 성격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공주의 발언은 확실한 사유가 없이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공주가 반드시 국마를 고집한다는 점은 공주가 출궁 이전에 이미 과거 유화의 명마를 병들게 하여 아들에게 주어지도록 한 지혜를 차용하여 훌륭한 말을 골라 같은 방식으로 일을 꾸미고 나왔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해진다. 고구려에서 건국 시조인 주몽의 일화는 곧 건국신화였기에 일반적으로 고구려인들이 이미 습득하고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평강공주의 발언은 바로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뒤에 두고 나타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공주의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화소인 동시에 고구려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모티프이다. 공주가 병든 국마를 살찌웠다는 것은 왕의 말 담당자도 어찌할 수 없어 내놓은 말을 공주가 키워냄으로써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

66)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동국이상국집』, 고전국역총서 166, 1980. p.136.

히려 공주의 지혜로움을 돋보이게 하는 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인식하고 있기에 공주가 궁중에서 이미 했었을 법한 행동 즉 유화부인과 동일한 행동은 생략되어져 전승되어도 전혀 이야기 전개에 있어 무리가 아닐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삼국사기』의 서사전략의 특징적인 부분인 동시에 이야기의 설화적 구조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유화부인에서부터 등장하는 말을 택하는 지혜는 <온달전>으로 고스란히 전승되었고 이것은 이후 조선후기 여성영웅소설인 「박씨전」에서 변이되어 전승되고 있다.<sup>67)</sup> 그러나 이 이야기가 각 작품에서 작용하는 기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박씨전」에서 여원 말과 관련된 화소는 박씨의 위인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평강공주가 여위고 병든 국마를 사들이려는 것은 바로 출궁 이전에 속임수로 병들게 한 준마이기 때문이다. 즉 「박씨전」의 여원 말의 의미는 <온달전>에서의 여원 말이 함의하는 원인을 생략한 채 그저 여원 말이라는 개체만을 전승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야기의 심층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은 생략되어진 채 표층적 부분만이 수용되는 구전설화의 전승원리를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왜 하필 능력의 표현수단이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기마 민족으로 불리는 고구려인에게 있어 ‘말’은 가장 친숙한 동물인 동시에 가장 필수로 요구되는 능력이 말을 다루는 능력이다. 전쟁에 있어서도 해전보다 지상전에 치중되어있던 고구려이다 보니 훌륭히 말을 타고 다루는 능력은 지배자이며 무인들에게는 가장 요구되는 능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공주가 ‘말’을 길러내는 과정은 공주가 ‘온달’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과 동향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설화는 짧은 문장으로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을 그 담화의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므로 ‘말을 길러내는 과정’과 ‘온달이 무인으로써 성장되는 과정’을 동향으로 보는 것이 비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말’은 이후 온달이 처음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사냥대회’였다는 것과 서사적으로 연결되어 그 서사적 필연성을 획득한

67) 김나영, <신화적 관점에서 본 <박씨전> 소고>, 고소설 연구 제 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p.213 참조.

다. 이것은 <온달전>의 서사의 뛰어난 점이라 할 수 있다.

## ⑤ 온달의 성공 - 고구려 정치체제에 대한 기록

이 단락은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주도적 인물로 온달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온달의 성공은 평강공주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점도 있지만 온달의 잠재된 역량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 단락은 본격적으로 <온달전>의 주인공인 온달이 주인공으로써의 면모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단락이기도 하다.

온달의 성공의 핵심은 매년 낙랑벌에서 3월에 벌어지는 수렵대회가 큰 기능을 한다. 당시 고구려의 지위는 골품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미천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선배제도'<sup>68)</sup>에 의한 방법뿐이었다. 이 방법에 의해 '선배'로 뽑힌 자들은 귀천의 구별 없이 자신의 학문과 기술을 통해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고구려 역사상 이 가운데서 인물이 가장 많이 나왔다. 온달이 사냥대회에 출전하여 활약했다는 대목은 이 선배를 뽑는 행사의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온달은 그 수렵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통해 가장 출중했던 자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선배'의 호칭을 얻지 못한다. 이는 온달의 신분이 상당히 미천하여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sup>69)</sup> 사냥을 통해 왕과 사

68) 신채호, 「조선상고사」, 형설출판사, 1991.

선배제도는 고구려의 10월 제사(동맹)에 모인 군중 앞에서 무예를 선보인 데서 비롯된 제도이다. 이 행사에서는 사냥과 가무, 무예 등의 여러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을 선배라 불렀고, 이들은 국가에서 급료를 받아 생활하면서 무예와 학문을 갈고 닦았다. 전시에는 이들이 자체부대를 조직하고 전장에 나가 정예군으로 활동했다. 선배는 머리를 박박 깎고 검은 옷을 입었으므로 전형적인 무사를 연상시킨다. 선배는 신라의 화랑제도 이전에 시작된 제도로 추정된다. 신라의 화랑제도가 원화라는 여성에서 비롯되어 문제가 발생하여, 좋은 가문의 청년 중 덕행이 있는 자를 뽑았으며, 외모와 몸치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여성적인 면모를 보이는 반면, 선배 제도는 지극히 남성적이다. 선배의 독특한 외양 때문에 고구려와 전쟁을 하였던 수, 당의 병사들은 이들을 승군(僧軍)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69) 이재호 역, 『삼국사기』 「열전」 5 온달, 솔 출판사, 2002.

高句麗常以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以所獲猪鹿 祭天及山川神 至其日 王出獵 群臣及五部兵士皆從 於是 溫達以所養之馬隨行 其馳騁常在前 所獲亦多 他無若者 王召來 問姓名 驚且異之 ( 고구려에서는 항상 봄철 3월 3일이면 낙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그 날 잡은 산돼지·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의 신에게

람들에게 이름을 알린 온달은 이 후의 전쟁에서의 활약으로 드디어 왕으로부터의 인정과 이미 받았어야 할 벼슬인 ‘선배’의 지위(대형)를 획득한다.<sup>70)</sup> 선배의 지위는 그 선행과 학문의 뛰어남에 따라 우두머리를 정해 스승으로 삼았는데 지위는 가장 높은 지위인 ‘신크마리-두대형 혹은 태대형’로부터 ‘마리-대형’, 맨 아래의 ‘소형’으로 구분되었다.

온달이 소형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형’의 지위를 얻은 것은 실력의 출중함과 그 활약뿐만 아니라 그가 공주의 남편이라는 점에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면면을 살펴보면 온달의 성공담은 고구려 문화·정치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으로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점이 이 단락을 기준으로 <온달전>의 사실적 부분이 시작된다고 하는 의견의 한 근거라 할 수 있다.

온달의 성공담이 ‘무예’와 관련된다는 것은 고구려가 ‘무예’를 중시하는 국가였음을 고려해 볼 때 타당성을 지닌다.<sup>71)</sup> 그리고 온달의 무예는 당시의 고구려 정치사와 연관될 수 있다.

평원왕대의 고구려는 안팎으로 강한 세력에 둘러싸여 있던 시기였다. 게다가 평원왕의 부왕 양원왕이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친족간의 싸움으로 인해 고구려의 군사력은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군사력의 약화와 귀족세력과의 견제, 수시로 일어나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국내

제사를 지냈다. 그 날이 되면 왕이 나가 사냥하고, 여러 신하들과 5부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 나섰다. 이에 온달도 기른 말을 타고 따라 갔는데, 그 달리는 품이 언제나 앞에 서고 포획하는 짐승도 많아서, 다른 사람은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다. 왕이 불러 그 성명을 물어보고는,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다.)

70) 위의 책.

溫達爲先鋒 疾鬪斬數十餘級. 諸軍乘勝奮擊大克. 及論功 無不以溫達爲第一 王嘉歎之曰 是吾女婿也 備禮迎之 賜爵爲大兄 由此寵榮尤渥 威權日盛 ( 온달이 선봉장이 되어 날쌔게 싸워 수십여 명을 베었다. 여러 군사도 승세를 타고 분발하여 쳐서 크게 이겼다. 공을 논할 때에 온달을 제일로 삼지 않는 이가 없었다. 왕이 가상히 여기고 칭찬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의 사위다. 예를 갖추어 맞이하고, 작위를 주어 대형을 삼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로써 영화가 더욱 많아졌고, 위엄과 권세가 날로 성하게 되었다.)

71) 고구려는 시조 동명성왕에서부터 ‘활쏘기’와 ‘말’관련담이 중요한 신화의 화소인 동시에 주인공의 능력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등장하는 것으로도 무예를 왕 혹은 지배자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의 정치상황의 장악에 힘써야하는 과정에서 외부세력의 빈번한 침략에 대해 평원왕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친화정책을 통한 안정에 힘쓸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곧바로 국토침략을 허용하는 상황으로까지 연결된다.<sup>72)</sup> 실제로 평원왕 시대에 신라의 진흥왕이 고구려의 영토를 침략하여 한강유역을 빼앗는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고구려인으로 하여금 빼앗긴 영토의 수복이라는 강렬한 염원을 지니게 하기에 충분한 상황조건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실현해줄 인물에 대한 기대 역시 온달 설화를 이루는 요소가 된다.

이 단락의 온달의 행적과 그 성공은 설화적으로 행복한 결말로 끝나도 무리가 없는 단락이다. 그러나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내용은 미천하게 취급되던 한 남성의 입지전적인 성공담과 활약으로 이야기를 끝맺지 않는다.

## ⑥ 온달의 전사 - 구국정신의 고취

이 단락의 시작은 왕이 바뀌고 온달이 빼앗긴 국토를 수복하겠다고 자청하여 전쟁을 나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기에서부터 <온달전>을 읽는 이들은 불안한 분위기를 감지한다. 이미 대외적으로 더 이상 오를 수 없을 만큼 지위와 명성이 오르고 공주를 부인으로 둔 온달이 자청하여 힘든 전쟁을 불사한다는 것은 사실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점이 있다. 인간은 본래 행복한 상태의 유지에 집착하는 존재이고 이러한 현실을 박차고 굳이 힘든 길을 택한다는 것인 남다른 인물이 아니면 힘든 일이다. 이런 점에서 온달의 영웅성은 드러난다. 또한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온달의 발언은 우국충정의 직설적 표현이다.<sup>73)</sup>

72) 윤여동, 「아주 특별한 고구려사」, 여민락, 2004 ; 김용만, 「인물로 보는 고구려사」, 창해, 2001 참조.

73) 삼국사기 <온달전>.

臨行誓曰 鷄立峴 竹嶺已西 不歸於我 則不返也 ( 왕이 허락하자, 떠나면서 맹세하여 말했다. "계림현과 죽령 서쪽의 땅을 우리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

이러한 투철한 우국충정의 투지를 지닌 출정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현실적 장벽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온달은 아단성의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기 때문이다. 이 죽음과 관련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지만<sup>74)</sup> 서사전개로 보자면 온달은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비극적이고 전설적인 영웅으로 거듭난다.

‘온달의 죽음’이라는 결말은 신분을 초월한 러브스토리라는 극적인 전개와 더불어 인물들의 비극적 결말이라는 종결로 사람들에게 더욱더 회자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게 된다. 이것은 이야기로써의 온달설화의 장점이다. 또한 이것은 『삼국사기』의 집필 성격상 온달의 죽음을 통해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킨 충신의 모습과 구국정신의 각성이라는 목적성을 띤 결말로 간주할 수 있다. 온달의 죽음이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죽음이다. 실제로 신라의 영역으로 복속되어 있는 지역을 허구적 이야기라 하더라도 수복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은 설화가 허구성과 동시에 역사성과 사실성을 반영한다는 특성을 보여준다. 민중적·민족적 대리만족과 자긍심의 고취와 실제 사실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럴 수 없다는 인식은 이후 소설 <박씨전> 등에서도 드러나는 인식이다.

비록 실패했으나 후세에 길이 빛날 만큼 뜨거운 우국충정, 죽어서도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깊은 한, 사랑하는 부인의 간절한 호소와 위로를 듣고서야 마침내 미련을 버리는 움직이는 관을 통해 느껴지는 사자(死者)의 안타까운 발걸음 등은 <온달전>의 비극적 숭고미를 형성한다. ‘움직이지 않는 관’은 <온달전>에서도 주목되는 화소이다.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 장사를 지내려 하니 영구가 움직이지 않았다.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

---

74) 논란의 핵심은 온달이 싸우다 죽은 산성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온달산성은 서울 광진구 아차산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충북 단양지역에 온달산성이라 이름 붙여진 산성이 있고 그 산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설화가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학계에서는 이곳을 온달이 전사한 온달산성으로 보는 관점도 등장했다. (김현길, <아단성과 아차성에 관한 연구>,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 이창식, <온달전승의 구비성과 기록성>, 고전문학연구 14, 1998.; 임동철, <충북 북부지역의 설화고(1)>, 충북대학교 논문집 제 27집, 1984.)

며 말했다. “죽고 사는 것은 결정되었습니다. 아아 돌아갑시다.” 드디어 관이 움직여 장사지냈다. 欲葬 柩不肯動 公主來撫棺曰 死生決矣 於乎歸矣 遂舉而窆 (삼국사기 제 45권 열전 제 5 온달)

온달의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과 평강공주의 위무를 받은 후에야 관이 움직여 하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온달전> 중에서 가장 설화적인 부분이다. 죽은 자의 영혼과 소통하고 위무하는 능력은 무당이 지니는 능력이다.<sup>75)</sup> 여기서 평강이 지니는 신이한 능력은 가장 극대화되어 표현된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관 화소는 <온달전>에만 독특하게 드러나는 대목은 아니다. 민간에 전승되는 황진이와 관련된 이야기<sup>76)</sup>에서 여성이 자신을 사모하던 남성을 위로하는 이야기를 보아도 민간에서 죽은 이의 강한 애정과 한을 표현하는데 ‘시신이 움직이지 않는 이야기’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움직이지 않는 관’이야기는 <온달전>이 민담으로부터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대목은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인물들의 비극적이면서도 생사를 초월한 애정의 측면과 주인공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인식되어 전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온달전>에서 김부식이 이 대목을 실은 이유는 아마도 전혀 다른 의도일 것이다. 그는 온달의 맹세와 결부시켜 주인공의 시신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국토수복의 맹세를 지키지 못한 충신의 한으로 읽히기를 원했다. 이것은 앞서 평강왕의 희언을 거론한 것과 연관지어 ‘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동시에 그는 국토를 수복하지 못한 한(恨)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온달을 통해 강한 충절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그의 의도는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적인 것과는 동떨어진 부분을 정사의 열전임에도

75) 온달의 관을 움직이게 하는 평강의 모습은 사후세계까지 관장하는 여무(女巫)나 신적인 존재로 파악될 수 있다. 평강의 시신위무의 모습은 평강이 지닌 무녀로써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김대숙, 「한국설화문학연구」, 집문당, 1994, p.150 참조)

76) 이것은 민간에서 전해지는 황진이와 관련된 야담이다. 황진이를 사모하다 상사병으로 죽은 남성의 시신이 황진이의 집 앞에서 움직이지 않으므로 황진이가 나가 그 관을 어루만지며 위로하자 관이 움직였다는 민담에서 ‘움직이지 않는 관’과 동일한 형태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

불구하고 포함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게다가 열전이라는 특성은 정사에 실을 수 없었던 신이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했다.

실패한 영웅의 비장한 최후는 <온달전>의 백미이다. 김부식은 온달의 죽음으로 작품을 마감함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더군다나 작품의 말미에서 온달의 죽음에 대해 ‘대왕이 듣고 몹시 슬퍼하였다’라는 간략함으로 끝맺음을 한다. 이것은 그의 애국 영웅적 면모를 재차 부각시키는 효과를 만든다. 그리고 왕의 비통은 곧 모든 고구려인이 온달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sup>77)</sup> 이처럼 <온달전>의 결말이 지닌 비장미는 비극적 영웅 온달과 공주인 평강의 결연담과 함께 <온달전>이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설화의 주인공으로 살아남게 한 이야기의 힘일 것이다.

온달설화에 담겨진 유교적 가치관과 교시적 목적성은 이후에 나타난 문헌설화에서도 발견된다. 이것은 한자라는 문자의 특성상 지배층이나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삼국사기가 읽혀왔고 그 영향이 이후에 나타나는 기록에도 미쳤음을 짐작케 한다. 온달설화를 기록한 문헌으로는 조선시대 문헌인 『신증 동국여지승람』과 고려시대의 문헌인 『명심보감』이 있다. 이들 문헌의 기록을 살펴으로써 <온달전>이 문헌설화에서 전승되는 양상과 주제의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신증 동국여지승람』<sup>78)</sup>제 51권 평양부 인물조에 수록된 온달에 관한 기록을 서사단락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a. 용모가 우스웠으므로 사람들이 바보온달이라 일컬었다.
- b. 양강왕의 어린 딸이 스스로 나서서 온달의 아내가 되었다.
- c. 후주의 무제가 요동을 쳐들어오니, 온달이 선봉이 되어 활약하므로 크게 이겼다.
- d. 왕이 온달을 사위로 인정하고 대형 벼슬을 주었다.

77) 진재교, <온달전 분석의 한 시각>,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p.189.

78) 이행 외, 『신증 동국여지승람 6』, 민족문화추진회 편, 솔 출판사, 1996. p.p.400-401.

e. 평강왕이 즉위하자 온달이 나서 신라에게 빼앗긴 계림현과 죽령 서쪽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 싸우다가 아단성에서 전사하였다.

f. 온달의 시신이 움직이지 않아 공주가 널을 어루만지며 위로하니 관이 움직여 장사지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인문지리서이다. <온달전> 기록과 비교하면 공주의 부왕이 평강왕에서 양강왕으로 바뀌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온달의 사냥담의 생략과 온달과 공주의 인물 소개부분의 축소 현상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서사는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은 <온달전>에서 후반부의 온달의 성공부분에 큰 비중을 두고 서술하여 온달의 용기와 충성심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반면 『명심보감』(79)은 평강의 행적으로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이것은 두 문헌이 동일 원전을 수용하면서도 각각의 주제의식에 따라 이야기의 첨삭을 달리했음을 의미한다. 『명심보감』의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명심보감』은 고려 충렬왕 때 금언과 명구를 모아 편찬한 책으로 교육 서로써의 기능을 담당하는 책이었다. 책의 염의편에 온달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서사단락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온달이 가난하여 구걸하여 어머니를 섬기니 사람들이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다.

b. 평원왕의 딸이 잘 우니 왕이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하였다.

c. 왕이 공주를 상부 고씨에게 시집보내려 하였는데 공주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d. 공주가 온달을 찾아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e. 공주는 가지고 온 폐물을 팔아 살림을 일으키고 말을 많이 길렀다.

f. 온달은 공주의 도움으로 이름이 빛나고 영달하게 되었다.

---

79) 이기석 역, 『명심보감』, 흥신문화사, 1997, p.p.328-329.

이 기록은 『신증 동국여지승람』과 대조적이다. 앞서의 기록이 온달의 용기와 충성심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이 기록은 평강공주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온달의 활약담이나 성공담, 전사에 대한 기록은 생략되어졌다. 이런 서술태도를 통해 『명심보감』은 왕의 희언을 비판하고 약속을 지키고자 한 공주의 행동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 이를 후대의 여성들이 본받도록 하는 교육적 목적을 지니고 서술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명심보감』의 성격이 본래 교육서로서의 의도를 지니고 저작되었음을 생각해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체 서사가 <온달전>의 서사와 흡사한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신증 동국여지승람』과 유사하다.

## 2. 구비설화 전승양상의 특징과 그 의미

<온달전>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진 이래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인구에 회자되는 설화이다. 구전설화에는 ‘온달’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구전되어 오는 자료가 4편<sup>80)</sup>이 있고 그 외에 동일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설화들이 전해진다.<sup>81)</sup> 본고에서는 부족하나마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위의 자료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온달설화의 전승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배 계층의 교시적 목적에 의해 윤색된 <온달전>과 같은 문헌설화와 구전설화의 주제의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것은 서로 다른 전승계층·전승방식에 의해 한 유형의 이야기가 어떻게 주제와 서사의 차이가 발생되고 전승하는지를 살필 수 있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각 전승계층에 따른 비교가 가능하다.

80) 한국구비문학대계 1-7 '바보 온달' (p.p. 314- 317), 강화군 길상면 편 / 1-7 '바보 온달' (p.p. 438-439) 강화군 화도면 편 / 6-10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p.p. 519-521) 화순군 춘양면 편 / 8-14 '바보 온달' (p.p. 186-187) 하동군 화개면 편

81) 이 논문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찾아온 아내 덕에 출세하기(바보 온달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20편을 ‘온달형 설화’로 칭한다.

온달설화는 그 이야기 자체에 많은 설화적 성격을 수용한 설화이다. 다양한 성격의 수용은 그 설화를 전승함에 있어서도 역시 다양한 운색과 첨삭을 가능케 한다. 구비 전승되는 설화들을 통하여 온달설화의 전승양상을 살펴 보도록 한다. 여기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설화의 각 서사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온달전>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구전되어오다가 온달의 이름으로 채록되어 전해지는 온달설화로는 『한국 구비문학대계』에 실린 4편과 최윤식이 채록한 이야기 2편이 있다. 그리고 온달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서사전개에 온달의 핵심적 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구비설화 2편을 함께 다룬다. 이들의 서사단락을 나누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온달’ 이름으로 전승되는 설화

### ① 바보 온달(1)<sup>82)</sup>

- a. 어린 공주가 잘 우니, 왕이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하였다.
- b. 왕이 공주를 다른 데로 시집보내려 하자 공주가 이를 거역하니, 왕은 공주를 나가라 하였다.
- c. 공주가 온달을 찾아가 온달 모자를 설득하여 혼인하여 함께 살았다.
- d. 공주는 가지고 온 패물을 팔아 살림을 하고, 온달에게 글과 무술을 가르쳤다.
- e. 온달이 전쟁에 나가 공을 세워 임금의 칭찬을 받았다.
- f. 온달이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죽었다.

이 이야기는 <온달전>의 서사단락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처음의 시작이 공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온달전>과 차이를 보인다. 또 온달의 소개 부분, 온달의 사냥터 활약담, 공주의 딸 고르기담, 온달의 움직임이 지 않는 관 이야기가 생략되었다. 대신에 공주가 온달을 훈련한 부분을 구

---

82) 한국구비문학대계 1-7 ‘바보 온달’ 강화군 길상면 편 (p.p.314-317)

체적으로 공주가 온달에게 글과 무술을 가르쳤다고 표현하여 <온달전>의 공주의 말고르기 담을 대체하여 공주의 능력을 표현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 ② 바보 온달(2)<sup>83)</sup>

- a. 어린 공주가 잘 우니, 왕이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했다.
- b. 왕이 공주를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려 하니 공주가 이를 거역하고 집을 나왔다.
- c. 공주가 온달을 찾아가 온달 모자를 설득하여 온달과 혼인하고 함께 살았다.
- d. 공주는 가지고 온 폐물을 팔아 살림을 하고 온달에게 글과 무술을 가르쳤다.
- e. 온달이 사냥 대회에 나가 장원을 하고 대장이 되었다.
- f. 온달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 g. 온달의 시신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으므로, 공주가 나아가 위로하니 관이 움직여 장사지냈다.

이 이야기는 <온달전>에 수록된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을 완전하게 수용한 이야기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설화 역시 처음 시작을 공주로 하고 온달의 형편과 외모에 대한 묘사 부분이 생략되었다는 점이 <온달전>과의 차이점이고 앞에 소개된 ①의 이야기와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소개된 이야기에는 생략되었던 사냥활약담이나 움직이지 않는 관 이야기가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보아 <온달전>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에 가깝다고 추측되어진다.

---

83) 한국구비문학대계 1-7 '바보 온달' 강화군 화도면 편 (p.438-439)

### ③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sup>84)</sup>

- a. 힘이 장사인 온달이 ‘바보 온달’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와 함께 씬을 캐 먹고 살았다.
- b. 왕이 공주를 시집보내려 하니 공주가 온달과 혼인하겠다고 하므로 왕은 공주를 내쫓았다.
- c. 공주는 온달을 찾아가서 온달 모자를 설득하여 함께 살았다.
- d. 공주는 가지고 온 금을 팔아 살림을 일으키고 온달에게 공부를 시키고 무술을 가르쳤다.
- e. 온달이 전쟁에 나가 싸움을 잘 하니 왕이 이를 보고 칭찬하였다.
- f. 온달이 싸움터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이 이야기는 <온달전>의 서사전개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듯 보이지만 이야기의 인과 관계에 무리가 있다. 가령, b 단락에서 공주의 어린시절이 생략된 채, 성장한 공주와 부왕간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이것의 이유로 구연자는 어린 시절 공주가 부모로부터 온달의 이야기를 듣고 보지도 못한 온달을 점찍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구연을 전개시켜나가고 있다. 사냥활약담은 생략되고 온달의 전쟁활약담에 사냥활약담에서 나타나는 왕의 칭찬이 전쟁담에 삽입되어 두 이야기의 혼용을 추측케 한다. 움직이는 판 이야기 역시 생략된 채 드러나는 등 전체적으로 <온달전>의 내용이 축약되어 전달되고 있다.

---

84) 한국구비문학대계 6-10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화순군 춘양면 편 (p.p. 519-521).

#### ④ 온달 장군의 공깃돌과 말 무덤<sup>85)</sup>

- a. 고구려에 마음씨 착하고, 힘이 센 온달이 밥을 얻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았다.
- b. 아이들이 그를 놀리고 때려도 화를 내지 않으므로, ‘바보 온달’이라 불렸다.
- c. 아이들이 온달을 느티나무에 묶어 놓으니, 온달은 힘으로 나무를 뿌리째 뽑았다.
- d. 평강 공주가 어렸을 때, 울기를 잘하므로, 왕은 공주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농담을 하곤 하였다.
- e. 왕이 공주를 상부 고씨에게 시집보내려 하니, 공주는 부왕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 f. 공주는 부왕의 말을 먹이는 사람을 찾아가 부왕의 애마에게 재갈을 물려 바싹 마르게 하라고 한 뒤 대궐을 떠났다.
- g. 공주는 온달을 찾아가서 온달과 온달의 눈먼 어머니를 설득하여 함께 살았다.
- h. 공주는 가지고 간 패물을 팔아 살림을 일으키고, 온달에게 궁중에서 내다 파는 부왕의 애마를 사 오게 하여 잘 먹여 튼튼하게 길렀다.
- i. 공주는 온달에게 글공부를 시키고, 무술을 가르쳤다.
- j. 온달이 사냥 대회에 나가 호랑이를 잡아 장원을 한 뒤에, 공주는 온달을 데리고 대궐로 가 부왕의 허락을 받아 온달과 정식으로 혼인하였다.
- k. 온달이 충주 지역의 전투에서 신라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 l.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에 온달 장군이 가지고 놀던 공깃돌과 온달 장군의 말 무덤이 있다.

위 이야기는 <온달전>에 수록된 이야기에 덧붙여 온달 b 단락에서는 온달이 ‘바보’로 불리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원인은 그가 아둔하여 바보로 불린 것이 아니며 그의 평범치 않은 품성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c 단락에서 나무에 묶이자 나무를 뿌리째 뽑은 온달의 행위는 온달에게 잠재된 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주몽신화>에서 주몽이 금

---

85) 최운식, <온달설화의 전승양상>, 청담어문학 20, 1998, p.p.66-67. 에 기록된 것으로 최운식이 1997년 8월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미륵기 절터에서 그곳 주민인 이홍주(남, 68세, 중졸, 상업)씨로부터 채록한 이야기라고 하여 기록함. 구연자는 12년 전 건강상의 문제로 이 마을로 이사와 거주해왔는데, 이 이야기는 12년 전에 이곳에 와서 마을 노인들로부터 들었다고 기록자는 기록하고 있다.

와왕의 왕자들이 주몽을 미워하여 주몽을 산 속의 나무에 묶어놓고 오자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 끌고 왔다는 대목을 떠올리게 하여 앞서 존재하는 고구려 설화의 모티브가 수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공주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모티브로써 출궁 전 공주의 행동을 통해 <온달전>에서 추상적으로 그려지던 말과 관련된 공주의 능력담을 보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그녀의 행동은 과거의 고구려 설화에서 등장하는 ‘유화’의 충고에 따라 주몽이 말의 혀에 가시를 꽂아 말을 마르게 하는 화소와 맞물려있다. 이는 앞서 등장한 온달의 나무뽑기 화소와 함께 고구려 설화의 화소를 이어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달모를 눈이 멀었다 한 것은 온달의 기구한 삶의 형태를 보다 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주의 온달을 훈련시키는 대목도 글을 가르치고 무술을 가르쳤다는 등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도적인 공주의 태도는 온달이 사냥터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후 왕에게 직접 찾아가 혼인 허락을 받은 대목에서 더욱 강조되어 <온달전>보다 평강공주의 능력이나 그 주도적 행동이 더 강조되어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로 보면 이 설화는 <온달전>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뒷부분의 서사단락은 <온달전>과 달리 온달의 전쟁 활약담이 생략되고 ‘움직이지 않는 관 이야기’ 역시 생략된다. 대신 그 부분에는 충주지역과 관련하여 온달이 이곳에서 싸우다 전사한 증거물로 그 전투 사이에 온달 장군이 가지고 놀았다는 공깃돌과 장군의 무덤을 제시하고 있어 지역전설로 정착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이야기는 구비설화 중에서도 그 화소가 풍부하고 짜임새가 뛰어나다. 이것은 지역설화로 정착되면서 전설적인 증거물에 대한 신빙성을 피하기 위해 이야기를 재정비하고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각별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 2) ‘바보온달형’으로 전승되는 설화

본고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715-2 찾아온 아내 덕에 출세한 남편 이야기(바보 온달형)>로 분류된 20편의 설화 중 <온달전>의 핵심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한 작품 2작품을 <온달전>의 한 각편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들은 주인공은 다르게 등장하지만 <온달전>의 핵심화소로 분석한 1. 부친과의 갈등 2. 여성의 축출 3. 여성의 후원 4. 남성의 출세 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를 모두 포함한 이야기로 나머지 18편은 ‘바보 온달형’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 4가지 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86)

### ⑤ <숫장수 효자 이야기>87)

- a. 어느 산골에 30대 숫장수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 b. 하루는 장사를 하고 난 후, 숲길에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호랑이를 베고 있었다.
- c. 그 호랑이가 총각을 등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었다.
- d. 다음날, 장터에서는 고을원님의 사위 찾는 방이 붙었지만, 총각은 끼지도 못한다.
- e. 그냥 귀가하는 길에, 또 호랑이를 만나니 호랑이가 그를 억지로 등에 태워갔다.
- f. 호랑이가 그를 내려준 곳은 고을 원의 셋째 딸이 머무는 후당 앞이었다.
- g. 셋째 딸이 총각을 발견하고는 그가 자신의 인연이라고 여기고 그를 맞아들였다.
- h. 아버지에게 자기 남편감으로 소개하나 반대에 부딪혀 후당에 갇히게 되었다.
- I. 내쫓긴 총각이 집으로 돌아와 있으니, 셋째 딸이 총각의 집으로 찾아왔다.
- j. 여자는 집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보화로 살림을 하며, 남편을 공부시킨다.
- k. 남편은 공부를 해서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금의환향하였다.
- l. 장인 되는 원님은 이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빈다.
- m. 집에 가보니 부인이 혼자 숫장사를 해서 큰 집을 짓고 살고 있었으니 호랑이가

86) 앞서 연구범위 설정에서 제시한 핵심화소의 포함여부 분석표를 통해 2편의 설화를 추출하였다.

87) 한국구비문학대계 1-3 ‘숫장수 효자이야기’ p.p.201-215, 양평군 청운면 설화.

두 부부의 효성을 보고 금은보화를 내려준 것이었다.

위 이야기는 <온달전>의 서사단락과 비교했을 때 처음 솟장수 총각에 대한 소개는 <온달전>의 1단락인 온달의 소개부분에 해당된다. <온달전>에서 온달과 평강공주의 만남은 어린시절의 부왕의 희언에서 기인한다면 이 설화에서 총각과 셋째 딸의 인연은 부친의 셋째 딸 신랑찾기와 호랑이의 중매라는 민담적 화소에 의해 연결된다. 셋째 딸은 평강공주와 마찬가지로 남자주인공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이를 개발시키는 능력을 지닌 여인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부친의 반대와 집에서 패물을 지닌 채 나오는 것은 <온달전>과 공통된 점이다. 이 이야기는 전반부보다 결연담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쪽이 온달설화와 흡사하다. 단 차이가 있다면 <온달전>에서 공주는 온달을 무관으로써 입신시키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면 이 자료에서 셋째딸은 남편에게 글을 가르쳐 과거에 급제시킨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전승자들에게 있어 무관보다는 문관으로 과거에 장원급제하는 것이 가장 최고로 성공한 것으로 인식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구전자료에서의 여인의 남성내조담은 <온달전>의 그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눈물겹게 묘사된다. 여인은 패물을 팔아 살림을 꾸리고 온달의 공부를 내조하다가 결국 남편의 과거보러갈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카락마저 팔게 된다. 그럼에도 꾀꾀하게 남편이 과거보러 간 사이 노모를 효로 모시고 홀로 솟구이 장사까지 한다. 이런 여인의 효에 감복한 호랑이에 의해 금은보화를 받게 된다는 설화의 결과는 <온달전>에 비해 여성에게 그 긍정적 역할과 주도적 역할을 크게 부여한 대목이다. <온달전>이 평강공주의 노력이 등장하되 이에 부응되는 온달의 노력과 능력에 기인하여 결국 온달의 충성심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는데 비해 이 구전 자료는 똑같이 남성의 이름을 내세우되 여성의 역할을 더욱 극대화시켜 서술함을 알 수 있다. 부친과의 화해 대목에서도 <온달전>에서는 온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대목으로 해결되는 데 반해 여기서는 남성주인공의 위치가 오히려 부친보다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끝을 맺는다. 이것 역시 사

람을 알아볼 줄 아는 여인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⑥ <송장군 이야기><sup>88)</sup>

- a. 이완 장군의 서녀 혜경은 서녀라는 신분 때문에 시집을 못갔다.
- b. 자기 패물을 처분하여 강원도까지 내려왔다가 송장군의 활쏘는 모습을 보고 점찍다.
- c. 혜경은 송장군을 대감집에 들여보내고 피를 써서 오백냥을 얻어오도록 하였다.
- d. 혜경은 송장군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혼자 집으로 들어가버리다.
- e. 송장군이 무작정 담을 넘어 혜경에게로 갔다.
- f. 송장군은 혜경의 부친인 이완 장군과 대작하고 돌아가다, 담장 옆에서 피를 써서 다시 들어갔다.
- g. 송장군의 기지로 이완 장군에게 오백냥을 얻고 장군의 호의를 얻게 되었다.
- h. 이완장군의 허락 하에 혜경으로부터 글을 배워 시험에 합격했다.
- I. 혜경과 행복하게 살고 이완장군의 부장이 되어 공을 많이 세우게 되었다.

위 이야기는 실제 역사적 인물을 이야기의 중요 인물로 끌어들이 사실성을 추구한다. 이 자료에서는 처음에 여성주인공에 대한 서술로 시작한다. 반면에 <온달전>에서의 온달의 소개단락에 해당되는 남자주인공에 대한 소개가 생략되어져있다. 이는 앞서 소개한 ① ‘숫장수 효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남성 주인공에 대한 설명 없이 여성주인공으로부터의 이야기의 시작에 구연자들이 아무런 이야기 전개상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함을 보여준다.

혜경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남편을 탐색하는 여성으로 이는 평강공주의 온달 탐색담과 비슷한 형태이다. 평강은 온달을 염두에 두고 온달이 사는 곳으로 찾아간다. 그리고 혜경은 송장군을 보자마자 그 사람됨을 알아보고 남편으로 삼았다. 이것은 두 이야기 모두 여성이 지인지감의 능력을 발휘하는

---

88) 한국구비문학대계 7-1 ‘송장군 이야기’ 경북 월성군 산내면 편, p.p. 578-587.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혜경의 신분은 장군의 서녀로써 <온달전>의 공주라는 신분에 비해 극히 낮아진 신분의 여인으로 그려진데다가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서방을 구할 수 없는’ 여인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혜경의 신랑탐색담은 목마른 사람이 자기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러나 송장군과의 관계에서 혜경이 더 높은 신분으로 그려진다는 점과 부친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온달전>의 평강과 온달의 관계와 유사하다.

혜경의 가출과정은 혜경의 적극성은 보여주되 공주의 출궁과 같은 제약은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남편감을 찾아가는 여성의 절박함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평강 공주와 같은 부친의 반대는 오히려 뒷부분에서 등장한다.

혜경은 피를 써서 송장군이 재물을 얻도록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송장군의 능력을 시험한다. 송장군은 자신의 지혜를 혜경의 집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발휘한다. 능력을 보여주는 두 부분은 모두 송장군과 배짱과 피를 증명하는 부분인 동시에 혜경의 지혜로움과 지감력을 증명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재물을 계속적으로 획득하게 된다. 재물축적담은 집 나온 여성이 남자를 만나 그 집안의 재물을 불린다는 <내 복에 산다> 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내 복에 산다> 형과 달리 이 설화는 부의 축적이 아닌 송장군의 출세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이것은 <온달전>이 온달의 부축적보다 온달의 입신양명에 무게를 두는 것과 같다. <온달전>의 평강의 배짱과 견줄만한 혜경의 배짱은 공통적이지만 송장군은 능력 뿐 아니라 온달에 비해 훨씬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인물형이라 할 수 있다.

혜경이 송장군에게 글을 가르치는 대목은 <온달전>의 공주의 말 고르기담의 변이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대목이 회화화 되어있어 전체적으로 해학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온달전>에서는 온달이 사위로 인정받은 후 전장에서 전사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면 송장군은 ‘혜경과 행복하게 살고 공을 많이 세웠다’라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 <온달전>의 결말과 차이가

난다. 이는 행복한 결말을 추구하는 전승자들의 의식이 결합된 결말이라 할 것이다.

### 3) ‘내 복에 산다’ 의 하위 유형에 속하는 설화

이 설화는 ‘온달’ 이름으로 전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달설화라기보다는 <내 복에 산다> 형에 속하는 설화로 볼 수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는 <715-1 백제 무왕형> 설화로 분류되어 있다.

#### ⑦ 바보 온달(3)<sup>89)</sup>

- a. 정승의 딸이 시골에 사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가겠다고 하여 오빠가 그녀를 온달에게 데려다 주었다.
- b. 그녀는 솥을 굽는 온달과 혼인하여 함께 살았다.
- c. 여자가 금불이를 내놓으며 그것을 팔아 살림을 일으키자고 하니 온달이 자기가 일하는 솥구덩이에 그런 게 많다고 하였다.
- d. 여자가 솥구덩이에 가보니 금덩이가 많이 있어 그걸 팔아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

이 이야기에서 평강공주의 신분은 정승으로 내려가 있지만 온달의 신분이 미천하고, 여자의 신분이 고귀하다는 점에서는 <온달전>의 이야기와 공통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온달전>의 서사와는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c단락에서 공주가 금불이를 내놓아 살림을 일으키는 단락까지는 일치하나 그 금불이를 보고 온달이 자기가 일하는 곳에 그런 게 많다고 한다는 점은 <온달전>의 내용보다는 백제 무왕 설화인 <서동 설화>와의 유사성이 드러난다. 이 이야기에서는 온달의 활약담이나 출세담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냥터 활약담이나 전쟁담 그리고 움직임이 없는

---

89) 한국구비문학대계 8-14 ‘바보 온달’, 하동군 화개면 설화 편, (p.p. 186-187)

관 이야기가 생략되어진다.

이 이야기는 비록 남자 주인공의 성명이 온달로 되어있지만 <온달전>의 내용과는 다르게 변이된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슷한 유형으로는 최운식이 채록한 온달 이야기 중 1개(바보 온달에게 시집간 정승의 딸)로 두 이야기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어지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앞의 정승 딸의 축출이 보다 더 자세히 서술된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의 형태는 널리 구전되고 있는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와 밀접하다.<sup>90)</sup> 이들 설화의 유형은 ‘1.집에서 쫓겨난 여인이 2. 남주인공을 만나 3. 금괴 혹은 금덩이를 발견하여 4. 행복하게 살았다’로 정리할 수 있다. <온달전>의 내용을 이 유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 이 유형에 맞춰 서사단락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왕의 말을 거역한 공주는 궁에서 나왔다.
2. 공주는 미친한 온달을 만나 혼인하였다.
3. 공주는 가지고 온 폐물로 살림을 일으키고, 온달을 가르쳤다.
4. 온달이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벼슬이 크게 올라 잘 살았다.

이렇게 보듯이 <온달전>의 내용은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같은 계열의 설화로 보고 연구하는 설화 연구자들도 많다. 이러한 점은 <온달전>의 성격이 지극히 설화적이라는 의견의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준다. 그러나 <온달전>이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와 같은 계열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설화의 유형의 변이가 매우 심하고 그 주제의식이 <온달전>은 ‘기존 질서에서의 인정과 참가의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의 주제의식은 다분히 ‘부의 축적’ 혹은 여인의 타고난 복을 중심으로 ‘여성의 주체의식’의 발현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이 둘을 같은 유형으로 묶어서 보는 것은 무리한 감이 있다. 따라서 ④의 자료의 경

---

90) 최운식, 앞의 논문, p.71

우에는 주인공의 이름이나 신분, 여주인공의 역할적인 측면만을 <온달전>으로부터 전승하고 구성적 측면에서는 다른 유형으로 변이된 설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는 <온달전>이 <내 복에 산다> 형으로 변이 정착되거나 <내 복에 산다> 형으로 전승되어오던 형태의 자료로써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3. 문헌과 구비물의 전승양상과 주제의식

이제 문헌설화와 구비설화의 서사 비교를 통해 총체적으로 온달전의 전승양상과 주제의식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문헌설화와 구비설화 비교

서사 단락	삼국사기	동국여지승람	명심보감	구비설화						
				자료 ①	자료 ②	자료 ③	자료 ④	자료 ⑤	자료 ⑥	자료 ⑦
1. 온달 소개	0	0	0			0	0	0		
2. 부왕의 희언	0		0	0	0		0		△	
<b>3. 공주와 부왕의 갈등</b>	<b>0</b>		<b>0</b>	<b>0</b>	<b>0</b>	<b>0</b>	<b>0</b>	<b>0</b>	<b>△</b>	<b>0</b>
4. 공주와 온달의 결연	0	0	0	0	0	0	0	0	0	0
<b>5. 공주의 능력발휘과 내조</b>	<b>0</b>		<b>0</b>	<b>0</b>	<b>0</b>	<b>0</b>	<b>0</b>	<b>0</b>	<b>0</b>	<b>△</b>
6. 온달 사냥터 활약	0						0		0	
7. 온달의 성공	0	0	△	0	0	0		△	△	
8. 온달의 죽음	0	0		0	0	0	0			
9. 관이 움직이지 않음	0	0			0					
10. 온달의 공깃돌, 말 무덤 존재							0			

사기의 기록을 문헌설화의 기본텍스트로 삼고 보았을 때 구전설화와의 비교는 문헌설화와 구전설화간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온달의 이름이

등장하는 설화는 비교적 사기의 서사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온달이 등장하지 않지만 온달설화의 핵심화소를 포함하고 있는 설화 ⑤⑥의 경우는 민간전승에서 소거된 부분과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확실히 드러난다.

이것은 같은 유형의 설화가 어떤 집단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느냐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전하는 <온달전>은 기존에 민간에 전승되던 민담인 <내 복에 산다>형 설화의 차용과 실제 역사적 인물인 온달에 관한 기록이 결합되어 각색된 작품이다. 김부식 및 『삼국사기』의 집필자들은 「열전」을 통하여 유교적 가치관의 확립과 나아가 국가적 통합을 꾀했다. <온달전>도 작품이 속한 5조의 경우 나라에 충성을 다한 인물들과 함께 엮여 기록된 것으로 그 입전 의도가 온달이라는 고구려의 영웅적 인물을 통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고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달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는 미천한 신분에서 상승하여 나라의 높은 벼슬인 대형에까지 이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가 무예를 통해 신분을 상승시켰고 그가 정치세계로 입문하는 과정에 3월 3일의 사냥대회가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온달전>은 당시 고구려의 신분체계와 정치제도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고구려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다. 단 무예를 숭상하는 국가적 분위기에서 무장만은 신분에 상관없이 무예의 거름을 통해 발탁되어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온달의 신분상승 역시 고구려의 이런 제도에 기대어 있다.

그러나 <온달전>은 온달보다 평강공주가 주동적 인물에 놓여있다. <온달전>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평강에게 있다. 평강의 주도적 행동은 출궁과 특출한 능력에서 엿보인다. 이런 평강의 모습은 <온달전>이 <내 복에 산다>형 설화를 차용한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래서 평강의 모습에서는 <내 복에 산다>형 설화의 여성의 특징이 드러난다. 그것은 ‘금’과 ‘남편감 탐색담’이라 할 수 있다.

문헌설화의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로 여겨지는 삼국사기의 <온달전>은 평강과 온달 두 인물 모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평강의 모습에서는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의 여주인공의 모습이 드러나고 온달에게서는 전설적 인물이 역사 기록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온달전>의 주제의식은 결국 온달의 맹세와 비극적 죽음에 의해 투철한 충(忠)의 정신으로 완결된다. 온달의 죽음과 남겨진 평강의 모습은 일상적으로는 비극이지만 <온달전>에서는 비극적이지 않다. 온달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었고 평강은 원하던 아버지의 인정을 얻었다. 그것으로써 두 인물의 추구하는 바는 모두 이룬 것임으로 그들에게는 비극이 되지 않는다. 이후에 기록된 문헌의 온달설화 역시 유교적 충이나 여성으로써의 절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록되며 <온달전>의 서사단락과 유교적 가치의 강조라는 주제의식을 그대로 전승하는 형태로 전해진다는 것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온달전>은 한문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은 이 문헌을 읽을 수 있는 층이 지식인이나 집권층들로 국한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헌상에 전승되는 온달설화는 후대에도 문헌으로 기록되면서 기록자의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었음에도 <온달전>의 틀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온달행적의 강조를 통한 충을 강조했다. 그리고 교육서로 지어진 『명심보감』에서는 평강공주의 행적을 기록하여 여인으로써의 지혜의 갖추에 대한 권고와 허언에 대한 질타 등 윤리의식 고양에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구전 설화에서 전승되는 온달설화는 문헌과는 다른 주제의식을 보인다. 이것은 온달이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설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 ‘온달로 구전되는 설화’는 다소 서사전개의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온달전>의 서사를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주인공이 온달과 평강으로 설정되었다는 점과 전쟁담을 다룬다는 점에서 <온달전>과의 직접적 영향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전설화에서는 그 구체적 지역이나 역사성과 시대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구전설

화의 전승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문헌설화의 주제의식이 아니라 여성의 주체적 의지에 의한 남편감 선택과 온달이라는 인물의 성공 등 흥미 있는 화소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쟁담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된다든지 공주와 온달의 결연과 온달의 성공담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와 같이 식자층이 아닌 일반백성들에게는 인물이나 시대의 정확성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이야기의 인물이 굳이 ‘온달’이나 ‘평강’이 아니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래서 <온달전>의 서사단락 가운데서도 흥미를 끌고 현실적인 민중의 욕구를 반영해주는 단락만이 강조되어 전승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예로 표에서 보듯이 구전 설화는 <온달전>의 정치·사회적인 면이 드러나는 후반부는 생략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앞부분의 인물소개담도 생략과 축소를 보인다. 반면에 3-5단락의 결연담, 부축적과 성공담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는 서민층에서 중시하는 바가 ‘세속적 성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성은 매우 우둔하거나 소극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여성은 지혜롭고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삶을 개척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리고 비록 <온달전>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능력적인 간격을 확대해 나타낸다.

구비 설화의 전승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여성이 부친과 신랑감을 두고 갈등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남성을 찾아 결국 행복해진다는 것에 있다. 구비설화의 주제의식은 여성의 주체적 행동에 있다. 여성의 지혜로움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 모두 행복해진다는 것은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의 하위갈래에 이 설화가 함께 거론되는 근거가 된다. 단 온달설화와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의 가장 큰 차이는 온달설화는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딸의 복에 관한 문답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남성의 출세담이 온달설화에는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구전설화의 전승양상은 현대에서도 ‘온달’이 ‘우둔하고 소극적이고 무능력한 남성상’을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말로 사

용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릴 때 매우 의미심장하다.

온달설화는 문헌과 구전설화가 공존해서 전승되어왔을 것이다. 한문이라는 표기의 특성으로 인해 지배층을 중심으로 전승된 문헌설화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인 충(忠)의식이나 열(烈)의식을 반영하며 전승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문헌설화의 기본텍스트가 되는 <온달전>은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우의적으로 기록한 온달에 관한 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구전설화는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의 한 유형으로써의 온달설화와 동일한 서사를 보이면서도 다른 주제의식을 보인다. 그 전승양상에서는 여성의 주체적 행동, 세속적 행복의 추구 그리고 능력과 신분의 차이가 있는 남녀간 결연담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그리고 이들 화소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주체적 행동을 주제로 하여 전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II. 온달설화의 현대문학적 변용양상의 다양성

설화의 현대문학적 변용은 근래에 들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설화는 문학의 근거를 이룬다. 그러나 모든 설화가 현대문학화되는 것은 아니다. 온달설화는 현대문학으로 변형이 활발한 설화 중 하나이다. 온달은 소설, 희곡, 시로 변이·수용되었는데<sup>91)</sup> 본 연구에서는 온달설화의 계승적 차원에서

---

91) 작품을 찾는 과정에서 찾게된 온달 설화와 관련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시의 경우 많은 수의 작품이 발견되었지만 온달설화와 서사전개면에서 비교하기에는 시라는 장르의 특성상 불가능하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온달설화는 동화로도 다수 각색되었지만 동화작품목록은 본 논문의 기록에서 제외한다.

#### 소설

김지원 <편강공주와 바보언달 이야기>, 『정통한국문학대계』 60권, 1985.

김승욱 <무진기행>

전상국 <우리시대의 온달>, 『우리시대의 온달』, 작가정신, 1994.

조령출 <온달전>, 『온달전』, 평양: 문예출판사, 1984

이상훈 <영웅 온달 1,2,3>, 이화문화사, 2004.

#### 희곡

최은옥 <평강의 푸른피리>(희곡), 『옥랑 희곡상 수상작품집 제 3, 4회』, 옥랑문화재단, 2002.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최인훈전집 10 『옛날 옛적 휘어이휘이』, 문학과지성사, 1979.

창작된 작품 중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4편을 선별하여 검토해본다. 최인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최은옥의 <평강의 푸른 피리>, 김지원의 <편강공주와 바보언달 이야기>, 조령출의 <온달전>이 그 대상 텍스트이다. 최인훈의 작품은 현대소설을 대표하는 소설가의 희곡작업이라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다소 이루어진 실정이다. 그러나 기타 다른 작품의 경우 김지원의 작품에 대한 한편의 소논문은 제외하고는<sup>92)</sup> 그 연구가 거의 없어 고전문학을 수용한 작품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보여준다.

먼저 각 작품의 서사구조를 분석하고 온달설화의 서사구조와 비교한다. 설화를 그대로 수용하였는지 아니면 설화의 각 요소만을 부분적으로 차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설화와 패러디 작품간의 주제의식과 변용 상황을 추출하도록 한다.

---

최인훈 <溫達>, 『현대문학』, 1969.

**시**

권천학 <사랑의 답-나의 온달에게> (진단시동인 테마시집, 『서동에서 등잔까지』, 시문학사, 1991)  
 권천학 <돌달 한 채-온달>, 뿌리시선:26 「가이아 부인은 와병중」 뿌리, 1994.  
 김규화 <溫達님> (진단시동인 테마시집, 『서동에서 등잔까지』, 시문학사, 1991)  
 문충성 <바로 온달>, 『선문대할망』, 문학과지성사, 1993.  
 문효치 <溫達序詩> (진단시동인 테마시집, 『서동에서 등잔까지』, 시문학사, 1991)  
 박경석 <나와 溫達이 만나는 자리>, 『아내의 잠』, 민음사, 1987.  
 박라연 <서울에 사는 평강공주>, 박라연 시집 『서울에 사는 평강공주』, 문학과지성사 1990.  
 박진환 <온달의 노래> (진단시동인 테마시집, 『서동에서 등잔까지』, 시문학사, 1991)  
 서정주 <바보 溫達 大兄의 죽음을 보고>  
 신규호 <바보 하늘소-溫達의 獨白> (진단시동인 테마시집, 『서동에서 등잔까지』, 시문학사, 1991)  
 윤석산 <溫達傳> 연작시 11편  
 : 부제 - 온달의 집, 온달의 노래, 온달의 꿈, 平岡王의 말, 평강공주의 말, 그 어머니의 말, 온달의 변신,  
 또 하나의 변신, 온달의 회상, 온달의 鬪魂, 온달의 죽음……『온달의 꿈』, 정음사, 1986.  
 (윤석산 『견딤에 대하여』, 시선사, 2004. : 온달연작시 재수록)  
 유승우 <온달의 변모> (진단시동인 테마시집, 『서동에서 등잔까지』, 시문학사, 1991)  
 임 보 <溫達遺音-아내에게> (진단시동인 테마시집, 『서동에서 등잔까지』, 시문학사, 1991)  
 정의홍 <溫達의 울음> (진단시동인 테마시집, 『서동에서 등잔까지』, 시문학사, 1991)  
 홍해리 <온달> (진단시동인 테마시집, 『서동에서 등잔까지』, 시문학사, 1991)

92) 김현실 외, <한국패러디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6

## 1. 여성 주체성에 대한 탐색

### 1) 김지원의 <편강 공주와 바보 언달 이야기>와 <은달전>의 주제의식 비교<sup>93)</sup>

김지원의 작품은 1985년 작가가 53세의 나이에 발표한 작품이다. <편강 공주와 바보 언달 이야기>라는 제목을 통해 주인공의 이름이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작품의 풍자적 성격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8쪽의 짧은 분량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1. 편강공주는 부왕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다.
2. 왕은 밖에서는 어진 왕이지만 안에서는 아내를 박대하는 남편이었다.
3. 공주는 세상이 자신을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면서 슬픔에 울어대곤 했다.
4. 왕은 공주가 울 때마다 습관처럼 바보언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말했다.
5. 언달은 왕까지도 아는 유명한 바보였다.
6. 성장하면서 공주의 아름다움과 총명과 슬기는 날로 더해갔다.
7. 왕은 공주를 용맹한 장군과 맺어줌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8. 공주는 어린 날의 부왕의 희언을 들어 언달에게 시집가겠다고 한다.
9. 왕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왕비는 아무 방패막도 되어주지 못한다.
10. 공주는 어머니가 짜준 패물과 비단옷 보통이를 안고 쫓겨난다.
11. 공주는 언달의 집을 찾아가 함께 살게 해달라고 청한다.
12. 언달과 언달모는 둔갑한 여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13. 하룻밤 사이에도 계속 기다린 공주를 받아들인다.
14. 공주는 패물을 팔아 큰 집을 짓고 땅을 사서 곡식을 심었다.
15. 언달은 번듯한 장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공주가 두 모자를 예로 대하니 동네사람들이 언달모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16. 언달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공주의 말대로 궁중의 말을 사들이고 무술훈

---

93) 김지원. <편강 공주와 바보 언달 이야기>, 「정통한국문학대계」 60권, 1985.

련을 하고 글공부를 했다.

17. 공주가 집을 나간 후에도 왕의 분노는 가시지 않았고 그때마다 왕비는 움츠러 들고 그 앞에 얼씬거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딸의 행복을 기원했다.

18. 무술대회가 열리는 날 언달은 왕의 눈에 띄어 불려갔다.

19. 왕은 언달임을 알고 놀라고 할 수없이 상을 내리고 돌아갔다.

20. 공주는 남편으로부터 아버지 애길 듣고 자기가 아버지의 귀염둥이 딸이 아니라 늙은 사나이의 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을 기뻐했다.

21. 언달은 이웃나라와의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우고 높은 벼슬과 왕의 신임을 얻었다.

22. 왕은 일신상의 약점과 두려움을 딸때문이라고 이유를 붙여 성질부리고 비통해 해왔기에 딸을 만나지 않았다.

23. 왕은 딸에게 베풀고 싶은 사랑을 언달에게 베풀었다.

24. 언달 장군은 왕에게 간하여 함께 전장에 출정했다.

25. 싸움마다 승전하다 어느날 왕이 적병이 쏜 화살에 맞아 즉사했다.

26. 왕의 시체를 옮기려하나 관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27. 달려온 공주가 입고 있던 치마를 벗어 관 위에 덮고 위로하니 관이 들렸다.

28. 언달은 왕이 되고 공주는 왕비가 되었다.

29. 언달은 태평성대를 이루어 백성의 사랑을 받았다.

30. 중년이 된 언달과 공주는 겉으로는 좋은 한 쌍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31. 언달은 공주가 결혼을 하나의 성취로 보았고 공주 곁에서 한시도 편한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32. 공주는 언달이 자신의 거울이고 꿈의 실체라고 고백하고 언달을 통해 자신의 일생을 살아왔다고 말하며 흐느낀다.

33. 언달은 자신들은 원수관계라며 슬프게도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 자신들 사이에 있다고 말한다.

34. 그즈음엔 왕의 명을 받고 맑은 처녀를 찾으러가는 궁중사람들이 성문을 나서고 있었다.

김지원의 작품은 여성의 자아정체감 획득의 방법에 대한 진지한 일갈을 담은 작품이다. 이후 제시할 최은옥의 작품이 온달의 죽음이라는 비극 속에

서 평강에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부여했다면 김지원은 평강을 통해 스스로 독립적인 자신의 길을 걷지 못한 여성이 중국에 겪는 불행을 충격적으로 제시한다. 여성의 진정한 자아 찾기의 방식은 무엇인가라는 동일한 질문에 대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답이라 할 수 있다. 김지원의 시선은 보다 더 냉철하고 차갑다. 남성에게 의지해 이루어지는 자아정체감의 획득이라는 변질된 방법은 파국적 결말로 치달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여성들에게 위기감과 자각심을 일깨우는 효과를 도린 전개라 할 수 있다.

작품은 제목에서도 그 풍자성이 두드러진다. 작가는 고전의 평강과 온달의 속성을 가지고 오되 그것이 고전에서 받아들여지던 성격과 현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같을 수 없음을 이름의 변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편강과 언달은 고전의 평강과 온달의 속성을 이어받았음에도 현대성을 지니는 인물로 재창조된다.

서사전개상으로 이 작품의 서사는 <온달전>의 서사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간다. 즉 서사의 역전 현상도 보이지 않고 <온달전>의 서사전개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그 결말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서사단락을 표로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이 그 서사의 차이가 나타난다.

<온달전>	<편강공주와 바보언달 이야기>
1. 온달의 소개	1a. 공주의 소개
2. 평강에 대한 부왕의 희언	2. 평강에 대한 부왕의 희언
3. 평강과 부왕의 갈등	3. 평강과 부왕의 갈등
4. 평강의 출궁	4. 평강의 출궁
5. 평강과 온달의 결연	5. 평강과 온달의 결연
6. 평강의 능력 발휘와 내조	6. 평강의 능력 발휘와 내조
7. 온달의 성공(사냥터, 전쟁터)	7. 온달의 성공(사냥터, 전쟁터)
8. 온달의 전투출정	8. 온달의 전투출정
9. 온달의 죽음	9a. 부왕의 죽음
10. 온달관이 움직이지 않고 공주가 위로하자 움직였다.	10a. 부왕의 관이 움직이지 않고 공주가 위로하자 움직였다.
×	11. 온달은 왕이 되고 공주는 왕비가 된다
×	12. 걸으론 행복해보이지만 왕비는 온달에게 무시당한다.
×	13. 온달은 새로운 처녀를 구한다.

소설의 서사전개는 단락상으로는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작가의 주제의식에 집중되어 서술되고 있다.

이 작품은 철저히 여성의 자아정체성 탐색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인물의 소개단락에서 온달이 아닌 공주가 소개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온달전>에서는 온달이 서두에 소개되지만 이 작품에서는 공주가 소개된다. 공주는 부왕의 사랑과 귀여움을 한껏 받는다. 그러나 이런 부왕의 애정은 자기가 편한 식으로 베푸는 애정이다. 공주는 부왕을 만날 때는 늘 각별히 잘 돌봐진 상태로 부왕을 만나곤 했다. 공주의 어머니는 가정 내에서 수동적인 자세로 부왕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공주가 소극적이고 남성에게 종속된 여성의 삶이 싫어 궁궐을 뛰쳐나가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온달전>과 마찬가지로 편강공주 역시 울보이다. 그러나 편강공주의 울음은 습관이 아닌 이유 있는 울음이다. 공주는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은 자기만의 것이 없으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없다는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며 울음을 터뜨린다. 어린아이의 울음이 욕망의 한 표현도구라면 편강공주의 울음은 자신만의 것 혹은 자신을 위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으로 작품에서 이용되고 있다.

왕은 공주의 결혼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고 자신의 성취의 도구로써 이용하려는 부왕의 모습 역시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 성장한 공주는 어린 시절 아무것도 자신만의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슬픔에 우는 울음 가운데 들었던 언달의 이름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바보로 지칭되는 언달만은 완전한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무의식적 인식에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공주가 성장하여 결혼문제로 부친과 갈등하는 것은 설화와 동일하다. 비로소 공주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억눌려 사는 삶으로부터의 탈출을 도모한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가부장 의식과 자식에 대한 소유욕, 어머니의

슬픔을 똑바로 바라보고 깨닫게 된다.<sup>94)</sup>

저는 부귀와 명예있는 분에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들 속에 사는 어머니의 비통함을 보았습니다.(김지원, <편강공주와 바보 언달 이야기>, p.96)

정면대응의 결과 공주는 아버지로부터 내쫓긴다. 아버지에게 억눌려 사는 어머니는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한 채 울며 딸이 가져갈 패물을 몰래 싸주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편강의 어머니는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에게 억눌려 사는 여성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의 탈출의 모색과 자신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편강이 취한 방법은 또 다른 남성에 기대어 있다. 이것은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아버지-딸의 관계도가 남편-아내의 관계도로 그대로 이양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가부장 사회 내의 결혼제도라는 것은 결국 대상의 변화만 있을 뿐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후의 서사 전개는 8단락의 온달의 출정까지 동일하다. 그러나 <온달전>에서는 온달이 화살에 맞아 죽지만 김지원의 작품에서는 부왕이 화살에 맞아 죽는다.

부왕의 움직임이 없는 시체를 편강이 위로한다. 편강의 위로는 자신이 늘 아버지에게 속했고 아버지에게 대한 애정을 보이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sup>95)</sup>

---

94) 김현실, <운명적 사랑과 자아성취에 대한 현대적 물음>, 「한국페러디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6. p.37.

95) 공주가 부왕의 관을 위로하는 장면은 <온달전>의 장면과 다르다. 작품 속에서 편강의 위로장면은 <온달전>이 아닌 민담에서 전승되던 황진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는 관 이야기의 모티프를 드러낸다. 황진이는 죽은 남자의 관위에 자신의 속옷치마를 덮어 위로하였다. 편강이 자신의 치마를 관위에 덮는 행위는 오히려 황진이의 행위와 관련된다고 보이며 작가가 이를 차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공주가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언달이 보낸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중략)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면 언제나 명절날 같았어요. 그 좋은 기억은 저로 하여금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당신은 제게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공주는 입고 있던 치마를 벗어 관 위를 덮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관이 들렸습니다. (김지원, <편강공주와 바보 언달 이야기>, p.100)

왕은 언달을 사위로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편강의 궁궐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딸에게 베풀고 싶은 사랑을 언달에게 베풀’었다. 이것은 왕이 지닌 강력한 남성 중심적 사고와 더불어 가부장적 의식을 보여준다. 부왕의 시체가 움직이지 않고 편강의 위로 이후에야 움직였다는 것은 그가 지닌 생전에는 떨칠 수 없었던 자기중심적 사고와 부녀간 갈등의 해소를 의미한다.<sup>96)</sup>

11-13의 단락은 이 작품에서 새롭게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인 부분이다. 작가는 언달을 왕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편강 역시 여성으로써 국가 내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한다. 함께 늙어가면서 곁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보기 좋은 한 쌍’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덧붙은 단락은 과거 편강의 부친과 어머니의 관계를 그대로 재현한 모습이다. 왕이 된 언달은 이제 과거처럼 ‘고분고분’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며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sup>97)</sup> 공주는 자신의 성취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느낀 그 순간 불행해진 자신을 만난다.

“저는 당신에게 시집온 이래 항상 앞날을 설계하고 계획하며 살아왔습니다. 집을 짓고 땅을 사고 당신이 출세하시고, 이런 것들을 원한대로 노력하였으며 하나씩 힘들게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행해졌습니다.” (김지원, <편강공주와 바보 언달 이야기>, p.101)

그러나 이런 편강의 고백에 언달은 ‘당신은 결혼을 하나의 성취로 보았’다고 나무란다. 또 그는 지금까지 아내의 계획과 설계 속에서 순종적으로 살았던 자신은 단 한순간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남편의 태도에 아내는 두려움을 느낀다. 자신의 ‘거울’이고 자신의 ‘꿈의 실체’이며 그를 통

---

96) 왕은 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일신상의 약점과 두려움을 딸 때문이라고, 한 가지로 이유를 붙여 성질부리고 비통해 하며 사는 데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딸을 도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김지원, <편강공주와 바보 언달 이야기>, p.100)

97) “당신은 제가 무엇을 말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제가 말하는 도중인데 자리를 뜨십니다. 주위사람들의 눈도 있는데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언달은 활활 옷을 벗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비단 금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감히 시중을 들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남편이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왕비는 아내로서 남편의 시중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김지원, <편강공주와 바보 언달 이야기>, p. 101)

해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아내를 막상 남편이 돌변하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흐느낌’뿐이다. 이 ‘흐느낌’은 어린 시절 그녀가 세상에 자신의 것은 없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울음’의 또 다른 변형이다. 결국 그녀는 어린시절에서 단 한발자국도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언달은 자신들의 관계를 ‘원수’로 규정한다. 그들 사이의 거리감은 바로 여기서 기인되는 것이며 둘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별개이며 화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원수를 만난 것이며, 그 원수란 자신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이요. 아내여 슬프지 아니한가요, 우리가 서로에게서 끌어내는 원수란 자기 속에 있는 제 자신이니 아무리 애써도 흘러버린 무엇이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요.” (김지원, <편강공주와 바보 언달 이야기>, p.102)

결혼은 인생의 궁극적인 성취가 될 수 없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남편 혹은 자식은 자신의 이상이나 자아 성취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자신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 타인을 통한 성취는 결국 한계를 지닌다. 궁극적인 자아성취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룩하고자하는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결국 작품의 처음과 시작에서 보이는 편강공주의 울음은 삶에 대한 여성들의 어리석고 유아적인 대응태도<sup>98)</sup>와 타인에게 기대는 자아성취방식의 한계를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작품은 <운달전>의 언달과 평강의 관계에서는 보이지 않던 부부간의 갈등을 상상을 통해 드러낸 작품이다. 부부간의 갈등은 부녀간의 갈등의 또 다른 모습이다. 두 가지의 갈등은 궁극적으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적 의식과 여성의 자각 간의 갈등이 핵심을 이룬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자신의 자아를 찾는 옳은 방식은 결국 적극적인 자아를 찾아나가는 것뿐이라고 작가

---

98) 김현실, <운명적 사랑과 자아성취에 대한 현대적 물음>, 「한국 패러디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6. p.41.

는 역설하고 있다.

## 2) 최은옥의 <평강의 푸른 피리>99)

<평강의 푸른 피리>는 2002년 옥랑희곡상 수상 작품이다. 희곡은 평강역할을 하는 배우의 1인극으로 진행된다. 작품의 서사단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숲 속, 평강이 온달과 처음 만난 숲에서 온달의 관을 앞에 두고 앉아있다.
  - 1.1. (과거) 온달은 평강을 불여우라고 생각하고 거부한다.
2. 온달은 세상 속에서 권력을 도모하지도 않고 먹기 위해 사냥하기를 거부한다.
  - 2.1. 동냥으로 연명하기에 ‘바보 온달’이라고 놀림을 받았다.
3. 평강은 자신이 온달을 찾아간 것에 대해 미안함과 후회로 복잡한 심정을 토로한다.
4. 평강은 온달을 찾아가 온달을 교육시킨다.
5. 평강은 온달을 설득해 사냥터와 전쟁에 참가하여 큰 공을 세우도록 한다.
6. 온달은 대장군이 되고 온 백성이 그를 경외한다.
7. 온달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평강은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었다.
  - 7.1. 평강은 온달을 남편이기 이전에 자신의 새끼라고 여길 뿐이라고 말한다.
  - 7.2. 평강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부왕인 지철로 왕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8. 평강은 온달 생전에 온달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
9. 어린시절의 평강은 피리 불기를 즐기는 고집 센 여자아이였다.
10. 부왕인 지철로 왕은 어린 평강을 매우 사랑하였다.
11. 홀로 몰래 숲속에 가서 피리를 불다가 평강은 한 남자에게 범해져 사생아를 낳는다.
12. 부왕에 의해 탐에 갇히고 피리와 아이를 빼앗기게 된다.
13. 이 일로 인해 평강은 부왕과 남성과 권력의 횡포 모두에게 증오심을 느끼게 되었다.
14. 지철로 왕은 서자 출신의 왕으로 왕위계승을 위해 친족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15. 그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자신의 (남성적)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기도 하다.

---

99) 최은옥, <평강의 푸른피리> ; 「옥랑희곡상 수상집 제 3회·4회」, 옥랑문화재단, 2002. p.p.134-201

16. 그의 음경은 한자 다섯 치의 크기로 이는 그가 여성을 취할때마다 그 크기가 점점 커진 결과이다.
17. 그의 음경은 왕국 제일이 되었지만 이제 그에겐 그의 음경을 감당할 수 있는 여인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그는 고통 받고 황폐해졌다.
18. 평강은 궁중여인의 삶을 버리고 가출한다.
19. 온달은 평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전하여 전사한다.
20. 평강은 온달이 자신이 권력에 대한 야심이 있다고 의심하여 무모한 출전을 한 것이라고 여긴다.
21. 평강은 온달의 무모한 출전과 죽음이 자기 탓이라고 여기며 통곡한다.
22. 온달의 영혼이 평강을 달랜다.
  - 22.1. 온달은 스스로 원해서 평강의 아들이 되었으며 하인이 된 것이라 말한다.
  - 22.2. 평강의 뜻대로 따르는 사이 온달의 음경은 점점 강하고 크게 자랐지만 기뻐하지 않았다.
  - 22.3. 온달은 평강을 여자로 바라본다는 것에 스스로 죄책감과 모욕을 느꼈다.
  - 22.4. 온달은 차라리 죽음이 편만한 휴식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23. 평강은 온달 몰래 숨겨놓았던 피리를 이제 꺼내어 불겠다고 말하고 떠난다.

### (1) 최은옥 작품과 <온달전>의 서사적 변이

<평강의 푸른 피리>는 온달이 죽은 시점을 ‘현재’로 잡아 서사가 진행된다. 온달의 관이 놓인 숲 속은 평강이 온달을 찾아가 처음 만난 그 숲 속이다. 단락을 내용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온달의 죽음
2. 온달과 평강의 만남
3. 온달의 소개
4. 평강의 내조와 능력 발휘
5. 온달의 성공
6. 어린시절의 평강

7. 평강과 부왕의 갈등
8. 지철로왕의 소개
9. 평강의 출궁
10. 온달의 전투 출정
11. 온달의 죽음에 대한 평강의 슬픔과 한탄
12. 온달 영혼의 등장
13. 평강의 독립적 삶의 시작

<평강의 푸른피리>는 온달설화의 서사단락을 쪼개어 희곡 전개 사이사이에 삽입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원 텍스트의 단락을 나누어 삽입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화가 부분의 확장이나 독립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과 현대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서사의 역전 현상의 여부이다. <평강의 푸른 피리>는 과거와 현재가 계속 교차 반복하여 사건이 전개된다. 온달 죽음 이전의 사건은 모두 과거의 일이다. 평강의 시점으로 돌아올 때가 현재의 시점이다. 각 사건에 대해 해설자이자 주인공으로 등장한 평강은 독백조로 자신의 심경과 생각을 토로한다. 서사구조를 온달설화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사단락	<온달전>	<평강의 푸른피리>
1. 온달의 소개	1	10A
2. 평강에 대한 부왕의 희연과 공주소개	2	5
3. 평강과 부왕의 갈등	3	1
4. 평강의 출궁	4	6
5. 평강과 온달의 결연	5	7
6. 평강의 능력발휘와 내조	6	2
7. 온달의 성공(사냥터, 전쟁터)	7	3
8. 온달의 전투출정	8	4
9. 온달의 죽음	9	9
10. 온달의 장사지냄	10	10B

서사단락은 『삼국사기』 「열전」에 기록된 온달설화를 기준으로 한다.

희곡의 내용은 온달설화의 모든 내용을 고루 수용한다. 특히 1,2,3,4,5,10은 설화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작가 나름의 상상을 더해 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인물상과 사건의 개연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희곡은 온달이 죽은 부분에서 시작해서 과거의 사건을 평강이 되돌아보는 것으로 전개되다가 다시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온다. 처음과 끝의 평강은 같은 인물이되 다른 심정을 지닌 인물이다. 10A의 평강은 지나온 과거에 대한 회한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물이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평강은 과거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러면서 온달과 아버지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다. 또한 온달에게 느끼는 죄책감과 후회를 덜게 된다. 그래서 10B의 평강은 이제 과거로부터 벗어난 평강이 된다. 어린시절부터 이전까지의 평강은 자신의 억압된 처지를 남성에게 기대어 혹은 남성을 증오했으며 해소해왔다. 그러나 이제 10B의 평강은 홀로 자기의 목소리로 얘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한다.

온달설화는 보통 설화가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것에 비해 비교적 인물의 심리에 대한 표현이 두드러지는 설화이다. 이것은 온달이 평강을 받아들이기 직전 우물쭈물했다는 표현과 같이 감정적 표현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100)</sup> 설화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갈등은 희곡에 이르러 더욱 극대화된다. 이 작품은 평강의 내면적 독백과 심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희곡의 내용을 전개시킨다. 사건은 평강 1인에 의해 구술되지만 동시에 진행되는 그림자극이 사건전개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림자극이 불가피할 경우 배우가 의상에 변형을 주어서 다른 인물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평강의 푸른 피리>는 <온달전>의 온달과 평강이라는 인물의 내적 갈등에 집중한다. 그 행동을 할 때의 평강은 어떤 심정이었는가. 온달은 어떤 생각으로 공주를 받아들였는가. 작가의 관심은 인물의 내면적 고뇌와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설화에 상상력을 가미해 이야기를 전개시킨다. 이러한 내용

100) 진재교, <온달전 분석의 한 시각>,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p.p.185-189 참조.

을 토대로 <평강의 푸른 피리>의 주제의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 (2) <평강의 푸른 피리>의 주제의식

<온달전>이 충성된 신하의 모습을 주제의식으로 삼았다면 최은옥의 작품은 동일한 서사의 진행을 택하면서도 전혀 다른 주제의식을 보여준다. 작가는 가부장 사회의 억눌린 여성의 갈등과 사랑을 위해 희생한 온달이라는 설화 속 인물의 내면의식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부조리한 가치관과 여성의 진정한 자아찾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것은 <온달전>의 서사적 비극성이 빚어낸 ‘한 인물의 안타까운 죽음’ 과 ‘실패한 국토에 대한 상실감’이라는 도의적 주제의식 혹은 가치관과 동떨어진 주제이다. 작가는 <온달전>을 수용하되 현대의 시각에서 <온달전>의 유교적 가치관이 지닌 모순과 그리고 현대에도 여전히 건재한 가부장제와 그 속에서 왜곡되는 여성의 자아에 대한 일갈을 한층 더해진 비극성에 담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오로지 인물의 행동과 독백체의 대사로만 이루어진다. 희곡을 읽는 사람은 기존의 <온달전>의 줄거리를 알기에 희곡 속의 인물의 비극적 운명과 재기에 더욱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된다. <온달전>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동시에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새롭게 설정된 인물들의 관계와 각 인물들의 면면이다. 이에 희곡의 등장인물과 그들을 통해 드러나는 주제의식에 대해 면밀히 살펴도록 한다.

### ① 비극적 애정담 - 온달

<온달전>에서는 온달개인의 갈등과 고뇌는 드러나지 않는다. 온달은 평강의 도움으로 입신양명한 인물이고 나라를 위해 충성하다 죽은 영웅이다. 비록 가난하여 놀림감이 되곤 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임금의 사위자리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평강의 도움이 필수적이긴 했

지만 온달의 성공은 온달 개인의 노력과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어찌 보면 온달은 남성의 입장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형이다. 아름답고 신분 높은 여성의 택함을 입어 이름을 드높였다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진다. 온달이 현재에 이르러 고전 설화의 남성관 신데렐라로 여겨지는 이유는 이런 설화의 내용전개 때문이다.

평강의 입을 통해 표현되는 온달은 순수하고 선하며 세상의 더러움을 멀리하는 인물이다. 온달은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동물을 사냥하기를 거부하는’ 인물이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려는 태아의 상태에 머물러’있던 인물이다.<sup>101)</sup> 그런 그가 평강이라는 ‘자궁’을 통해 새롭게 세상 속에 태어나게 된다. 희곡에서도 평강이 온달을 가르치는 대목은 ‘자궁 안’과 같은 형태를 무대 위에서 보여주도록 주문한다. 그리고 평강은 온달을 ‘내 아기’ ‘내 아드님’으로 부른다. 온달은 평강의 훈련과 지도로 거듭난다.

이 과정에서 온달은 지금까지의 자신을 버려야하는 선택을 해야 했다. 그는 갈등하면서도 결국 평강의 설득에 따르게 되곤 한다. 이것은 사냥과 육식을 거부하던 그가 ‘멧돼지를 사냥하고 육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드러난다. 자기 스스로 금지한 ‘육식’과 ‘사냥’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온달의 육식과 사냥 거부는 세상 속에서 자행되는 폭력적 권력을 휘두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평강은 그것이 세상에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임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지 않은 것을 사냥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민은 가슴 속에 묻고 분노를 키워’야만 한다고 온달을 설득한다.

평강에게 있어 ‘온달’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해주는 인물이다. 공주는 온달의 성공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아버지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온달은 자기의 성공에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그는 본래 세상의 권력에 관심이 없는 인물이다. 그의 노력과 출정은 모두 공주를 위한 것이었다. 희곡에서의

---

101) 최은옥, <평강의 푸른 피리> : 「옥랑희공상 수상작품집」, 옥랑문화재단, 2002, p.147.

온달은 설화 속의 온달보다 능력이 커진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는 공주에게 헌신적인 애정을 바치는 ‘신하’이자 ‘자식’으로써 자신을 규정한다. 하지만 이런 정의는 그가 세상의 권력의 중심으로 갈수록 남성으로써의 욕망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온달에게 있어 평강은 세상적 욕망을 주입한 인물인 동시에 어머니이자 주인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부부이다. 모두가 인지하고 인식하는 관계와 주인공들이 인지하고 인식하는 관계의 간극은 주인공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사회사적 위치와 개인사적 위치의 차이가 사회사적 위치로 이양해야만 하는 위기감을 인물 내부에 일으키게 된 것이다. 평강은 이양을 거부하고 온달은 이양을 겁낸다. 평강에게 있어 관계의 재정립은 또다시 남성적 권력에의 복속을 의미하기에 거부될 수밖에 없다. 온달에게 있어서도 그의 노력과 입적의 동기가 평강에 대한 동경과 애정에서 기인된 충성심이기에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 그러나 재정립되지 않은 관계는 주인공들간의 의사소통을 막는 원인이 된다.

온달은 평강에 의해 ‘남성’을 자각하게 되지만 애초에 정립된 관계를 깰 용기가 그에게는 없다. 그래서 각성된 남성과 ‘성장한 음경’이 그에게는 행복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평강에 대한 욕망을 생성시키고 그를 죄책감과 모욕감으로 괴롭힌다.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지 않았던 세상적 권력의 소유자로 그를 규정하게 된다. 이런 괴로움으로부터의 탈출로 삼은 것이 ‘출전’이다. 그는 죽음을 억울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안식을 찾게 된다. 온달은 자신을 괴롭혔던 평강에 대한 남성적 욕망을 버리고 자신이 원했던 ‘말랑말랑해진 음경’과 ‘숲’으로 돌아간다.

## ② 여성의 진정한 자아와 주체성에 대한 탐색 - 평강

설화 속에서 평강은 자주 우는 아이였다. 희곡 속의 평강은 피리를 즐겨 부는 아이이다. ‘울음’과 ‘피리 소리’는 동급으로 엮인다. 평강의 ‘울음’이 자

기표현으로 정의<sup>102)</sup>될 수 있다면 ‘피리소리’ 역시 그러하다. 설화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온달전>은 평강이라는 인물의 주체적 삶과 결단이 나타난다. <평강의 푸른 피리> 역시 여성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피리는 욕망이 발현되는 도구로 상징된다. 피리는 가는 관을 통해 호흡을 불어넣어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호흡은 바람의 일종에 속한다. 작품에서 바람은 세계를 휘두르고 어지럽히는 욕망의 상징적 표현이다. 평강이 자기를 표현하는 도구는 ‘피리’이다. 평강의 자신으로 있기를 바라는 욕구는 ‘피리 불기’로 표현된다.<sup>103)</sup> 그러므로 평강의 ‘피리불기’는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행위를 상징한다.

평강은 감시가 붙는 궁중의 갑갑한 생활에 역정을 낸다. 그리고 그녀는 감시를 피해 홀로 놀러간 숲 속에서 얼굴도 모르는 한 남자의 아이를 잉태한다. 남자와의 관계는 공주가 비록 그를 ‘강간범’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관계이다. 공주가 상대남성을 칭한 ‘강간범’이라는 표현은 그녀가 지닌 남성성에 대한 인식과 평강이 지닌 이중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생명의 탄생은 남성 혹은 여성 단독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이다. 게다가 평강은 작품에서 모성과 여성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면서 동시에 평강은 부왕으로 대표되는 남성과 남성적 권력의 횡포를 증오한다. 생명과 모성에 대한 동경과 애정 그리고 남성적 권력에의 증오는 그녀를 이루는 양면성이며 그녀가 지닌 내면적 갈등의 근간을 이룬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의 ‘아기’를 함께 잉태한 남성을 ‘강간범’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의 ‘강간’이란 법적·행위적 측면의 표현이 아닌 남성적 폭력에 의해 자행되는 모든 행위 및 관습을 포괄하는 상징적 단어가 된다. 그

102) 윤분희, <여성중심 시각에서 본 온달 설화>, 지역학논집 4, 숙명여자대학교 2000 참조.

103) 바람은 멈추지 않고 불어오고 불어갑니다. 바람은 저 천년의 고요와 저 천년의 침묵과 죽음과 짐작게 울조리는 평화를 가만가만 흔듭니다. 바람은 천년의 시간을 불어오고 불어가면서도 여전히 지혜를 배우지 못했어요. 어리석은 바람 때문에 이 완벽한 세계의 근원은 균열의 틈을 갖게 되었어요.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균열되는 틈을. (<평강의 푸른 피리>, p. 200)

녀에게 생명의 잉태는 그녀 단독적으로 소유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상대남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sup>104)</sup> 남성과의 관계 역시 공주는 자신이 ‘피리부는’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표현한다.<sup>105)</sup>

공주와 부왕의 갈등은 여기서 폭발한다. 공주는 아이를 가진 것을 숨긴다. 그러나 부왕은 알게 되고 공주를 탐에 가두고 피리를 빼앗는다. 공주의 숲에서 아이를 배어오는 화소는 작가의 말에 의하면 유화부인의 해모수와의 관계와 부친으로부터의 내쫓김이라는 기록에서 따온 것이다.<sup>106)</sup>

작품의 결말에서 온달의 혼과 조우하고 자신과 자신의 과거와 화해한 공주는 ‘피리를 불겠’<sup>107)</sup>다고 말하며 떠나는 것에서도 ‘피리’가 상징하는 것이 ‘공주’이며 동시에 자신의 ‘자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리를 부는 행위’는 ‘자아의 표현행위’와 동급으로 엮일 수 있다.

피리는 ‘푸른’으로 수식되고 있다. 푸른색은 평강의 희망을 내포한 색이다. 푸른색은 음양오행 중 하나를 구성하는 색으로 나무를 상징하고 계절적으로는 봄을 상징한다. 신생, 창조, 생명을 표현하는 색으로 이용되며 사람과 풍성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무속에서는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색으로 사용되고 있다.<sup>108)</sup> 푸른색이 가지는 이런 속성을 평강의 ‘푸른’ 피리

---

104) 당연히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 어쩌면 얼굴이 영 없을지도 몰라, 그는 건달이지, 말하자면 백수 (중략) 날 미치게 만드는 강간범…(<평강의 푸른 피리>, p. 162.)

이 아기는 제 거예요. 그냥, 제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제가 숲에서 주워왔어요. (중략) 없어요. 애비같은 건 없다고 수천 번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그 애비라는 게 있다고 해도, 안줘요. 내 아기에요… (<평강의 푸른 피리>, p.167)

105) ‘맞아요, 자발적으로 응했어요, 기꺼이 피리만 불었을 뿐이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숲에 달빛과 바람이 있었어요…(중략)…그런 짓을 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냐구요? 제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데요?’( 앞의 책, p.167)

106) 위의 책, p.p. 136-137.

평강공주의 캐릭터를 구성하는 데는 동명성왕의 어머니였던 유화에 대한 기록도 변용하여 수용하였음을 더불어 밝힌다. ‘저는 하백의 딸입니다. 이름은 유화라고 합니다. 여러 아우들과 나와 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자기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 하면서 저를 웅신산 및 압록강가에 있는 집 속으로 유인해가서 몰래 정을 통해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시다. 부모는 내가 중매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드디어 이곳으로 귀양보냈습시다.’

107) 위의 책, p. 201.

108) 무극에서 음과 양의 기운이 생겨나 하늘과 땅이 되고 다시 음양의 두 기운이 다섯 가지 원소를 생

역시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강은 희곡 속에서 ‘어머니’이자 생명을 출산하는 ‘여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 작품은 평강이라는 인물의 ‘피리 불기’행위가 계속 변주되어 등장하는 작품이다. ‘피리 불기’는 아이의 탄생, 평강의 자기표현, 온달의 새로운 탄생, 평강의 새로운 시작 등으로 변주된다. 이처럼 평강의 ‘피리 불기’는 기본적으로 생명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희망을 내포한다. 그래서 작가는 ‘피리 불기’를 ‘푸른’으로 형상화 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강의 푸른피리>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인물은 평강이다. 설화 속에서 평강은 온달과의 결연을 위해 출궁하고 그의 성공을 위한 내조자의 역할로 만족하는 듯 보인다. 그렇지만 이런 서사의 표면 아래 온달의 성공은 평강의 또 다른 자아실현의 표현으로 읽힐 수 있다.<sup>109)</sup> 희곡 속의 그는 남성적 권력을 혐오하고 증오하면서 남성인 온달을 통해 그 권력에 도전하는 인물이다. 이것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의 핵이 된다. 평강의 모습은 우리 시대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가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의 전통적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감을 스스로가 아닌 자식과 남편을 통해 탐색하는 태도를 보인다.

---

산하였는데, 이것이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이다. 그리고 이 오행에 상응하는 오색은 청, 적, 황, 백, 흑이다.

화(火), 수(水), 목(木), 금(金), 토(土)의 오행은 운행(運行)함에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일과 서로 충돌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상생상극(相生相剋)이다. 다시 말하면 오행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낳아주기도 하며 극(剋)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물고 물리며 주고받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행에는 오색이 따르고 방위가 따르는 것이다. 중앙과 사방을 기본으로 삼아 오방이 설정되며, 색상 또한 오방이 주된 골격을 이루고 있는 양의 색으로써 오색을 기본색으로 배정하고 그 다섯 방위사이에 놓이는 사이색을 음색이라고 한다. 음색은 녹색, 벽색(짙은 푸른색), 홍색, 유향색, 자색이다.

황(黃)은 오행 가운데 토(土)로 우주중심에 해당하고 오방색의 중심으로 가장 고귀한 색으로 인식되어 임금만이 황색 옷을 입을 수가 있었다.

청(靑)은 오행 가운데 목(木)으로써 동쪽에 해당하고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으로 창조, 생명, 신생을 상징하며,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색으로 사용되었다.

백(白)은 오행 가운데 금(金)으로 서쪽에 해당하고 결백과 진실, 삶, 순결 등을 뜻하며 우리민족이 흰 옷을 즐겨입는 원인이기도 하다.

적(赤)은 오행 가운데 화(火)에 상응하며 만물이 무성한 남쪽이며 태양, 불, 피 등과 같이 생성과 창조, 정열과 애정, 적극성을 뜻하며 가장 강력한 벽사의 빛깔로 쓰여졌다.

흑(黑)은 오행 가운데 수(水)에 상응하며 북쪽이고 인간의 지혜를 관장한다. (「문화상징사전」 참조)

109) 윤분희, <여성중심 시각에서 본 온달 설화>, 지역학논집 4, 숙명여자대학교, 2000 참조.

이런 대리만족의 태도는 중국엔 허무감과 회환으로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평강의 회환과 허무는 여기서 기인된다. 그녀는 스스로 ‘울기’를 원했다. ‘피리불기’는 바로 ‘스스로 울기’를 원하는 평강의 욕망의 한 표현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버지에 의해 자유롭게 울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떠나와서도 스스로 울지 않고 온달을 통해 울고자 했다. 이것이 평강이라는 인물이 지닌 한계이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속한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왔음에도 온달을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인간간의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평강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

평강이라는 인물은 억압된 여성을 표현하는 인물인 동시에 억압된 여성이 현실에서 자아를 찾기 위해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가 택한 방식 즉 온달을 이용해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방식을 작가는 진정한 자아실현의 방식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온달의 죽음을 통하여 평강공주는 비로소 자신을 찾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자신의 ‘피리를 불겠다’는 공주의 마지막 독백은 진정한 자아찾기의 방법을 인지한 평강의 모습을 보여준다.

### ③ 남성적 권력의 폭력성의 풍자 -지철로 왕

지철로 왕의 존재는 설화와 구분되는 이 작품만의 특성이다. 희곡의 지철로 왕은 신라의 제 22대 지철로왕을 빌려 형상화한 인물이다. 지철로 왕은 음경의 크기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을 가진 왕이었다.<sup>110)</sup> 재위기간이 매우 길었고 강한 왕권을 소유한 왕이기도 했다. 그는 지혜롭고 뛰어난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지닌 왕이었는데 지철로 왕의 음경의 크기는 왕의 권력의 크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작품에서 작가는 왕의 음경의 크기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이것이 지닌 ‘권력’이라는 상징성에 작가적 상

110) 일연 저, 이재호 역, 『삼국유사』, 제 2 기이편 <지철로왕>, 서울 출판사, 2002, p.p.149-151.

상력을 덧붙이고 있다. 실제로 『삼국사기』에서 지철로 왕은 오랜 기간 왕위에 있으면서 정치를 훌륭히 수행한 왕으로 표현된다.<sup>111)</sup> 이 작품 속에서의 지철로 왕은 설화의 평강왕을 대체한 인물이고 평강왕보다 강하게 왕으로써의 면모를 표출하는 인물이다. 또 희곡은 ‘지철로왕의 음경이 길이가 한자 다섯 치가 되어 배필을 구하기가 어려웠다’<sup>112)</sup>는 유사의 기록을 변형하여 수용한다.

...대왕의 음경은 한자 다섯 치, 대단히 크죠. 대왕답게...? 아니 대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왕은 점점 커지고 강해지는 음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음경은 여자의 구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강해지고 커져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들어가면 좀더 커지고...(중략)...이제는 왕궁 안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하고 강력한 음경을 갖게 되었어요. 자랑스러운 음경을 갖게 된 거죠. (거대한 음경을 달고 다소 우스꽝스럽게 어기적어기적 걸기도 하면서)<sup>113)</sup>

음경의 크기는 남아가 성장하면서 함께 커지는 신체의 일부이다. 즉 음경의 성장은 인간의 신체의 발육과 연결된다. 하지만 작품에서 다 자란 성인인 왕의 음경은 점점 그 크기를 성장시킨다. 여기서 왕의 음경의 크기가 커지고 강력해진다는 표현은 왕의 권력으로 대표되는 남성적 권력의 성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왕의 여성과 권력에 대한 강한 욕망은 여성을 자기소유로 인식하여 억압하고 권력을 위해 친족을 살해하는 죄를 범하게 한다.

111) 3년(502) 봄 3월에 영을 내려 순장을 금했다. ... (중략)... 농사를 권장하고, 처음으로 소를 밭갈이에 사용하게 했다.

4년(503) 겨울 10월에 ‘신라’를 나라이름으로 삼고 존호를 정하였다.

6년(505) 봄 2월 왕이 친히 나라 안의 주·군·현을 정하고 실직주를 두어 이사부로서 군주로 삼았는데 군주의 이름은 이에서 시작되었다. 겨울 11월에 처음으로 담당관에게 명하여 얼음을 저장하게 했으며, 또 선박의 제도를 마련했다.

15년(514) 왕이 세상을 떠나니 시호를 지증이라 했는데 신라에서 시호를 쓰는 법은 이때에 처음 시작되었다. (김부식 저, 이재호 역, 삼국사기 제 4권 신라본기 제 4 지증마립간, 서울 출판사, 2002, p.p.135-138.)

112) 앞의 책. p.150.

113) 최은옥, <평강의 푸른 피리> : 「옥랑희곡상 수상집 제 3회 · 4회」, 2000, p.176.

이런 왕의 욕망을 희곡에서는 ‘탐식’으로 묘사한다. 그는 여자들을 거둬 욕망하고 거둬 탐식한다. 그 결과 그의 주변은 ‘먹다 버려진 음식들과 정복당한 여인들로 권좌 주변이 황폐해’지고 커진 그의 음경을 당해낼 수 있는 여자는 드물어졌다. ‘들어갈 구멍이 없게 된 음경은 잠들지 못하고 쉴 수 없게’ 된다. 결국 ‘이 왕국의, 모든 욕망의 식민자’인 그는 점점 더 쉴 수 없게 되어버린다. 자신의 욕망에 의한 형벌을 스스로 받게 되는 형태가 된 것이다.

이 작품에서 부왕인 지철로왕은 욕망과 권력의 화신으로 묘사된다. 그는 남성적 권력 · 세상적 권력 · 폭력적 권력의 핵심을 표상하고 있는 인물이다.<sup>114)</sup> 동시에 평강을 억압하는 인물이다. 평강은 ‘국가의 모든 아기를 소유한 자’이면서 ‘자신의 유일한 소유’인 아기마저 빼앗아간 그에 대한 증오로 출궁을 결행하고 온달을 훈련시킨다. 지철로왕은 평강에게 있어 부왕이기 이전에 자신이 살기 위해 타개하고 무릎 꿇려야 하는 남성적 권력의 대표자였다. 그러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욕심낸 결과 그의 주변은 황폐하고 그는 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 이런 지철로왕의 모습은 권력과 욕망의 허망함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지철로왕은 온달과 전혀 반대에 위치하는 인물이다. 온달은 욕심 없고 권력을 회피하는 인물이다. 온달은 약한 것에 약했고 강한 것에 강한 인물이며 스스로의 선택으로 ‘가난’과 ‘굶주림’을 택한 인물이다. 이에 비해 지철로왕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고 권력을 탐식했다. 있어도 부족했고 자기 것이 아닌 것에도 욕심을 내는 인물이다. 그 결과 왕은 화려하지만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온달은 희생과 죽음을 통해 비극적이지만 비로소 행복에 정착한 인물이다.

<평강의 푸른 피리>는 여성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3인으로 온달, 평강, 지철로 왕이다.

114) 권력욕이 강한 지철로 왕의 성격형상화를 위해 작가는 실제의 지철로왕이 왕위를 이어받는 과정에 서는 없었던 지철로왕의 친족살해를 작품 속에 삽입한다.

희곡은 1인극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극과 등장인물의 의상 변화를 통해 1인의 배우가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세상에 휘둘러지는 남성적 권력과 그 폭력성을 풍자한다. 설화 속의 평강왕은 소거되고 평강왕이 지녔던 왕의 권력과 아버지로써의 권위적 속성을 신라의 22대 왕인 지철로왕을 내세워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확대시켜 표현했다. 이에 반해 남성임에도 온달은 남성적 속성을 가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태아’로 표현되어 순진무구하고 순결한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것은 온달의 ‘바보’로 불리던 화소와 영웅성을 다른 의미로 변주시킨 것이다. 설화와 마찬가지로 작품 속의 온달은 어리석은 인물이 아니다. 그는 남성이지만 남성적 권력을 거부하고 ‘가난’과 ‘굶주림’을 택한 인물이며 지극히 선하고 세상때가 묻지 않은 존재이다. 그런 그가 비극을 맞이하는 것은 세상의 폭력과 권력을 중요하면서도 그것에 도전하는 여성인 평강을 만나기 때문이다. 작가는 <온달전>의 비극적 승고미를 차용하면서도 남녀간 애정의 비극적 결말을 보다 확대시킨다. 설화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상상력으로 채워 넣은 것이다.

남성에게 복속되기를 거부하면서도 결국 남성을 통해 자신을 찾고자 한 평강의 후회와 한이 가득한 모습을 통해 작가는 여성의 진정한 자아실현의 방식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그리고 결국 여성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은 남성과 세상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그들과의 화해를 통해서 이뤄지며 그 속에서 자신을 제대로 인지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그 바른 방법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 2. 세계와 자아의 갈등에서 빚어진 비극성

### 1) 최인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sup>115)</sup>

---

115)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최인훈 전집 10집: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어이」, 문학과 지성사, 1979

이 작품은 원래 「온달」(현대문학, 1969.7)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작품을 후에 다시 쓴 작품이다. 「온달」은 소설과 희곡을 겸용한 전 4회로 구성된 작품인데 그 경계와 구성이 이후 희곡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로 다듬어졌을 뿐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sup>116)</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립된 체계로 수정되었다고 여겨지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를 대상 텍스트로 삼는다. 그 서사적 경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온달은 늘 다니던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
2.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이것은 꿈이다)
  - 2.1. 여자는 구렁이의 화신으로 본래 하늘의 딸이 죄를 받아 땅에 내려온 인물이다.
  - 2.2. 여자는 온달이 자신이 승천할 나무를 베어넘겼기에 그를 피어 죽이려 한 것이다.
  - 2.3. 온달은 사죄하며 늙은 노모를 걱정한다.
  - 2.4. 여자는 온달의 사연을 듣고 빈 절간의 종이 세 번 울리면 살려주겠다고 한다.
  - 2.5. 종이 세 번 울려 온달은 살아난다.
  - 2.6. 절간에 올라가보니 머리가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가 쓰러져있다.
3. 온달의 집에 평강 공주가 대사와 함께 나타난다.
  - 3.1. 공주는 정치싸움에 밀려 비구니가 되기 위해 왕궁을 빠져나오는 길이다.
4. 공주는 자신이 들른 집이 온달의 집인 것을 알고 놀란다.
5. 공주는 어린시절 부왕으로부터 ‘바보온달에게 시집보낸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6. 길을 재촉하는 대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떠나기를 주저한다.
7. 산에서 돌아온 온달을 본 순간 그녀는 온달과 결혼하기로 작정한다.
8. 10년의 세월이 흘러 온달은 고구려의 유명한 장군이 되었다.
9. 온달이 싸움터로 나간지 한달, 공주는 불안한 마음에 새벽에 홀로 앉아있다.
10. 온달의 망령이 나타난다.
  - 10.1. 망령은 나타나 죽음에 얽인 흥계를 평강공주에게 알려준다.

---

116) 1969년 『현대문학』 7월호에 처음 발표된 「온달」은 1장 온달이 나무하러 갔다가 길을 잃고 꿈을 꾸는 부분은 소설형식이다. 그러나 2장-4장까지는 희곡양식으로 이루어져 소설과 희곡이 합쳐진 형태를 이룬다. 이것은 이후 1970년 재정리되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인훈 전집에 실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를 대상텍스트로 삼는다.

- 10.2. 지난 세월동안 온달의 심경을 공주는 듣는다.
11. 공주는 남편의 시신이 있는 싸움터로 달려간다.
12. 관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고 공주가 나서 달래자 관이 움직인다.
13. 온달을 죽인 장수를 찾아내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복수를 다짐하며 돌아온다.
14. 평강공주가 돌아가고 음모를 꾸민 장수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장담한다.
15. 온달집으로 돌아온 평강은 차마 온달모에게 온달의 죽음을 전하지 못한다.
16. 대사가 장교들을 이끌고 와 평강을 데려가려 하나 평강은 거부한다.
- 16.1. 이 와중에 온달모에게 온달의 죽음이 알려진다.
17. 공주는 온달집의 마당에서 칼에 맞아 죽는다.
18. 온달모는 정신이 나가 오지 않는 온달을 기다린다.

(1) 최인훈 작품과 <온달전>의 서사적 변이

최인훈의 희곡은 <온달전>의 서사와 설화 속에 함의된 정치적 관계를 수용하면서 이를 작가 나름의 필요에 따라 변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서사단락을 <온달전>의 서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온달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x	A. 온달 길을 잃다
x	B. 온달의 꿈
1. 온달의 소개	1a.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
2. 평강에 대한 부왕의 희언과 공주소개	2. 평강은 부왕의 희언을 듣고 자랐다.
3. 평강과 부왕의 갈등	3a.공주는 대사의 말을 듣지 않고 온달의 집에 머물기로 결심하다.
4. 평강의 출궁	4a.공주가 정치적 이유로 궁에서 나와 대사와 함께 온달집을 지나가다.
5. 평강과 온달의 결연	5. 평강과 온달의 결연
6. 평강의 능력 발휘와 내조	6a. 평강의 능력 발휘와 내조
7. 온달의 성공(사냥터, 전쟁터)	7. 온달의 성공
8. 온달의 전투출정	8. 온달의 전투출정
9. 온달의 죽음	9. 온달의 죽음
x	C. 온달의 망령이 나타나 흉계였음을 알려줌
10.온달관이 움직이지 않으니 공주가 위로하자 움직였다.	10a.온달관이 움직이지 않으니 공주가 와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위로하자 관이 움직인다.
x	D. 한달 후 공주는 산속 온달집에 와 노모와

	함께 거한다.
×	E. 대사를 통해 온달의 얘기를 듣고 인연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	F. 군사들이 내려와 공주를 데러가려 하나 공주가 저항하자 군사들에 의해 피살된다.
×	G. 온달모는 온달의 죽음을 듣고 미처서 오지 않는 온달을 홀로 기다린다.

A-G까지는 설화와 달리 희곡에서만 등장하는 화소이다. A, B 도입부의 이야기는 작가가 전승되던 민담을 희곡에 맞게 각색하여 활용한 것으로 작품의 프롤로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후의 사건을 예시하는 복선의 기능을 한다. C는 온달의 죽음과 그 관이 움직이는 화소 사이에 설화에는 없는 ‘온달의 혼령의 등장’부분이다. 이 부분은 희곡에서 전면적으로 온달의 심정과 온달의 행적의 이유에 대해 스스로 서술하는 부분이다. D-G는 온달이 죽음 후 평강의 행방에 대한 상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설화 내에서 등장하지 않는 부분으로 설화의 결말 이후 작가가 생각한 평강의 행방이며 작품 초두에서 암시한 비극적 결말을 보여준다.

1a,3a,4a,6a,10a 는 설화의 내용과 달리 약간의 변형이 주어졌으며 설화의 서사전개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기에 설화의 서사구조내로 편입하여 볼 수 있는 희곡의 서사부분이다. 밑줄로 처리한 부분이 설화와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희곡에서 공주의 출궁은 정치적 맥락에 의한 것이다. 평강은 정치적으로 제거되어 계모에 의해 비구니로 쫓겨나 대사와 동행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달의 집을 지나치면서 온달과 맺어지게 된다.

희곡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은 대사, 평강의 오라버니, 계모, 군사들이다. 그리고 설화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희곡 속에서는 그 역할이 축소된 인물이 평강왕이다. 오히려 희곡 속에서는 평강왕의 부인이자 계모의 역할과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비극적 사건을 획책하도록 한 평강의 오라버니를 강하게 등장시킨다. 결국 평강은 온달의 죽음과 함께 정치적으로 제거된다. 설화에서 온달의 적은 신라군이였다. 하지만 희곡 속에서 온

달의 적은 표면적으로는 신라군이었지만 결국 같은 고구려의 다른 정치세력이었다. 최인훈은 설화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상상에 의해 <온달전>에서 온달의 죽음과 그 이후를 재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최인훈 작품은 <온달전>을 수용하면서도 그 서사전개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모티브를 도입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적 모색을 보이고 있다. 최인훈 작품이 서사상으로 <온달전>과 다르게 나타난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다른 설화모티브의 도입

### ㄱ. ‘치악산 상원사 전설’<sup>117)</sup>의 차용

이것은 온달설화에는 등장하지 않는 설화를 첨가한 것이다. 작품의 도입 부분에서 온달은 길을 잃고 헤맨다. 그리고 미녀를 만나 하룻밤을 보낸다. 그때 희곡상에서 미녀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구렁이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후 등장하는 이야기는 민간에서 널리 전승되고 동화로도 많은 작업이 이루어진 ‘미녀로 변한 구렁이’와 ‘까치(뽕)의 보은’이야기의 서사전개를 따른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희곡에 맞게 재구성되었다.

여기서의 뱀 미녀는 희곡 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온달은 이후 평강을 만나자마자 꿈속의 그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

117) ‘치악산 상원사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설화는 ‘미녀로 변한 구렁이’이야기에 사원(寺院)의 종소리를 곁들인 것이다. 강원도 치악산 중에 어떤 젊은이(활을 잘 쏘는)가 두 마리의 뽕이 뱀에게 잡혀 고생하는 것을 보았다. 뱀은 곧 뽕을 잡아먹으려고 했다. 젊은이는 활을 쏘아서 뱀을 죽이고 뽕을 구해 주었다. 해가 저서 젊은이는 산중의 작은 절에 들렀다. 예쁜 여자가 안내했다. 밤이 깊어서 잠을 깨니 큰 뱀이 젊은이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처녀가 그 뱀인 것이다. 그 뱀은 “나는 아까 길가에서 너의 화살에 맞아 죽은 뱀의 아내”라고 말하며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그 때 절의 종소리가 두 번 울려왔다. 그러자 뱀은 도망을 갔다. 날이 새자 절에 가보니 두 마리의 뽕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었다. 그는 그곳에 절을 세우고 중이 되었다. 그 절이 상원사다. 그 뒤부터 적악산(赤岳山)을 치악산(雉岳山)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0 참조.)

이 작품에서 꿈 화소는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빈번히 등장한다. 치악산상원사 전설을 차용한 이야기 역시 꿈으로 등장한다. 이 이야기가 희곡에서 작용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적 인연설과 작가의 운명관이라는 철학적 주제의식을 표현한다. 둘째, 온달과 평강의 결혼에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셋째, 온달 · 평강 · 노모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 넷째, 온달과 평강의 관계에 대한 예시적 · 상징적 표현이다.

꿈의 구렁이 여인과 온달의 관계는 현실의 평강과 온달의 관계에 대응된다. 구렁이 여인은 본래 하늘의 천상녀로 그녀와 온달의 결합은 공주인 평강과 평민인 온달의 결합에 대응된다. 게다가 두 여인 모두 하늘과 왕궁에서 각각 쫓겨나 온달과 결합했다는 것도 같다. 그리고 처음에는 둘 모두 온달에게 있어 현재의 상황을 타개시켜주는 여인들이지만 결국 온달에게 화를 미치는 존재로 변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구렁이 여인은 길 잃은 온달을 도왔다가 그가 자신이 승천할 노송을 베었다는 이유로 그를 해치려 하다 결국 노모를 죽게 했다. 평강은 자신의 현실에서 도피하여 온달과 함께 거하며 온달을 도왔으나 결국 자신의 야심으로 온달을 죽게하고 온달모를 미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여인이다.<sup>118)</sup>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 좌절당한 구렁이 여인은 권력을 쟁취하려다 좌절당한 평강의 모습에도 대응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온달이 희생되는 데 반해 꿈에서는 온달모가 온달을 살리기 위해 죽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꿈이 온달에게 다가올 비극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기능하는 것은 동일하다.

#### ㄴ. 아기 장수 전설의 도입

최인훈의 희곡은 온달설화 이외에도 기존에 전승되던 아기장수전설<sup>119)</sup>을

118) 김현실, <운명적 사랑과 자아성취에 대한 현대적 물음> : 「한국패러디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6, p.27 참조.

119) 정찬영, <온달설화의 현대적 변용-최인훈작 「온달」과 「온달설화」의 대비적 고찰>, 한국문학논총 제 27집, 2000.12. p.p. 289-305 참조.

이야기에 도입하고 있다. 아기장수 전설은 민중계층에서 탄생한 신이한 힘을 지닌 아기장수의 비극적 결말에 그 구조적 기반을 둔다. 최인훈 희곡의 온달도 신이한 힘을 지닌 존재<sup>120)</sup>로 이 아기장수에 해당된다. 작품 속에서 미천한 출신의 온달은 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온달의 죽음은 그의 존재가 지배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기장수 전설에서 아기장수가 집권자인 왕의 세력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죽음이다. 설화에서 온달의 성장과 죽음이 각각 왕에 의한 발탁과 국가를 위한 충성에 의한 것임을 볼 때, 희곡의 온달의 죽음과 <온달전>에서의 온달의 죽음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희곡은 아기장수전설과 같은 맥락으로 민중영웅인 온달의 죽음을 지배권력에 의한 타살에 의한 것으로 변화시키면서 그 죽음이 가진 비극성의 양상을 심화, 확대시킨다.

온달의 성공은 권력자들의 두려움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온달의 성공은 권력을 향한 욕망이 아닌 평강공주를 향한 애정에서 발로한다. 온달은 자신을 도구삼아 권력을 누리하고자했던 공주의 의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를 묵묵히 감수한다. 애정을 위해 자신을 권력욕의 도구로 희생시켰고 이것이 그의 죽음을 낳았다는 점은 온달의 비극성을 심화시킨다.

## ② 온달 능력의 부각

<온달전>은 평강의 능력이 부각되어 기록되어있다. 반면 희곡은 평강보다 온달의 능력을 부각시켜 표현하고 있다. 설화와 희곡에서 부각시키는 인물이 이동된 것이다. 이런 사실은 몇 가지로 확인된다.<sup>121)</sup>

이야기의 시작은 온달의 꿈 이야기로 시작된다. 설화가 공주의 입장에서

120)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음(2회), 송아지만한 꿈을 메고 다님(2회), 산중에서 호랑이를 타고 다녔다는 소문이 퍼짐(3회)

121) 정찬영, 앞의 논문, p.p.293-294 참조.

온달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면 최인훈의 희곡은 온달의 입장에서 서술된다. 온달은 꿈 속의 여인과 평강을 동일하게 보고 이를 ‘인연’에 의한 필연적 결과로 인지한다.<sup>122)</sup>

둘째로는 평강의 능력이 드러나는 말 고르기 담이 삭제되고 온달의 능력적인 부분에 대한 서술이 작품 내에서 거듭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로써 작가는 온달의 영웅성과 신이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한다.

셋째로는 온달이 죽자 공주의 세력 역시 약화되고 공주가 결국 죽음을 맞는 결과로 끝낸 것이다. 공주의 세력은 오로지 온달에 기댄 것이다. 온달이 없는 공주는 무의미한 존재이고 살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린 존재로 전락한다. 공주의 죽음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이것은 공주 중심으로 서술되던 설화에서는 없는 부분으로 중심인물인 온달이 죽음으로써 그에 속한 존재인 공주도 같이 죽게 함으로써 그 비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두 인물의 죽음은 생에서는 결합될 수 없는 인물들 간의 새로운 결합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희망을 내포한다. 이것은 죽음이 함의한 양면성에 대한 작가의 상징적 표현일 것이다.

## (2)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의 주제의식 -운명론적 세계관과 불교적 윤회관의 수용

작가 최인훈은 1960년대 ‘광장’을 통해 문단의 주목을 받는다. 그가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이데올로기적 싸움으로 양분됐던 문단계에서 그 어느 것도 아닌 인간 본연의 휴머니즘에 기댄 지식인의 고뇌를 표현한 작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이런 경향은 그의 작품이 반 사실주의적이고 관념적이라는 비판 역시 낳게 했다. 소설 속의 주인공들의 현실에 대한 패배의식과 이로 인한 현실참여의 거부라는 면모<sup>123)</sup>는 그가 희곡을 창작하면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최인훈 소설속에 나타나는 세계관과 인

122) 강성천, <한국설화의 현대적 변용>, 동악어문논집, 제 11집, 1979, p.28 참조.

123) 이상구, <최인훈 희곡 연구>, 국어국문학논문집 제 15집, 동국대학교, 1992. 이후 최인훈의 작가적 특성과 소설의 특징은 위 논문에 기대어 살핀다.

물의 성격 파악은 그가 희곡을 창작하고 그 속에서 변화시켜간 가치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최인훈 소설의 인물들은 모두 철저하게 방관자의 입장을 견지한다. 그들의 이런 태도는 살아가는 사회현실에 대해 분석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사회의 모순을 유발시킨 원인에 대한 탐구와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의식을 낳는다. 타협될 수 없는 현실의 괴리는 주인공들로 하여금 꿈속으로 치닫는 자기모순의 형태로 빠지게 한다. 그래서 최인훈 소설에서는 주인공들의 독백과 공상과 꿈으로의 잠식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절망의식과 패배감은 그가 희곡이라는 장르변환에서 현실의 모습이 아닌 고전적 소재를 차용해 작품을 창작하게 한 가장 큰 동력이 된다.

최인훈에게 현실은 절망적이기만 하다. 이런 그의 부정적 현실관은 희곡에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딜레마의 극복을 희곡 속에서는 고전이라는 텍스트를 차용함으로써 해소하려는 노력을 작가는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의 희곡작품은 ‘한국이라는 정신의 성감대<sup>124)</sup>’를 찾기 위한 직접적 노력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최인훈이 행하는 일련의 희곡작업은 자기 시대의 혼돈을 극복하고 자신들이 잠겨있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전통의 고향을 찾아가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그는 고전 속에 담겨있는 한국 고유의 심성을 탐색하여 우리 고유의 보편성을 탐구해나간다. 동시에 동서를 초월한 종교적 심상을 작품 속에서 형상화시킨다. 이런 일련의 작업은 그가 희곡을 창작함에 있어 기본 텍스트로 삼은 설화 외에도 여타 민담을 자유롭게 수용 변이한다는 것에서도 그 작업의 목적이 한국 고유의 것에 대한 탐색과 현실적 모순의 탈출구의 모색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에서도 최인훈의 희곡 작업 경향은 그 대로 드러난다. 온달설화라는 고전적 텍스트에 등장하는 현실과 갈등하는

---

124) 김승욱, 한국현대희곡의 전통 수용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6. p.159 참조.

주인공들의 모습이나 권력의 폭력성과 현실의 뿌리칠 수 없는 제약, 그리고 부패하고 모순된 사회 혹은 권력과의 대결에서 패배하고야마는 인간성과 개인의 비극적 삶 등이 그것이다. 설화를 작가의 상상력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변모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차용해온 기본 텍스트인 온달설화 이외에도 민간에 전승되던 아기장수 전설과 치악산 상원사 전설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목과 작품 전반에 걸쳐 작가의 운명적 세계관과 불교적 윤회관을 드러낸다.

작품 속에서 운명적 세계관은 온달을 통해서 나타난다. 온달의 꿈은 현실과 미래의 상황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온달이 평강을 운명으로 느끼게 하는 동력이 된다. 작품의 온달은 늘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인물이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탓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닥친 죽음도 수용하려 하고 갑작스러운 평강의 출현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인물이다. 이런 운명관에 의해 얽힌 평강과의 관계는 그래서 보다 강력할 수밖에 없으며 끊어질 수 없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 이런 온달의 운명론적 자세나 작품 전체의 허무의식은 작품에서 사용된 ‘꿈의 장치’에서 기인한다. 신화가 사회가 꾸는 집단적 꿈이라면 꿈은 개인적 신화이다.<sup>125)</sup> 최인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꿈이라는 개체를 통해 개인적 신화의 비극성과 운명론적 가치관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비극은 한 개인과 사회의 질서가 갈등관계에 놓일 때 발생한다. 온달과 평강의 비극은 그들이 세상과 대결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에서 발생된다. 희곡 속에서 등장하는 꿈은 온달의 꿈, 온달모친의 꿈, 평강의 꿈의 3부분에서 나타난다. 온달의 꿈은 작품 자체의 복선 역할을 한다. 온달과 구렁이여인의 관계는 미래에 전개될 온달과 평강의 관계이다. 꿈속에서 모친의 죽음은 온달이 맞게 될 파국적 결말을 암시한다. 그리고 온달이 꿈을 꾸는 시점에 모친 역시 온달이 관을 쓰고 이윽고 관을 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꿈을 꾸다. 모친의 꿈은 미래에 온달이 겪을 비극적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

125) 조셉 캠벨 · 빌 모이어스, 이윤기 역, 「신화의 힘」, 이꼴리오, 2002. p.89.

가능하다. 공주 역시 온달의 죽음을 미리 꿈에서 본다. 이렇게 희곡 속에서 꿈은 앞일을 예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런 예시와 복선의 기능 뿐 아니라 꿈은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작품은 꿈에서 시작되어 계속적으로 꿈이 중요한 구조적 기능을 가지고 작용한다. 꿈은 현실과 연계되어 있고 인물들은 현실과 꿈을 동일시한다. 꿈이 현실이 되고 현실은 꿈으로 편입된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스스로의 고백 속에서도 자신들은 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여긴다. 공주가 온달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것도 ‘마치 꿈 속에서 본 듯한 신비한 기분’ 때문이고 온달이 공주를 받아들이는 것도 ‘꿈 속에서 본 그 여인’으로 공주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꿈의 여인을 현실의 여인과 동일시하고 현실의 인물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가 꿈 속에서 봤던 바로 그 여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인물들이 지닌 운명에 대한 순응의 자세를 극명히 드러낸다.

모든 꿈은 기본적으로 비극성을 내포한다. 등장인물들 역시 자신에게 닥칠 비극을 꿈에서 암시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선택은 꿈에서의 선택과 다르지 않다. 이런 전개는 이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비극성을 향해 치닫게 되는 구실을 한다. 알면서도 이루어지는 인물들의 의도적 착각은 개인적 욕망에 의한 것이고 이 착각은 결국 세계와의 대결과과정에서 패배하고 마는 것이다.<sup>126)</sup>

온달의 죽음과 이로 인한 평강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겹층되면서 작품에 비극미를 강화한다. 그러나 온달과 평강의 죽음은 이야기의 완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살아생전 서로 다른 꿈속에서 살아왔음을 알게 된 평강의 탄식과 이런 괴리를 감내하고 희생한 온달은 죽음을 통해 비로소 한 세계에

---

126) 꿈에 대한 언급은 작품 도처에서 발견된다.

장군은 꿈 속에서 맺으신 백년가약을 생시에 당하시고 평생을 그 꿈이 이어진 것으로 생각하셨지요. 장군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꿈이 잊히지 않는다고 그 꿈 속에서 아직 사는 것 같다고요. (p.70)

그 옛날 그 때부터 / 이 몸은 꿈이었네 / 아둔하고 우둔한 / 내 님의 꿈이었네 / 온달 내 님 ㅇ // 그 옛날 그 기쁨이 / 별판에 흠어졌네 / 내 아닌 내 마음이 / 내 님을 죽였다네 / 온달 내 님 ㅇ // (p. 60 : 온달의 관 앞에서 부르는 공주의 노래 중 일부)

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순환적 구조는 불교의 윤회관과 맞닿아 있다.

최인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그 제목에서부터 불교적 윤회관을 드러낸다. 동시에 이것은 작품의 주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현실에서 소통되지 못하고 단절되었던 온달과 평강의 애정과 현실과의 갈등은 죽음을 통해 비로소 화해의 기점을 만난다. 그의 작품은 <온달전>이 역사서에 속한 「열전」에 실린 이야기라는 특성을 잡아 정치적인 암투로 이야기를 재수정하여 창조해냈다. <온달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정치적 암투를 등장시키고 새로운 줄거리를 상상하여 희곡을 썼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와 <온달전>의 유사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 작품은 <온달전>의 중심인물인 온달과 평강, 그리고 온달모를 차용하고 온달과 평강의 신분을 뛰어넘는 결연담만을 가져왔을 뿐 <온달전>의 주제의식이나 서사구조와의 유사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고전작품 속에 잠재한 ‘신분을 뛰어넘는 남녀간의 결연담’이라는 보편성을 이어받고 주인공들을 더욱 비극적인 상황에 투영시키면서 작가가 추구한 것은 결국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대한 성찰과 ‘현실의 권력과 대결하던 개인의 비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비극에서 좌절하지 않고 불교적 세계관을 투영시킴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희곡에서 새롭게 드러난 작가의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 희곡을 통해 ‘삶의 핵심인 만남과 헤어짐을 온달과 평강을 통해 그려내고자’ 했으며 그들의 만남을 ‘인간의 근본적 경험의 한 원형으로서 보기’를 원했다고 한다. 기존 사회가 지니는 모든 편견을 넘어 평등하고 태아와 같은 놀라움으로 ‘서로를 발견하려는 안간힘’을 통해 사람간의 ‘만남과 헤어짐의 감각에 무더진 시대’를 일갈하고자 했다<sup>127)</sup>는 작가의 의도가 꿈과 같이 느껴지는 인물간의 관계도와 서사전개상에서 얼마나 부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

127) 최인훈, <문학과 이데올로기>, 「최인훈 전집」 제 12권, 문학과 지성사, 1979, p.p.244-245 참조.

### 3. 열전 <온달전>의 서사확장 및 장편화

#### 1) 조령출의 <온달전><sup>128)</sup>

조령출의 <온달전>은 총 118쪽, 7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삼국사기』 <온달전>의 서사전개순서를 그대로 따르면서 새로운 인물과 관계를 재창조하여 서사의 확장을 통한 다시쓰기를 시도한 작품이다.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서사단락을 소제목별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바보 아닌 <바보>]

1. 평양성에 사는 거지아이는 <바보온달>로 불린다.
2. 온달의 부친은 전쟁통에 전사하고 그 충격으로 모친은 눈이 멀게 되었다.
3. 온달은 구걸로 모친을 모시고 살아가는 효성 깊은 아이이다.
4. 출중한 인물과 장대한 기골에도 불구하고 빌어먹고 다니는 그를 사람들은 ‘바보’라 부른다.
5. 구걸한 음식은 입도 안 대고 집으로 가져가 어머니를 드리는 온달을 놀리는 아이들이 부른 노래가 궁중에까지 퍼져갔다.
6. 성장한 온달은 농사와 사냥으로 집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7. 온달은 궁중 평강공주의 유모로 있는 설씨가 떨어뜨린 금가락지를 찾아주고 설씨로부터 후사로 평생 소원이었던 어머니의 옷감을 받게 된다.

[평강공주]

8. 평원왕은 외동딸 평강을 몹시 사랑하였다.
9. 공주는 어린시절부터 울보였는데 <바보온달>에게 시집보낸다는 말에는 울음을 그쳤다.
10. 공주는 바보 온달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유모로부터 온달의 실제 됴됨이를 듣고 그를 꿈 속에서 보곤 한다.
11. 공주를 모시는 시녀의 언니가 대대로 집안에서 일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맞아죽었다는 것을 듣고 대대로 집안에 대해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

128) 조령출, <온달전>, 평양: 문예출판사, 1984.

[갈림길]

12. 세월이 흘러 온달은 18세가 공주는 15세가 되었다.
13. 온달은 활로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해서 살아가다
  - 13.1. 생계를 꾸리느라 남들처럼 경당에서 글과 무예공부를 못했다.
14. 경당 앞에서 마을청년들간의 씨름대회가 열리고 온달은 영겁결에 대표로 10월 평양성 안에서 벌어지는 씨름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15. 10월 제천행사 ‘동맹’에 출전한 늙름한 온달의 모습을 본 평강은 온달에게 한 눈에 반하게 된다.
16. 이듬해 봄, 3월 3일 낙랑별 사냥대회에서 대대로의 아들 우로는 뛰어난 무예와 글솜씨로 왕에게 부마로 낙점된다.
17. 평강은 우로의 아첨하는 듯한 글과 그의 됃됨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18. 평강은 왕이 우로와의 혼사를 얘기하자 부왕의 과거의 말을 들어 희언을 비판하며 간한다.
19. 평강은 금은 패물을 챙겨 내쫓기듯 궁궐을 나오게 된다.

[여우귀신]

20. 유모인 설씨녀의 배려로 설씨녀의 동생집을 찾아가 금이와 설부인을 통해 온달의 집 위치를 듣고 떠난다.
  - 20.1. 금이는 사실 설씨녀의 외동딸이다
  - 20.2. 설씨녀와 설부인 모두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유복자로 금이가 태어났다.
  - 20.3. 궁중유모로 들어가게 된 설씨녀 대신 그 자매인 설부인이 딸처럼 금이를 키워왔다.
  - 20.4. 설부인이 금이를 시녀처럼 데리고 가라고 평강에게 말하지만 평강은 이를 거절한다.
21. 평강은 온달집을 찾아가지만 노모와 온달로부터 거부당한다.
22. 평강은 기가 막히면서도 밤새 온달집 시립문 밖을 지킨다.
23. 이것을 보고 정말로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믿게 된 온달은 공주를 대접한다.
24. 가난한 집안을 들어 거절하자 공주는 노모를 설득하여 함께 살게 된다.
25. 패물을 팔아 살기 좋은 아미 마을에 터를 닦고 새 집을 짓다.
26. 평강은 온달에게 말타기와 글공부를 하여 사냥 대회에 나가 이름을 떨칠 것을 권유한다.

27. 집들이를 하던 날, 평강은 유모가 궁에서 내쫓겨 아단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무사로 되기까지]

28. 공주의 권유에 따라 시장에 가서 비루떡은 국마를 싸게 구입한다.

29. 철지를 통해 우로가 온달에게 앙심을 품었다는 사실을 전해듣는다.

30. 온달은 대형 우로의 행태에 대해 분개하는 철지의 모습이 예사 싸움패의 모습이 아님을 느끼고 놀라워한다.

31. 공주의 정성스런 보살핌으로 말은 놀라보게 달라진다. (말의 이름은 ‘룽마’이다)

32. 온달은 활, 창, 칼 등의 무예를 배워 뛰어난 무예를 갖추게 되었다.

33. 온달은 무예수련을 위해 경당노인과 그의 사위 을지소와 딸 아사월과 함께 보현동의 암자로 들어갔다.

34. 부왕과 대형 우로는 각각 그리움과 앙심으로 평강공주를 찾아오려 했다.

35. 온달이 이사간 곳과 그 내막은 경당노인의 주선으로 마을사람들에 의해 비밀로 지켜졌기 때문에 우로와 왕은 공주를 찾지 못했다.

36. 무예수련을 떠난지 일년이 넘는 어느 가을 밤 온달은 평강과 집에 대한 그리움에 노인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떠난다.

37. 그날 밤 평강은 자신을 찾기위해 들이닥친 병사들을 철지의 기지로 간신히 피한다.

38. 집으로 돌아오던 온달도 공주를 찾으러 온 무리들에게 습격을 받지만 그들을 무예로 누른다.

39. 집에 온 온달은 평강의 준절한 기색에 가볍게 움직인 자신을 반성한다.

40. 돌아가려는 온달에게 평강은 아침이라도 먹고 가라고 붙잡지만 온달은 스승과 동트기 전까지 돌아가리라 약속했으므로 가겠다고 돌아간다.

[락랑벌의 사냥대회]

41. 온달은 사냥대회에 출전하여 자신의 무예를 왕앞에 드러내어 감탄을 샀다.

42. 우로와 경쟁하여 이기고 왕을 위기에서 구하여 치하를 받는다.

43. 사냥대회에서 장원으로 뽑혀나가 드디어 왕에게 자신이 온달임을 알렸다.

44. 왕은 희비가 엇갈렸지만 온달에게 상을 내리고 동명왕릉으로 갔다.

45. 왕은 비밀리에 온달을 불러 평강의 안부를 묻고 혼례여부를 물었다.

46. 온달은 왕의 허락 후에야 혼례를 올릴 생각임을 말한다.

47. 왕은 무사가 되는 길과 부마가 되는 길은 다르다고 말하며 온달을 물린다.
  48. 아미 마을로 금의환향한 온달을 마을사람들과 노모와 평강이 반긴다.
  49. 궁에서 사람이 나와 평강을 금수레에 싣고 궁으로 들어간다.
  50. 부왕을 대면한 평강은 자신의 불효를 사죄하나 자신의 뜻은 변치 않음을 고한다.
  51. 왕 역시 공주를 위해 온달로 부마를 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과 국왕으로써는 그럴 수 없음을 얘기한다.
  52. 또다시 공주와 부왕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공주는 온달집으로 돌아온다.
- [온달장군]
53. 북국의 외적이 쳐들어오자 왕은 대모달을 선봉장으로 삼아 나간다.
  54. 적군의 위세가 강해 대모달의 활약으로 무찌르되 아군을 많이 잃어간다.
  55. 대모달이 적장과 승부를 겨루어 이겼으나 적의 장수들이 그를 포위하여 해치려 하나 막을 수가 없었다.
  56. 이때 한 장수가 나서 적장들을 무찌르고 대모달을 구해오니 온달이었다.
  57. 대모달의 부상으로 선봉장을 다시 세우고자 하니 많은 신하들이 온달을 추천하였다.
  58. 왕이 온달을 선봉장으로 삼았다.
  59. 우로가 온달을 시기하여 자객을 보내나 철지에 의해 발각된다.
  60. 온달은 적군을 무찌를 대담한 방책을 세워 을지소에게 우익을 우로에게 좌익을 맡긴다.
  61. 적군이 온달의 함정에 빠져 수세에 몰리나 우로의 좌익이 무너져 고구려도 위기를 맞는다.
  62. 온달과 아사월과 철지의 활약으로 북국의 적군을 무찔러 승전하다.
  63. 왕은 온달을 치하하여 높은 벼슬을 주고 우로는 변방 작은 성의 무관으로 보낸다.
  64. 온달은 왕의 명으로 북쪽성들을 돌아보고 평양성으로 금의환향한다.
  65.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온달을 환영하는 가운데 온달 모의 눈이 밝아진다.
  66. 온달과 공주의 혼례잔치가 열린다.
  67. 온달이 싸움에 나가 전사한다.
  68. 어머니는 온달의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이를 보고 칭송하였다.
  69. 평강은 온달이 죽은 전장으로 향한다.

- 70. 평강이 가보니 온달의 영구가 홍보에 싸여 누워있다.
- 71. 온달의 관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강은 온달을 위로한다.
- 72. 온달의 관이 들리고 이에 장사를 지낸다.
- 73. (서술자 개입) 인민출신의 영웅 온달의 이야기는 온달의 전사를 아쉬워하고 공주와의 믿음과 사랑을 잊지 못하는 인민들의 심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평하다.

**(1) 조령출 작품과 <온달전>의 서사적 변이**

조령출의 작품은 <온달전>의 서사단락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작가는 <온달전>의 내용을 보다 풍성히 재구하여 하나의 또 다른 전기를 창작하려는 의욕을 보여준다. 그 서사단락별로 비교해보면 그 유사성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서사단락	<온달전>	조령출의 <온달전>
1. 온달의 소개	1	1 [바보아닌 바보]
2. 평강에 대한 부왕의 희연과 공주소개	2	2 [평강 공주]
3. 평강과 부왕의 갈등	3	3 [갈림길]
4. 평강의 출궁	4	3 [갈림길]
5. 평강과 온달의 결연	5	4 [여우귀신]
6. 평강의 능력 발휘와 내조	6	5 [무사로 되기까지]
7. 온달의 성공(사냥터, 전쟁터)	7	6 [락남벌의 사냥대회] 7 [온달장군]
8. 온달의 전투출정	8	7 [온달장군]
9. 온달의 죽음	9	7 [온달장군]
10. 온달의 장사지냄	10	7 [온달장군]

조령출의 작품에서 <온달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서사단락상으로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작가가 설화의 서사전개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내용적인 부분에서 변용을 가했기 때문이다. <온달전>이 짧은 분량의 설화인 반면에 조령출의 작품은 장편 분량의 소설로 변형되었다. 작품은 총 7단락의 소재목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것은 설화의 서사단락의 확장형태로 보인다. 특이할 점은 설화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온달과 공주의 결연담부터 온달의 성공과 죽음부분이 전반부보다 비중이 높게 다뤄졌다는 점이다. 이것

은 양적으로 드러난다. 작가는 온달과 평강의 만남에 보다 현실적인 개연성을 주기 위해 설씨녀라는 인물을 창조하여 온달과 평강이라는 인물을 소개한다. 조령출의 작품은 온달이라는 인물의 영웅성에 그 초점을 지속적으로 맞춘다는 점에서 <온달전>의 입전논리에 가장 유사하다. 작품 전반에 걸쳐 온달의 영웅적 면모에 대한 서술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온달의 죽음의 의미를 재창하고 있다는 점, 온달의 훈련과정을 상세히 다룬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평강공주의 역할이 설화와 마찬가지로 결연 이후 서사의 뒤로 밀려나있어 설화와 유사하다.

조령출의 <온달전>이 설화의 기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에서 기인된다. 작품에서 새롭게 작가가 창조해낸 인물은 싸움패 철지, 설씨녀와 설부인 자매, 설씨녀의 딸이 금이, 경당노인, 을지소, 아사월, 우로이다.

이중 주목되는 인물은 온달과 지속적인 경쟁관계이며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우로라는 인물이다. 우로의 등장은 온달과 경쟁관계의 인물을 설정하여 극적 긴장감을 높이는 동시에 평강을 사이에 둔 애정의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우로는 나라 최고의 자리에 있는 대대로의 아들인 동시에 평강왕이 부마로 점찍은 인물이다. 뛰어난 무술솜씨와 글 솜씨로 온달보다 먼저 낙랑벌의 사냥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 대형을 자리를 하사받는다. 그러나 평강은 우로의 글이 임금에게 아첨하는 글이고 그의 사치스러움과 대대로 집안의 포악함을 익히 들어 그를 싫어한다. 이런 부분 역시 작가가 설화의 소설화 작업에서 기울인 세밀한 플롯의 설정을 느낄 수 있다. 설화 속에서 평강은 단지 부왕의 희언을 들어 부왕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는 설화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상상을 통해 좀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원인을 지속적으로 쌓아나감으로써 평강의 선택이나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해준다.

평강의 출궁 이후 우로는 공주와 온달에게 앙심을 품게 된다. 그래서 사

람을 풀어 공주를 찾고 온달을 해치려고도 하나 실패한다. 그와 온달의 대결양상은 온달이 사냥대회에 출전했을 때 극명하게 나타난다.

… 큰 수리개 한 마리가 가까운 곳에서 아찔한 창공으로 날아올랐다. 무사들 모두가 그 수리개를 바라보았다. 왕은 수리개를 활로 쏘아맞히고 싶어하는 무사들의 심정을 가늠하듯 좌우를 돌아보며 저것을 단번에 맞힐 사람이 없는가고 물었다. 대형 우로가 말을 타고 나와 겨냥하더니 활을 쏘았다. 수리개는 화살을 맞고 곤두박혔다. (중략) 그런데 이때 또다시 저 멀리에서 자그마한 새매 한 마리가 높이 날고있었다. <저 작은 새매를 맞힐 용사는 없었고.> 왕이 무사들을 향하여 물었다. 모두들 서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때 을지소가 온달을 특켰다. 온달은 말을 탄채로 앞으로 나가 눈깜짝할사이에 새매를 겨냥하고 활줄을 당겼다. 날아가던 새매가 힘없이 날개를 접고 곧추 떨어졌다. 환성이 터져올랐다. (조령출, <온달전>, p. 94)

이런 갈등과 대결구도는 이후의 큰사슴 한 마리를 두고 벌이는 대결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우로와의 대결양상은 당연히 온달의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우로라는 인물을 내세워 작가는 사치스럽고 포악한 권력에 대한 비난과 함께 민중적 영웅인 온달의 면모를 보다 부각시키고자 한다. 또한 작품 내에서 계속적인 위기감과 갈등을 조성함으로써 이야기적 재미와 온달의 성공에 대한 카타르시스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보인다.

조령출의 작품은 <온달전>의 서사전개를 그대로 이어받은 작품이다. 그러나 기본 서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작가는 북한의 국가의식과 고구려 문화와 민속에 대한 내용으로 작품을 재창작한다. 이것은 고전의 골격만을 유지한 새로운 온달에 대한 전기로써 북한이라는 사회 내에서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적 목적을 지닌 창작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조령출 <온달전>의 주제의식

조령출의 <온달전>은 북한에서 창작된 소설작품이다. 작가 조령출은 계속적으로 고전의 현대화작업을 펼친 작가로써 <온달전> 외에도 그가 지은

<춘향전>등이 우리나라에서도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고구려 설화인 온달설화를 기본으로 고구려의 복식 및 문화사 등을 세밀하게 작품 속에 투영시킨 작품으로 고전문학 뿐 아니라 잊혀졌던 고전의 문화와 풍속을 생생하게 재현시키는 데 주력한 작품이다.

조령출의 <온달전>은 삼국사기의 기록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다 풍부화하면서 마지막에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다. 서술자 개입부분은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고구려 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자부심의 고취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은 국가라는 인식이 있다. 조령출의 작품 역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두고 창작된 작품이다.<sup>129)</sup> 작가는 설화의 전체적 전개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대신에 고구려인의 기상, 고구려인의 무예를 찬양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sup>130)</sup>

고구려인들의 무예와 기상을 보여주는 인물은 온달, 을지소, 아사월, 평강 등의 인물이다. 그들의 무예수련과 학습의 모습을 자세히 기술하고 사냥터

---

129) 진달래와 붉은띠는 북한을 상징하는 기호이다. 이것을 <온달전>에 수용하여 이것이 고구려의 기상(온달)과 국가를 상징하는 개체로 활용한 것에서도 작가의 인식이 드러난다.

진달래는 고구려사람들이 즐겨 사랑하는 꽃이었다. (p.91)  
관에는 홍보가 덮여있고 홍보에는 장군의 이름이 쓰여있을 뿐이다.(p.122)  
고구려의 장수들은 앞뒤에 갈라서 붉은띠로 관을 들었다. (중략) 이 전설은 인민출신의 영웅 온달장군의 전사를 아쉬워하는(후략) (p.123)

130) 마을에서 온달과 청년들을 수련시키는 경당노인의 말은 계속 고구려를 강조한다. 노인이 경당에서 청년들을 가르친다는 점을 통해서 고구려의 교육체제에 대한 설명도 삽입된다. 작가는 고구려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나 조사를 자연스럽게 작품에 섞이도록 배려하고 있다.

경당로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고구려는 동명시조가 세워주신 무술의 나라이다. 고구려의 넓은 곧 솔기와 용맹과 신의의 넓이며 어진 덕을 숭상하고 선을 빛내이며 악을 물리쳐 굴함없이 싸우는 억센 기상이다. 우리가 활을 쓰고 말타기를 하고 씨름도 하며 무술을 닦는 것은 고구려의 넓을 지니자는 것이다. 지금 외적이 호시탐탐 우리 나라를 노리는데 고구려의 아들딸들인 우리 젊은이들은 이 넓을 지니고 고구려를 빛내어나가야 한다.>> (조령출, <온달전>, p.32)

장면이나 전쟁 장면에 상세한 서술과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온달이 씨름대회에 출전하게 된 그해 10월의 제천행사는 동명왕릉앞에 있는 정릉사에서 진행되었다. (중략) 정릉사에는 금과 동을 섞어 만든 두개의 인물상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고구려 시조인 주몽이요, 다른 하나는 주몽의 어머니인 류화였다. 이러한 사당들은 고구려의 여러곳에 있었다. 대가들은 이날 안학궁옆에 세운 사당에서 먼저 하늘제를 지낸 다음 정릉사에 와서 <동맹>(동명왕이란 말이 이렇게 불리워짐)이라고 불리우는 제천행사에 참가하였다. (조령출, <온달전>, p.p.32-33)

온달은 룡마에 앉아 살같이 소나무 사이를 누비면서 몸을 기울여 땅위의 창 네 개를 손에 잡았다. 그리고는 말 위에서 사방으로 몸을 돌리면서 멀리로 창을 던져 소나무에 걸어놓은 방울을 맞혔다. 다음으로 달리는 말잔등에서 다섯 개의 화살을 꺼내여 창이 꽂힌 그곳을 겨누어 쏘았다. 화살은 어김없이 한 곳에 들어박혔다. (조령출, <온달전>,p80)

온달, 아사월, 을지소라는 인물은 각각 활, 칼, 창에 뛰어난 면을 지닌 인물이다. 물론 온달은 작품 속에서 영웅적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월등히 뛰어난 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온달이 활에 뛰어난 면모를 보인다는 것은 그가 지닌 속성이 고구려의 동명왕으로부터 이어진 성격임을 보여준다. 아사월과 을지소의 관계는 약혼 관계이다. 아사월은 여성의 몸으로써 뛰어난 무예를 지니고 전쟁터에서도 어느 남자보다 활약을 하는 인물이다. 작품에서는 여성을 동등한 객체로 보는 시각이 드러난다. 이것은 과거 고구려의 인습적 사고라기보다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체계가 표방한 북한의 여성관이라 할 수 있다.

평강 역시 작품 속에서 지혜롭고 강인한 긍정적인 여인상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온달모 역시 자식을 잃고도 꿋꿋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영웅을 낳아 기른 어머니다운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는다.

## ② 영웅 만들기를 통한 사회주의 국가의식의 공고화

조령출의 <온달전>은 온달을 ‘인민출신의 영웅’으로 규정한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통해 북한이라는 국가를 형상화시켜 보여준다. 사회주의적 의식의 표출은 철지라는 인물과 평강이 부왕을 설득하는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이 전설은 아마도 인민출신의 영웅 온달장군의 전사를 아쉬워하고 그와 평강 공주와의 믿음과 사랑을 잊지 못하는 인민들의 심정에서 나온 것이리라.(조령출, <온달전>, p.123)

진달래는 고구려사람들이 즐겨 사랑하는 꽃이었다. (조령출, <온달전> p.91)

평강은 온달의 활룡개에는 붉은색 띠의 화살들을 넣어 다른 사람들의 화살들과 다르게까지 하였다. (조령출, <온달전> p.93)

관에는 홍보가 덮여있고 홍보에는 장군의 이름이 쓰여있을 뿐이다. (조령출, <온달전> p.122)

붉은 색과 진달래는 북한을 상징한다. 온달을 상징하는 색깔은 붉은색이다. 북한은 스스로 자신들이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았다고 주창한다. 온달이라는 긍정적 인물상의 제시는 문학을 통한 국가의식의 공고화라는 효용론적 문학관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 충성된 신하인 동시에 지배층의 횡포에 대한 감시와 경계에 게으르지 않은 철지라는 인물은 일반 인민이 지녀야할 태도를 보여준다.

철지는 온달에게 힘을 주어 일렸다.

<원썩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데서 생기는 것일세. 명심해두게. 이 철지는 씹패니 나쁜놈이니 하는 말을 듣지만 우리 같은 백성들을 천대하고 세도나 부리며 부화방탕하는 놈들을 보면 뱀이 꼴린단말일세. 대형 우로는 술과 계집으로 세월을 보내고 대가족들이 태평가

만 부르니 만일 외적이 쳐들어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고 근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네.>  
(조령출, <온달전>, p.76)

평강이 부왕에게 온달을 사위로 받아들여달라고 청하는 장면에서도 평등한 인간관에 대한 사회주의적 의식이 나타난다.

평강은 부왕의 옷자락을 손으로 잡고 아뢰었다.

<아바마마, 대가집 자식이라 하여 충의없는 부마를 고르시겠나이까, 아니면 미친한 집 자식이나 충의있는 부마를 택하시겠나이까? 왕에 대한 충의에도 귀천이 있나이까?> (조령출, <온달전>, p.104)

국가에 대한 충의는 귀천이 없으며 그러므로 충성된 국가의식을 지닌 인물이 나라를 위해 쓰여야 하며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조령출의 <온달전>은 역설한다.

조령출의 <온달전>은 『삼국사기』 <온달전>의 충의의 강조라는 주제의식을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의식의 공고화와 인민적 영웅만들기를 통해 민족적 자긍심의 고취를 목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문학을 통해 민족적인 것에 대한 재발견과 자긍심의 고취라는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으며 이것은 순수 우리말의 발견과 유지, 그리고 고전 문학의 재창작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왔다. 조령출의 작품 역시 이런 목적성에 기반을 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고구려의 문화와 민속사에 대한 세밀한 서술과 이를 문학 작품화하려고 한 노력, 그리고 고전 문학에 작가 나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의 확장과 재구를 꾀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이다.

조령출의 <온달전>은 고전을 충실히 재현하면서 작가의 주제의식을 적절히 조화시킨 작품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전의

재창작'과는 다른 형태의 창작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남북한 문학의 비교 연구로써 의의를 지닌다.

'고전의 재창작'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반드시 옳은 방법이란 없다. 조령출의 작품과 같이 고전을 확대시켜 작가의 주제의식으로 새롭게 쓰는 방법이 있다면 최인훈처럼 인물과 설정을 빌릴 뿐 전혀 다른 이야기로 창조하는 방식도 있다. 고전에 대한 전혀 다른 방식과 접근 태도간의 비교는 남한과 북한 문학의 서로 다른 특징을 인식하고 그 장·단점을 공유하면서 함께 올바른 문학적 태도를 설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론

『삼국사기』 <온달전>은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인물인 온달 이야기에 민간에서 전승되던 <내 복에 산다> 형 설화를 함께 엮어 전 형식으로 기술된 문헌이다. <온달전>은 충의 강조와 유교적 가치관의 공고화를 목적으로 입전되었다.

<온달전>에서 온달의 발탁은 지극히 정치적이다. 당시 평강왕이 구세력과 힘의 견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진 귀족 계급을 발탁하고 이들을 키웠다는 것은 역사학자들에 의해 추정되어온 사실이다. 말하자면 온달은 평강왕이 새롭게 발탁하여 키운 왕의 측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온달전>은 온달을 중심으로 읽는다면 고구려 정치사회적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온달전>은 온달보다 평강공주가 주동적 인물에 놓여있다. <온달전>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평강에게 있다. 평강의 주도적 행동은 출궁과 특출한 능력에서 엿보인다. 이런 평강의 모습은 <온달전>이 <내 복에 산다> 형 설화를 차용한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래서 평강의 모습에서는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의 여성의 특징이 드러난다. 그것은 ‘금’과 ‘남편감 탐색담’이라 할 수 있다.

문헌설화의 가장 기본적 텍스트로 여겨지는 『삼국사기』 <온달전>은 평강과 온달 두 인물 모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평강의 모습에서는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의 여주인공의 모습이 드러나고 온달에게서는 전설적 인물이 역사 기록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온달전>의 주제의식은 결국 온달의 맹세와 비극적 죽음에 의해 투철한 충의 정신으로 완결된다. 온달의 죽음과 남겨진 평강의 모습은 일상적으로는 비극이지만 <온달전>에서는 비극적이지 않다. 온달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었고 평강은 원하던 아버지의 인정을 얻었다. 그것으로써 두 인물의 추구하는 바는 모두 이룬 것임으로 그들에게는 비극이 되지 않는다. <온달전>은 이후 문헌 설화로 정착·기록되었는데 『신증 동국여지승람』과 『명

심보감』에 소개된 온달설화는 문헌설화로써의 온달설화의 성격을 보다 확실히 보여준다. 이 두 기록은 <온달전>의 기본 서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각자의 주제의식에 따라 온달의 충성을 강조하거나(『신증 동국여지승람』) 여성의 절개를 강조하는(『명심보감』)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그러나 그 주제가 교시적이고 목적성을 지니며 유교적 윤리의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지배층의 의식을 담아 전승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민간에서 구전으로 전승되는 온달 설화나 동일 유형으로 파악될 수 있는 설화에서는 <온달전>의 주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구체적 지명이나 시대가 소거된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구전되는 설화의 전승자들은 남녀간 결연담의 흥미성과 온달이라는 인물의 성공담에 주목한다. 이것은 현실적 행복에 대한 추구와 이야기적 재미에 치중되는 속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온달전>의 서사단락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온달의 이름이 거론되는 설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온달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 서사전개상 온달설화의 핵심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설화도 함께 분석했다. 온달설화의 핵심화소는 ‘1.부친과 신랑감을 두고 갈등하기 2.여주인공의 집나오기(쫓겨남 혹은 도망) 3.평강공주의 후원과 같은 여성의 후원담 4.남성의 출세담’으로 보고 온달 설화의 기준으로 삼았다.

II장에서는 이런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 <온달전>과 문헌설화 · 구전설화의 서사단락과 전승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온달설화는 평강공주와 온달의 결연담, 그리고 온달의 성공이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전승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온달설화가 시대와 지역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온달설화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문헌설화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인 충을 중심으로 당시의 정치적 · 사회적 상황을 우의적으로 기록한 온달에 관한 전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구전설화는 <내 복에 산다> 형 설

화의 한 유형으로써의 온달설화의 서사를 보이며 여성의 주체적 행동이라는 주제의식을 함의한 채 전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장에서는 <온달전>이 현대문학작품에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전승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한국문학에 있어서 전통에 관한 논의는 한국사의 특수성에서 기인된다. 식민지 치하라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문화활동이 상실된 시기를 거쳐 광복과 혼란기 그리고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 속에서 문학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문학의 이행과정에서 뒤뜰어진 우리 문학의 과정을 되짚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데 전통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전통에의 관심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전통의 의미를 과거에의 복귀에서 찾으려 하면서 그것의 현재적 위상과 미래에의 비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유리된 것으로 규정시키는 자세이다. 고전문학의 현대화 작업에 대한 관심 역시 이러한 경계심을 기초로 연구되어져야 한다.

고전을 현대화하는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변별될 수 있다. 첫째는 고전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 및 유지한 채 전승하는 것이고, 둘째는 고전텍스트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여 다시쓰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원형을 그대로 보존·전승하는 것은 고전을 제대로 인식하는 일차적인 작업으로써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 작업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그런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제기된 방법이 바로 고전의 재구성 및 창작이라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고전을 재구성하고 창작하는 방법은 첫째 고전문학을 소재적으로 차용하거나 수용하는 방법, 둘째로 고전문학의 구조와 미의식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셋째 고전문학을 현대적 시각에 맞게 재해석하고 현대적으로 변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고에서 다룬 네 작품 중 최은옥, 김지원, 최인호의 작품은 세 번째 방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령출은 그 문학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온달전>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작품 내에 사회주의 이념을 투영한 형태로

판단할 수 있다.

최은옥과 김지원의 작품은 희곡과 소설이라는 다른 장르이지만 동일한 주제의식을 내포한다. 두 작품 모두 <온달전>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주체적 행동을 전승하면서도 이것을 현대 여성의 문제로 끌어들인다. <온달전>이 창작되던 시기나 현대의 여성에게서나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자세는 여성이 남성의 성공의 뒤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최은옥과 김지원은 <온달전>이 지닌 여성주체의식의 결합을 놓치지 않고 이를 통해 현대 여성이 지닌 남편과 자식을 통한 대리만족적 자아성취의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여성주체의식에 대한 발견과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고전과 현대가 보편적 정서를 있고 있지만 그 표현의 형식과 주제의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온달전>의 평강과 온달은 갈등관계가 표현되지 않는다. 현대에서는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평강과 온달에게 내적(최은옥) · 외적(김지원) 갈등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여성의 진정한 자아찾기란 스스로 삶을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최인훈과 조령출은 <온달전>의 서사를 여성주의적 관점이 아닌 다른 의미로 전승하고 있다. 최인훈의 경우는 <온달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상상을 통해 현대적으로 <온달전>을 재창조했다. 그는 <온달전>의 신분적 갈등과 극적 신분상승과 애정의 틀을 차용했지만 이를 <온달전>의 서사와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전개시켰다. 최인훈의 작품은 권력의 암투 속에 희생되는 온달과 평강의 비극성을 그리고 있다. 더불어 불교적 윤회관과 운명론적 세계관을 주제의식으로 이끌어내고 이것을 꿈이라는 구조적 장치를 통해 형상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온달전>외에도 미녀로 변한 구렁이 설화와 치악산 상원사 전설, 아기 장수 전설을 함께 수용함으로써 작품의 비극성과 서사적 긴밀성을 강화하고 있다. <온달전>이 평강의 입장에서 쓰여진 이야기라면 최인훈의 작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온달의 입장에서 창작된 이야기이다. 이런 작중 주동인물의 이동은 <온달전>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최인훈의 작품은 영웅 온

달이 아닌 사랑에 빠진 한 남성의 비극적 사랑과 죽음을 이야기함으로써 폭력적인 세상에 의해 파괴된 사랑과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런 과극적 결말은 제목을 통해 내세에 대한 희망으로 거듭되며 종교적 숭고미를 획득하는 효과를 지닌다.

조령출의 작품은 국가에 대한 충성의식 고취와 사회주의 이념의 내포라는 목적성을 지닌 작품이다. 북한은 고전을 발견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높여왔다. 이것은 배타적으로 설정한 서구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그 체제의 유지에 힘쓰고자 한 의도라 할 수 있다. 고구려의 발견에 대한 추구가 뚜렷이 드러나는 조령출의 작품은 민족적 영웅이면서 동시에 인민적 영웅으로써 온달을 규정하면서 김부식에 이어 현대에 온달이라는 역사 인물의 전기를 다시 쓴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령출의 작품은 교시적이고 목적성을 띠고 있다.

<온달전>을 현대적으로 재창작한 작품은 위 작품 외에도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네 작품의 분석에 그쳤지만 앞으로 보다 많은 작품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요구된다. 고전을 현대화한 작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것은 그 현대작품 역시 현대에 나타난 고전작품의 새로운 각 편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고전이 지금까지 전승되는 그 보편성과 현대작품만이 지닌 특수성에 대한 긴밀한 논의는 앞으로 한국문학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삼국유사

삼국사기

명심보감

신증 동국여지승람

논어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국역 『동국이상국집』 I. 고전국역총서 166, 1980.

성기열, 『한국구비문학대계』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성기열, 『한국구비문학대계』 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최래옥 · 김균태, 『한국구비문학대계』 6-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조동일 · 박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김지원, 『정통한국문학대계 60』 : 편강 공주와 바보 언달 이야기, 1985.

조령출, 「온달전」, 문예출판사:평양, 1984.

최은옥, 『옥랑희곡상 수상작품집 제 3회, 4회』 : 평강의 푸른피리, 옥랑문화재단, 2002.

최인훈, 『최인훈 전집 10』 : 옛날 옛적 휘어이 휘어, 문학과 지성사, 1979.

\_\_\_\_\_, 『최인훈 접집 12』 : 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사, 1979.

## 2. 저서

강등학 외 8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고병익, 「삼국사기에 있어서의 역사서술,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 비평사, 1980.

김대숙, 「한국설화문학연구」, 집문당, 1994.

김용만, 「인물로 보는 고구려사」, 창해, 2001.

김현실 외, 『한국패러디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신채호, 「조선상고사」, 형설출판사, 1991.
- 윤여동, 「아주 특별한 고구려사」, 여민락, 2004.
- 이창식 편저,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 임기환, 「6·7세기의 고구려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5」, 지식산업사, 1992.
- 장양수, 「한국패러디소설연구」, 이화문화사, 1997.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I」, 지식산업사, 2002.
-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2004.
- Joseph Campbell · Bill Moyers, 이윤기 역, 「신화의 힘」, 이끌리오, 2002.

### 3. 논문

- 간호윤, 온달전 연구, 인천어문학 16, 2000.
- 강성천, 한국설화의 현대적 변용, 동악어문논집 제 11집, 1979.
- 권오성, 삼국사기 열전의 문학적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1.
- 김나영, 신화적 관점에서 본 <박씨전> 소고, 고소설 연구제 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 김대숙, 평강 · 선화전승의 신화적 성격, 평택대학교 논문집 8, 1996.
- 김남숙, 온달설화의 구조와 교육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8, 광주교육대학교, 1996.
- 김승옥, 한국현대회극의 전통 수용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6.
- 김연숙, 삼국사기 소재설화 연구: 온달, 도미처, 설씨녀 설화에 나타난 열사상, 서강어문 10, 서강어문학회, 1994.
- 김영만,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의 여성상징 연구, 국어국문학 20,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 김유미, 온달설화의 제의극적 변용 : 최인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한국어문교육 8, 고려대학교, 1996.
- 민공기, 온달설화의 생성적 의미에 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6, 1993.
- 박정수, 우부현녀형 설화 연구, 상명대학원 석사, 1996.
-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성기열, 한·일 설화 비교연구의 일례, 한국구비전승의 연구, 일조각, 1981.
- 안은영, 온달전의 서사전략과 전승양상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 2001.
- 윤경수, 온달전의 현대적 의미 분석과 후세문학에의 수용양상, 외대논총 제 12집, 1994.
- 윤분희, 여성중심 시각에서 본 온달 설화, 지역학논집 4, 숙명여자대학교, 2000.
- 이강문, 온달설화의 구조와 의미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 1992.
- 이기백, 온달전의 검토, 백산학보 3집, 백산학회, 1967.
- 이상구, 최인훈 희곡 연구, 국어국문학논문집 제 15집, 동국대학교 1992.
- 이정진, 삼국사기 <열전>의 구성과 서술적 특징, 한국언어문학 제 30호, 1992.1.
- 이지영, '내 복에 산다'형 민담의 전승변이 연구, 관악어문연구 제 15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0.
- 이창식, 온달전승의 구비성과 기록성, 고전문학연구 14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 이창식, 온달축제에 대하여, 아시아지역의 축제, 국제 아시아 민속학회, 1997.
- 임기환, 온달·서동 설화와 6세기 사회, 역사비평 22, 1993.
- 임동철, 충북 북부지역의 설화고 I, 충북대논문집 제 27집, 1984.
- 임재혜, 온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갈등, 여성문제연구 제 11집, 효성여자대학교 부설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2.
- 임형택, 삼국사기·열전의 문학적성, 한국한문학연구 12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89.
- 정찬영, 온달설화의 현대적 변용, 한국문학논총 제 27집, 2000.12.
- 진은진, 여성탐색담의 서사적 전통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02.
- 진재교, 삼국사기 열전 분석의 한 시각, 한국한문학연구 특집호, 한국한문학회, 1996.
- 최운식, 온달설화의 전승양상, 청람어문학 20, 1998.
- 최운식,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고, 한국민속학 6권, 1973.01.

# ABSTRACT

## Transmission and Modern change of On-dal-jeon

Choi, Ji Seon  
Dept. of Korea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begins with intention to complement the fact that existing study doesn't define the original generative meaning of <On-dal-jeon> because the study had made mainly in limited narrative point of view. So in second chapter, focusing on the fact that On-dal-jeon is carried in the Samguksagi, an authentic history, I observed a theme of the narrative contexts of <On-dal-jeon>. And at the same time, I examined its epic strategy which expressed historical facts in the narrative contexts. And I pay attention to authorial design.

As the result of research I found that On-dal-jeon is an allegory showing the loyalty. Kim Bu-sik emphasized on loyalty through a death of On-dal. <On-dal-jeon> has a biographic structure that starts introducing On-dal and ends his death like a general epic strategy. However, the way of stating the story is very narrative. That is, to make the story transmitted, historians who worked on writing On-dal-jeon gave shape to the story, so that coming generations can

follow The model of him. Through this epic strategy, On-dal-jeon bears historic feature as well as narrative feature and is still transmitting to our generation.

However, the important things that we have to pay attention in the transmission of On-dal-jeon is not only that it appears continuance, but also that it shows clearly different patterns according to the transmitting subject that ranges from high noble class to general people. A tale by tradition has a different subject. It concentrates women's subjectivity, the love story of hero and heroine and a hero's story of success. So the tales concentrate and transmit the motifs.

Therefore I inquires into the patterns which delivered in a different way according to the subject and examined the difference of transmittal principles they used. The high noble class's transmittal pattern of <On-dal-jeon> can be seen in prose records such as <Sinjeungdonggukyeojiseungram> or <Myungsimbogam>, and poems of the later Chosun era. Because this type of transmission was mostly done with documents, it showed a fixed pattern that delivered On-dal-jeon's contents in <Samguksagi> without changing very much. Thus through the characters' achievements, it turns up ethic-centered pattern which is being a example and inspires the dominating class's ethics, loyalty, enthusiasm, justice etc.

The general people's transmittal pattern of <On-dal-jeon> appeared in folk tales that transmitted by word of mouth such as a tale of On Dal, Living in Naebok and in legends which handed over in Danyang province where the On-dal mountain fortress wall located. This type is generally done in a oral tradition, so it showed variation transmittal pattern which transmitted the contents of <On-dal-jeon> changed variously. Different from the high noble class who tried to suggest ethical idea through the characters, the class of general people appears a person-centered transmission pattern that delivers the story,

focusing on the person's essential character with affection to the person itself.

In chapter III, I studied the modern literary works that are accepted and changed. These works are showing the variety theme. It concentrates in women's independence and the ego searching. (Kim Ji-won and Choi Eun-ok) The other side the work of Choi In-hun is showing tragedy that a person's hope was defeated and fatalism. Cho Ryoung-chul's work is a rewritten of On-dal-jean. He included the North Korea's socialism, arouse national consciousness. Through this work, Maybe, He want the young people's education about the socialism and nationalism.